

INVITATION  
TO THE  
ARTS

JANUARY

# 예술가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2017 01 vol.301

Cover Story

희망을 노래하는 천사들의 합창  
2017 빈 소년 합창단 신년음악회

특집기획

2017년 재단법인으로 출범하는 부산문화회관

세계의 공연장

가깝지만 먼 나라 러시아  
모스크바의 공연장 이야기

부록 프로그램 가이드



BUSAN CULTURAL CENTER  
부산문화회관

MUSI

PHAN

당신이 몰랐던  
오페라의 유령의 숨겨진 이야기



THIS IS THE R



CAL

PHANTOM



2017.3.18(토)-19(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REAL PHANTOM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26회 정기연주회

# 2017 부산시립교향악단 신년음악회

# NEW YEAR'S CONCERT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지휘 **김노상**



소프라노 **강혜정**



피아노 **김용배**

## Program

- |                         |   |
|-------------------------|---|
| 주메<br>F. Liszt          | 「경기병」 서곡<br>Overture "Light Cavalry"                      |
| 임금수                     | 강 건너 봄이 오듯  |
| 아르디티<br>F. Mendelssohn  | 임밋츨<br>Lied   |
| 슈트라우스<br>J. Strauss II  |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 왈츠<br>"An der schönen, blauen Donau" Waltz |
| 슈트라우스<br>J. Strauss II  | 「천둥과 번개」 폴카<br>"Lustiger Donner und Blitz" Polka          |
| 거슈윈<br>G. Gershwin      | 랩소디 인 블루<br>Rhapsody in Blue                              |
| 스트라빈스키<br>I. Stravinsky | 「봄새」 모음곡<br>"The Firebird" Suite                          |

2017. **1.20** 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부산광역시

문의 607-3106, 3145(교향악단) · 3151(정기회관)

예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www.bscc.or.kr](http://www.bscc.or.kr)

입장권 R석 20,000원 · S석 15,000원 · A석 10,000원 · B석 5,000원

셔틀버스 운행(무료) · 출발지: 대연역 5번 출구 유엔교차로 방향 100M "7번가피자" 앞 → 부산문화회관 · 출발시간: 월~금 19:00 (공연있는 날에 한함)



# CONTENTS

## CULTURAL STORY



- 06 **신년사**
- 08 **커버스토리**  
2017 빈 소년 합창단 신년음악회
- 10 **1월 공연 캘린더**
- 12 **특집기획**  
2017년 재단법인으로 출범하는 부산문화회관
- 32 **신년특집**  
부산시립예술단 2017년 계획
- 40 **세계의 공연장**  
가깝지만 먼 나라 러시아  
모스크바의 공연장 이야기
- 44 **축제속으로 고고**  
제13회 서울 아시테지 겨울축제
- 46 **테마가 있는 여행**  
삼성현三聖賢의 고장  
경산으로 떠나는 겨울여행

## BOARDS INSIDE



- 50 **프리뷰**
- 53 **리뷰**
- 57 **프로그램 가이드**

## CENTER NEWS



- 64 **새로 나온 음반**
- 65 **새로 나온 책**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예술에의 초대 2017년 1월호 통권 301호

발행처 부산문화회관

48534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76번길 1 Tel.051 120(주간), 051 607 6222(야간)

예술단 공연문의 051 607 3100 대관문의 051 607 6095, 6281

발행인 박인건 편집 정복엽 발행일 2016년 12월 25일 인쇄처 호민디앤피 051 807 5100

# 명품 문화 도시 부산을 향한 도약의 해



2017년 정유년(丁酉年)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정유년은 붉은 닭의 해라고 합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의 기운은 강렬한 감정과 단단함과 견고함, 그리고 응집을 의미합니다. 새해 새아침에는 지난해 이루지 못한 크고 작은 일, 계획, 소망들을 다시 한 번 돌아보고 정유년의 붉은 기운, 길운(吉運)을 담아 내외적으로 단단해지는 한 해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부산문화회관은 2017년을 맞는 의미가 남다릅니다. 1988년 개관 이후 부산문화의 본당으로 중추역할을 해온 부산문화회관이 2017년 명품 문화도시 부산의 염원을 이루기 위해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으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 출범은 다양한 콘텐츠와 보다 전문적인 운영, 수준 높은 문화서비스를 요구하는 문화소비자들을 위해 부산시가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바입니다. 실제 '부산문화회관의 재단법인화로 과거보다 얼마만큼 좋아질 수 있을까' 하는 기대와 희망, 바람을 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난해 12월 재단출범 기념음악회로 열렸던 도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핀커스 주커만, 2016 송년음악회, 2016 제야음악회의 무대를 지켜보며 문화에 대한 갈증, 부산시민들의 뜨거운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석을 가득 메워주신 부산시민 여러분들을 지켜보며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의 역할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국내 공연계는 불황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은 새로운 출발선에 서서 그동안의 딱딱하고 획일화된 공연장 분위기, 고정된 틀을 깨고, 부산문화의 진정한 본당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 첫 약속으로 보다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도시, 연중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시리즈들을 준비했습니다.



다. 오전 시간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마티네콘서트, 금난새의 해설로 만나는 금난새 베토벤 시리즈, KNN방송교향악단과 함께 하는 노자와 베토벤 시리즈가 진행됩니다. 그 외에도 빈소년합창단, 러시아 불쇼이 합창단,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체코 마르티누 필하모닉 등 세계적인 연주단체가 부산문화회관을 찾을 예정입니다.

안락한 공연시설, 시민들을 위한 편의시설 확보를 위해 2017년 중극장과 국제회의장이 리모델링에 들어갑니다. 1993년 개관된 중극장은 일부 시설이 노후화되었고 연주자, 관람객의 편의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1991년 개관 당시와 달리 이제는 국제회의장의 기능을 상실한 국제회의장은 현재의 구조를 잘 활용해 독주회가 가능한 챔버홀로의 변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산문화를 대표하는 부산시립예술단은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 위탁경영 체제로 그 역사를 함께 이어갑니다. 지난해 겪었던 부산시립예술단의 내홍은 새로운 도약을 위한 성장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 교향악단으로서 최초로 창단한 부산시립교향악단, 전국 최초로 창단된 시립무용단 등 부산시립예술단은 전국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역사와 전통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새해에도 부산시립예술단에 대한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멀리 광안대교와 해운대가 보이는 부산문화회관은 많은 연주자들을 설레게 하는 최고의 공연장입니다. (재)부산문화재단 전 가족들이 2017년 한 해 여러분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쉽 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정유년 새해를 맞아 시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만복과 화평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1. 1

(재)부산문화회관 대표이사 박인건

희망을 노래하는 천사들의 합창

## 2017 빈 소년 합창단 신년음악회

# Vienna Boys' Choir



©Lucas Beck / 크레디아

‘천상의 목소리’ 빈 소년 합창단이 2017년 새해 부산을 찾는다.

520년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빈 소년 합창단은 지난 1969년 첫 내한 이후, 국내에서 170회가 넘는 무대를 통해 오랜 시간 변함없이 순수하고 맑은 목소리로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1월에 열리는 빈 소년 합창단 신년음악회는 오로지 한국에서만 개최되는 특별한 무대로, 희망찬 새해를 맞는 기쁨과 행복의 노래로 관객과 만난다.

1498년 7월 7일 오스트리아 황제 막시밀리안 1세의 궁정교회 성가대로 시작한 빈 소년 합창단은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빈 국립 오페라단과 함께 빈 궁정악단의 명성을 그대로 이어오고 있는 세계 최고의 소년 합창단이다. 지난 520여 년간 역사 속에서 빈 소년 합창단은 음악사에 등장하는 세계적인 작곡가들의 산실로도 유명하다. 작곡가 슈베르트와 하이든은 소년 시절 빈 소년 합창단 단원으로 활동했으며 모차르트 또한 매일 아침 미사시간 빈 소년 합창단을 지휘하기도 했다. 17세의 베토벤은 합창단을 위해 반주를 맡았으며 바그너, 리스트, 요한 슈트라우스 등은 자신의 곡을 합창단에 헌정하는

등 수많은 작곡가들의 독보적인 사랑을 받아왔다. 빈 소년 합창단은 지금도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런던 필하모닉, 베를린 슈타츠헤펠레 등 세계 최정상급 오케스트라와 마리스 안손스, 주빈 메타, 리카르도 무티 등 세계적인 지휘자들과 협연하며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빈 소년 합창단은 일년에 두 번 있는 오디션을 통해서 선발된다. 이렇게 선발된 변성기 이전의 약 100여 명의 소년들은 오스트리아 정부가 하사한 아우가르텐 궁전에서 엄격한 기숙사 생활을 하며 인성을 겸비한 음악학도로 자란다. 열 살이 되



면 '모차르트, 슈베르트, 하이든, 브루크너' 등 4개의 팀으로 나누어 활동하는데, 이 중 세 개의 팀이 전 세계를 돌며 300회가 넘는 공연을 소화하며 연주여행을 하는 동안 한 개의 팀은 오스트리아에 남아 국내 연주회와 호프부르크 성당의 일요 미사 무대에 선다.

특히 빈 소년 합창단은 1498년 이래 비엔나 궁정 예배당의 매 주 미사 때마다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빈 국립 오페라단과 함께 궁정 합창단으로서 전통을 지키며 궁정성당에서 미사곡을 불러 빈 시민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 바티칸의 성 베드로 성당에서 교황 비오 11세, 비오 12세, 바오로 6세 앞에서도 공연을 가진 바 있는 빈 소년 합창단은 지금까지 수천 회 해외 공연을 통해 민간 문화 외교사절로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빈 소년 합창단의 주요 레퍼토리는 교회음악과 가곡, 왈츠이

지만 현대음악은 물론 월드뮤직에 이르기까지 실로 방대하며 비틀즈, 마돈나, 셀린 디옹, 메탈리카 등 동시대 팝을 편곡하여 부르기도 한다. 빈 소년 합창단만의 순수하고 맑은 목소리로 노래하는 이들의 합창은 누구나 쉽고 편안하게 들을 수 있어 지난 2002년에는 빈 소년 합창단이 녹음한 앨범이 베스트셀러를 기록하며 오스트리아 음악상인 '아마데우스 상'에 노미네이트되기도 했다.

'스마일(smile)'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신년음악회에서는 보이 소프라노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헨리 퍼셀의 송가부터 마음을 울리는 모테트, 재치와 감성이 풍부한 세계 각국의 민요, 우리를 웃음 짓게 만들었던 영화의 명곡들과 신년음악회에 빠질 수 없는 왈츠와 폴카까지 전 연령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곡들을 들려준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특별출연, 양국의 우정을 나누는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 Program

퍼셀 '메리 여왕 생일 송가' 중 '그대, 예술의 아들이여 오라',  
'트럼펫을 울려라', '축복하는 자연을 보라'

H. L. 하슬러 주님께 노래하라

비발디 글로리아 라장조, RV 589 중 '하느님의 독생자 예수그리스도'

모차르트 우리 그대의 보호 아래 K. 198

멘델스존 '한 여름 밤의 꿈' 작품 61 중 '열룩무늬 뱀, 두 대의 혀로'

마크 사이먼(편곡/로저 에머슨) 영화 '시스터 액트' 중 '하늘의 여왕'

불가리아 민요 피리 연주

멕시코 민요 아름답고 푸른 하늘

테리 길키슨 영화 '정글북' 중 '필수적인 것들'

남아프리카 민요 축복

나시오 허브 브라운 영화 '사랑은 비를 타고' 중 '사랑은 비를 타고'

요한 슈트라우스 2세 관광열차 폴카 작품 281

요한 슈트라우스 2세 황제 왈츠 작품 4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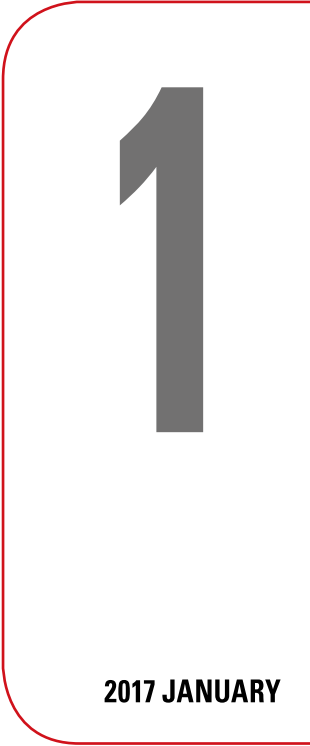
\* 본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Lucas Beck / 크레디아

1월 14일 토요일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95



SUN	MON	TUE
1	2	3
8	9	10
15	16	17
<p><b>소</b> 부산닥터스클라리넷앙상블 제11회 정기연주회 17:00            무료/김태훈(010-7543-0883)</p>	<p><b>소</b> 이민아의 춤 '맥(脈)' 19:30            균일 1만원/이민아(010-5051-0242)</p>	
22	23	24
<p><b>소</b> 제7회 참플룻 정기연주회 17:00            초대/김혜정(010-4016-7477)</p>		
29	30	31

**표 공연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이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www.bscc.or.kr](http://www.bscc.or.kr)를 클릭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바랍니다.



WED	THU	FRI	SAT
4	5	6	7
11	12	13	14
	<p><b>소</b> 장경미 7th 독주회 19:30 장경미 (010-6431-6440)</p>		<p><b>대</b> 2017 빈 소년 합창단 신년음악회 17:00 5만원·3만원·1만원 부산문화회관(607-6095)</p> <p><b>소</b> 토요일상설무대 '부산시립합창단' 16:00 선착순 무료입장/부산문화회관(607-6055)</p>
18	19	20	21
	<p><b>대</b> 제1187회 MBC목요음악회 '시노두스 윈드 오케스트라 2017 신년음악회' 19:30 초대 시노두스 윈드오케스트라(010-8733-7438) (사)문화도시네트워크(760-1494)</p> <p><b>소</b>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공연 '2017 우리춤 산책' 19:30 균일 5천원/부산시립무용단(607-3101, 3154)</p>	<p><b>대</b>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26회 정기연주회 '2017 신년음악회' 19:30 2만원·1만 5천원·1만원·5천원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06, 3145)</p> <p><b>소</b>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공연 '2017 우리춤 산책' 19:30 균일 5천원/부산시립무용단(607-3101, 3154)</p>	<p><b>소</b> 토요일상설무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16:00 선착순 무료입장/부산문화회관(607-6055)</p>
25	26	27	28
2/1	2	3	4
			<p><b>대</b> 이승환 발라드 콘서트 'Only Ballad in 부산' 18:00 13만 2천원·12만 1천원·11만원·9만 9천원 (주)하늘이엔티(1688-6675)</p> <p><b>소</b> 토요일상설무대 '부산시립교향악단' 16:00 선착순 무료입장/부산문화회관(607-6055)</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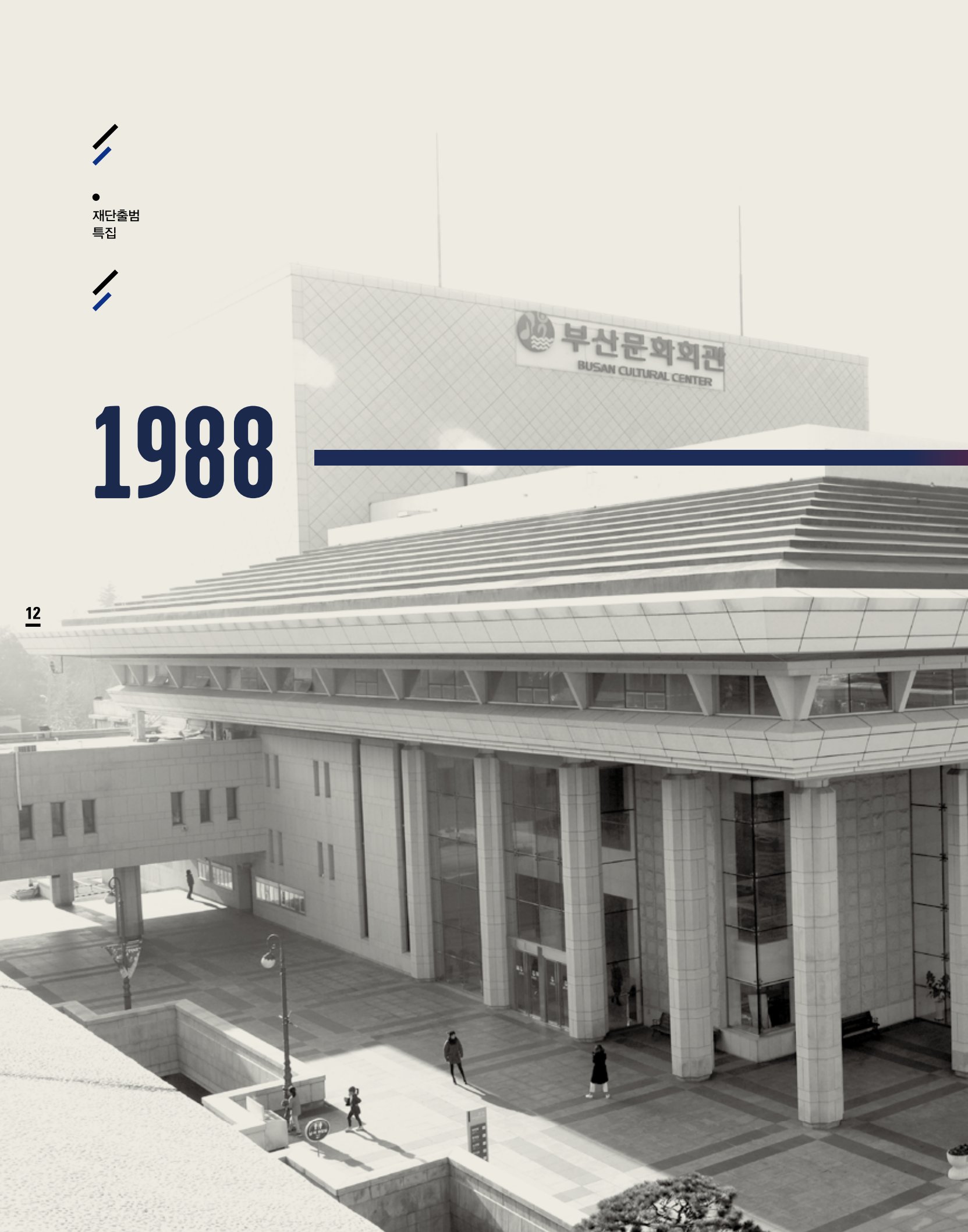


•  
재단출범  
특집



# 1988

12





2017년 부산문화회관이  
재단법인으로 힘찬 첫 걸음을  
내딛습니다

**2017**



##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 출범, 부산 문화의 새 길을 연다



희망찬 2017년 새해의 시작과 함께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이 출범하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부산문화회관은 품격 높은 문화도시 부산을 대표하는 문화예술의 전당으로서, 오랜 기간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부산문화의 저력을 축적하는 본당으로 자리 잡아 왔습니다.

그러나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 문화에 대한 시민적 욕구가 날로 높아지면서, 부산문화회관 역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야 하는 시기를 맞았습니다. 우리 시가 그동안 부산광역시의 사업소 형태로 존재해왔던 부산문화회관을 재단법인화하는 목적은 부산문화회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최종적으로는 전문 기관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부산문화회관이 재단법인화를 계기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시도들을 통해 부산문화의 새 역사를 써나갈 것이라 기대합니다. 일상에 지친 시민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전하고, 창작열에 불타는 부산 예술인들의 열정을 담아내는 훌륭한 공연장으로 더 한층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문화예술인 여러분!

21세기는 문화의 세기입니다. 저 역시 ‘문화로 융성하는 부산’을 꿈꿉니다.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저력 있는 문화도시, 시민들의 일상생활 어디서나 문화가 넘쳐흐르는 도시, 문화가 산업이 되고, 일자리가 되고, 비전이 되는 도시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과 문화예술인 여러분 역시 그러한 부산의 모습을 기대하고 계실 줄 압니다. 2017년, 그 꿈을 향해 우리 함께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정유년 새해 여러분 가정마다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2017년 1월 1일

부산광역시장 서 병 수

## 김동석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부산광역시연합회 회장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의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부산문화회관은 1988년 개관해 3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부산시민들의 문화적 쉼터의 역할을 해 왔습니다. 대극장과 중극장, 소극장, 대·중 전시실에서 펼쳐지는 다양하고도 수준 높은 예술의 향연은 부산시민들의 문화 향유에 대한 갈증을 해소해주었습니다. 특히 부산문화회관은 부산시립예술단을 비롯한 부산의 예술인들이 마음껏 활약할 수 있는 무대로 예술 창작의 산실이 되어 왔습니다. 부산시민들이 예술로 대화의 꽃을 피우는 소통의 장인 부산문화회관이 2017년 재단법인으로 새로운 출발과 함께 자율성과 전문성이 강화되는 만큼 보다 질 높은 공연으로 부산시민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해주며, 부산을 대표하는 공연장으로서 지역 예술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보다 나은 문화서비스 제공으로 저변 확대에 더욱 더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이정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지휘자

지난해 12월 16일 (재)부산문화회관 출범을 기념하는 송년음악회에서 부산시립예술단이 시민들과 함께 올 한 해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것은 향후 부산의 문화예술 전반에 다가올 변화의 바람을 서로 상생의 조화와 더불어 동반 성장해 가야만 하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중요한 연주회였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시민의 행복과 문화의 가치가 공감하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을 만들기 위해 정말 열심히 달려온 한 해였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국악! 새로운 희망의 꿈과 메시지를 전해주는 우리 음악! 정유년 새해에도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부산의 대표적 문화사절단으로서의 역할은 물론 항상 시민들에게 사랑 받는 시립국악관현악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용철 부산시립무용단 예술감독

부산문화회관이 문을 연지 30년을 목전에 둔 2017년, 재단법인이라는 새로운 뜻을 달았다. 기대와 관심이 교차되는 시기다. 요즘은 공공극장과 예술단체들의 법인화는 시대적 조류다. 그 흐름을 어떻게 타고 나갈지가 관건이다. 부산문화회관은 그동안의 축적된 노하우와 예술적 자산을 바탕으로 새롭게 향해갈 준비가 되었다. 그 동력은 조화와 창의성이라고 본다. 부산시립무용단은 여기에 중심점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 부산시립무용단은 그동안 부산, 경남지역의 전통적이고 창의적인 무대를 구현해왔다. 이제 재단 출범과 더불어 공간적, 예술적 확장이 필요한 시기이다. 바로 중앙과 아시아 무대로 보폭을 넓힐 기회가 도래한 것이다. 21세기 춤 미학이 요구하는 창조적, 실험적, 지성적인 안무를 통해 역동적인 무대가 펼쳐지기를 꿈꾼다. 그 꿈은 이제 새로운 뜻에 실렸다. 함께 노를 저어가는 길만이 남았을 뿐이다.

## 곽중필 부산시립극단 예술감독

부산 문화의 중심이자 중심인 부산문화회관이 오랜 전통 끝에 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함을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시립극단 예술감독으로서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부산문화회관은 부산시민들에게 예술의 감동과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의 부재, 부족한 예산으로 인한 재정자립도의 허약함은 늘 지적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여러 의미와 목적이 퇴색됨을 지켜본 저 자신도 많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 출범하는 (재)부산문화회관은 부산문화예술의 중심으로 '부산'스러움과 시민 속으로 진정한 소통과 혁신이 되리라 기대됩니다. 다시 한 번 전문성과 정체성을 바탕으로 새로이 출범하는 (재)부산문화회관의 첫 출항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이건륜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수석지휘자

부산문화회관의 재단법인화를 환영합니다. 일찍이 부산의 대표 예술 공연장으로서 많은 역할을 담당해왔던 부산문화회관이 전문성과 책임성 그리고 독립성을 가지고 더욱 더 발전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부산문화회관이 우리나라 예술의 지표와 방향성을 제시해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발 맞추어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달할 수 있도록 내부적인 개혁과 새로운 시스템 도입을 통해 세계적인 합창단으로 도약, 부산의 자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척박한 문화불모지 부산에 예술문화의 씨를 뿌리다

## 개관 30주년 맞는 부산문화의 본당 부산문화회관

올해로 개관 30주년을 맞는 부산문화회관은 지난 1983년 10월 공사에 들어가 1988년 대극장을 1차로 준공, 개관한 이후 1993년 4월 10년간의 대역사 끝에 대·중·소극장 등 3개의 공연장과 대·중 전시실, 국제회의장, 야외무대 등을 갖춘 종합문화예술공간으로 첫발을 내딛었다.

부산문화회관은 우리나라 전통가옥의 특성을 도입하여 대극장을 본채로, 중·소극장을 사랑채로 배치하고, 특별한 담장이나 대문을 없어서 전통 초가의 울타리와 같이 외부로부터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했다. 건물 구조면에서도 대들보 형태의 열주에다 처마와 추녀의 전통미를 살려 도약의 기상을 나타냈으며 지붕은 콘크리트 슬라브면을 전통기와 무늬로 장식하고 외부 벽면에도 화강석을 사용, 정중하면서도 아담한 조형미를 갖추고 있다.

연면적 18,916㎡(무대 1,524㎡)에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건축된 대극장은 객석 1,403석(1층 804석, 2층 424석, 3층 175석)과 7개의 분장실, 다양한 조명시설 및 음향시설을 갖추고 있다. 1988년 9월 3일 개관한 이래 부산의 음악, 무용, 연극, 국악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펼쳐지면서 부산문화예술의 전당으로 사랑받고 있다. 대극장과 함께 개관한 대전시실은 전시면적 1,152㎡로, 대형 전시공간이 부족한 부산에서 매년 다양한 전시가 펼쳐지고 있다.





특히 대극장은 지난 2010년 4월, 개관 22년 만에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가 그 해 10월 8일 새롭게 달라진 모습으로 부산시민과 만났다. 우선 어둡고 다소 좁았던 로비 공간을 전면과 좌, 우측으로 확장하고 전면에 폭 18m, 높이 11m의 통유리를 설치하면서 밝고 친근한 현대적 감각이 돋보이는 로비로 변신했다. 특히 로비 양쪽에 티켓팅 부스를 설치, 밖에서 기다리며 매표하던 불편을 해소했으며, 늘어나는 여성관객을 위한 여성전용 화장실, 물품보관소, 정기회원 휴식공간, 어린이놀이방을 새롭게 설치했다.

쾌적한 공연관람 환경조성을 위해 객석의자를 교체하면서 공연시야각을 확보하기 위해 객석과 객석 간격을 0.9m에서 1m로 조정, 1,608석이던 객석수가 1,403석으로 줄어들었다. 또한 프로시니엄(객석과 무대를 가르는 테두리 장식 또는 장식아치)을 8.5m 높이에서 9.5m 높이로 확장, 대형공연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다양한 세트 연출이 어려웠던 원치방식의 장치걸이대를 교체하면서 보다 빠른 무대 전환이 가능토록 했다. 이밖에 22년된 아날로그 방식의 음향설비도 디지털로 전환되고 음향전달을 위한 최신식 음향반사판도 설치되는 등 현대적인 공연에 맞는 첨단 공연시설을 갖추게 되었다.

지난 1988년 소극장과 함께 공사에 들어가 5년 만인 1994년 4월 15일 개관한 중극장은 연면적 7,210㎡(무대 면적 323㎡)에 객석 수 767석을 갖춘 중형 공연장으로, 특히 전체 객석에서 무대를 볼 수 있게 설계되어 부산의 문화예술인들에게 각광받고 있다. 특히 중극장은 2017년 올해, 준공 후 23년이 경과되어 노후화된 시설을 전면 리모델링하기 위해 1월부터 대대적인 공사에 들어가 클래식을 중심으로 타 장르의 공연을 수용할 수 있는 클래식 강화형 공연장으로 거듭난다. 중극장과 함께 개관한 중전시설은 연면적 756㎡로, 이번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중극장 공연자를 위한 무대지원시설 및 시민교육시설로 재탄생된다.

지난 1991년 건립된 소극장 역시 올해 어린이전용극장으로 새롭게 탈바꿈한다. 연면적 5,136㎡, 객석 수 212석으로 연극, 독주(독창)회, 판소리 등에 적합한 소규모 공연장인 소극장은 지난 2009년 음향설비 교체와 더불어 관객 눈높이에 맞게 무대높이를 조정하면서 관객과 전문예술인이 만족하는 공연장으로 새롭게 단장한 바 있다. 오는 8월과 9월 두 달간 공사를 거쳐 9월에 개관하는 어린이전용극장은 미래의 관객이 될 어린이와 가족 단위의 관람객을 위한 특화된 극장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무대에 올릴 예정이다. 이밖에 소극장 2층에 자리한, 노후화되어 시설활용도가 낮아진 국제회의장을 클래식 전용음악홀인 400석 규모의 '부산챔버홀(가칭)'로 리노베이션해 8월부터 정상운영한다.

부산문화회관은 개관 이후 국내외 저명연주자의 공연을 유치하고 부산 예술인들에게 발표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척박한 문화불모지 부산에 예술문화의 씨를 뿌려왔다. 지난 30년 동안 부산문화회관을 거쳐간 연주자, 연주단체만도 부지기수. 대극장이 개관했던 1988년 그 해, 서울올림픽이 개최되고 동구권 개방 물결이 밀려오면서 모스크바 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개관 열흘 만에 부산문화회관 무대에 서고 볼쇼이발레단이 개관 기념공연으로 '백조의 호수'를 무대에 올리는가 하면 이어서 레닌그라드 심포니, 상트 페테르부르크 필하모니, 레닌그라드 발레단, 차이코프스키 국립발레단, 불가리아 국립오페라극장 등 베일에 가려졌던 동구권 예술단체들이 대거 무대에 오르면서 그 당시 부산문화계에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또한 첼로의 신화 로스트로포비치를 비롯해 첼리스트 요요마, 미샤 마이스키, 피아니스트 피터 아블론스키, 정트리오(정명훈, 정경화, 정명화), 소프라노 조수미, 신영옥, 홍혜경 등 세계적인 연주자들이 부산문화회관을 찾아 부산시민들의 예술적 갈증을 충족시켰다.

또한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산시립합창단, 부산시립무용단,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등 부산시민회관을 터전으로 활동해오던 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가 부산문화회관 상주단체로 새롭게 출발하고 부산시민들의 문화적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부산시립극단과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등 2개 단체가 늘어나면서 부산시립예술단은 문화도시 부산을 알리는 사절단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 전문성과 경쟁력 강화로 부산문화의 본당으로 거듭나다 2017년 역사적인 첫 발을 내딛는 (재)부산문화회관

2017년 1월 1일 부산문화회관이 재단법인으로 역사적인 첫 발을 내딛는다. 지난 1988년 대극장 개관과 함께 부산광역시 산하 사업소로 운영되어온 부산문화회관은 부산시가 지난 2015년부터 부산의 대표적인 문화시설로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단법인화를 추진해왔다.

부산시는 지난 2014년 부산발전연구원 용역과 시정경영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이듬해인 2015년 8월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민회관, 그리고 부산시립예술단 경쟁력 확보를 위한 '문화회관 혁신 추진단'을 구성, '부산문화회관의 재단 법인화'를 공식적으로 확정하고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재단법인화에 박차를 가했다.

2016년 3월 행정자치부의 재단법인 설립 타당성 협의를 거쳐 6월 부산문화회관의 재단법인화를 위한 근거 조례를 제정, 부산문화회관의 재단법인화를 위한 초석을 마련했으며, 6월 20일 발기인총회를 통해 재단법인의 설립취지문, 정관안을 심의, 의결했다. 7월에는 임원추진위원회를 구성, 재단법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비상근이사, 감사 후보자를 공개채용하면서 지난 30여 년간 다양한 공연문화예술 현장에서 예술행정가로 활동해온 박인건 씨를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박인건 대표이사는 특히 총무아트홀과 KBS교향악단 사장으로 재임 시 재단법인화를 조기에 정착시켰으며 경기도문화의전당,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관장 재임 시절에는 예술단을 위탁 운영하는 등 예술행정 전문가로 정평이 나왔다.

이후 7월 창립이사회를 거쳐 8월 법인 설립허가를 마무리하고 재단법인으로서의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한 (재)부산문화회관은 지난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전문인력을 공개채용한 후 부산문화회관 인수, 인계를 마무리짓고 2017년 1월 1일 재단법인으로서의 공식적인 출범을 알렸다. 한편, 부산문화회관 상주단체였던 부산시립예술단은 부산시 산하에 남기로 하면서 부산시립예술단 법인화는 중기적인 과제로 남았으며 현재 부산시설공단이 위탁 관리하고 있는 부산시민회관은 올해 하반기까지 통합을 추진, 빠른 시일 내에 (재)부산문화회관에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재)부산문화회관에서는 지난해 12월 재단법인 출범을 알리는 기념음악회를 세 차례 가졌다. 12월 6일 부산문화회관의 재단법인 출범 기념음악회로 첫 번째 테이프를 끊었던 '도쿄 필하모닉 오



- 창조
- 흥겹고 따뜻함
- 안정과 휴식
- 숙련된 역동성
- 문화예술과 사람의 조화
- 신뢰


국제적 문화도시 부산을 대표하는 종합문화예술 공간으로서 부산 문화회관의 건축물 지붕의 모양에서 모티브를 가져왔다.





케스트라와 핀커스 주커만'은 일찌감치 매진사태를 불러일으키며 큰 화제를 모았으며, 부산시립예술단의 합동무대로 마련됐던 '2016 송년음악회'(12월 16일), 제야의 종소리와 함께 2017년 새해를 맞는 '2016 제야음악회'(12월 31일) 역시 부산시민들의 큰 관심 속에 성황리에 마쳤다.

2017년 1월 1일 공식 출범하는 (재)부산문화회관은 현재 대표이사 아래 경영기획본부와 문화예술본부 등 2개의 본부를 두고 있으며 경영기획본부에 정책기획, 경영지원, 시설관리, 문화예술본부에 공연기획, 전시교육, 홍보마케팅, 무대기술 등 총 7개 팀이 배치되어 있다. 우선 정책기획팀에서는 문화예술분야 경영 및 전략 수립, 비공연 사업을 개발하며, 경영지원팀에서는 예산, 회계 등 내부 경영정보시스템 관리, 시설관리팀에서는 공연장, 통신, 소방, 승강기 등 시설물 유지 관리를 맡고 있다. 공연기획팀에서는 공연기획 및 공연사업 개발, 홍보마케팅팀에서는 공연관련 홍보 전략 수립 및 마케팅, 무대기술팀에서는 무대 및 영상, 음향, 조명 시설, 장비의 유지관리를 담당한다.

또, 공식출범과 함께 부산문화회관 건축물 지붕의 모양에서 모티브를 가져온 를 공식CI로 선정하고 홈페이지 역시 기존 culture.busan.go.kr에서 www.bscc.or.kr로 새롭게 변경된다. 여기에 보다 많은 시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카카오톡스토리채널, 블로그(네이버), 유튜브 등 6개 채널의 SNS 계정도 새롭게 개설, (재)부산문화회관을 적극적으로 알려나가는 동시에 시민들에게도 보다 가깝게 다가갈 예정이다.

**SOCIAL NETWORKS SERVICES**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 <https://www.bscc.or.kr>
-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vivabscc>
- 인스타그램 | <https://www.instagram.com/vivabscc>
- 트위터 | <https://twitter.com/vivabscc>
- 카카오톡스토리채널 | <https://story.kakao.com/ch/bsccorkr>
- 블로그(네이버) | <http://blog.naver.com/bsccorkr>
-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channel/UCJl-1suSmm546J3PPRJ9B2w>



## 공연 관람객을 위한 쾌적한 환경 조성

# 중극장 리모델링, 챔버홀 · 어린이전용극장 개관

지난 1988년 대극장 개관을 시작으로 1993년 10년간의 대역사 끝에 종합문화예술공간으로 탄생한 부산 문화회관은 2017년 올해로 개관 30주년을 맞는다.

부산문화회관은 오랜 시간 부산문화의 본당으로 제 역할을 다해왔지만 흐르는 세월 속에서 시설은 노후화 되고 현대적인 공연에 맞는 첨단 공연시설이 부족하면서 공연장 리모델링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었다. 다행히 지난 2010년 개관 20년 만에 대극장이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가면서 그 해 10월 새롭게 달라진 모습으로 부산시민들과 만났다. 특히 어둡고 좁았던 로비공간이 확장되고 건물 외벽 일부가 통유리로 교체 되면서 보다 밝고 친근한 공간으로 재탄생됐다. 관객들의 쾌적한 공연관람 환경조성을 위해 객석의자를 교체하면서 1,608석이던 객석수가 1,403석으로 줄고 대형 공연이 가능하도록 프로서니엄을 확장하는 한편 22년된 아날로그 방식의 음향설비를 디지털로 전환하고 음향전달을 위한 최신식 음향반사판도 설치하는 등 현대적인 공연에 맞는 첨단 공연시설을 갖추게 되었다.

2017년 올해는 지난 1994년 개관, 준공 23년을 맞는 중극장이 리모델링을 거쳐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난다. 객석 수 767석의 중형 공연장인 중극장은 국내외 문화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새로운 공연장으로서의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기에 따라 1월부터 대대적인 공사에 들어간다.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중극장은 클래식 중심으로 타 장르의 공연을 수용할 수 있는 클래식 강화형 공연장으로 거듭난다. 우선 지금 현재 아치형 후면벽면으로 소리집중현상이 유발되는 부채꼴 형태의 공연장을 풍부한 잔향음과 측면 반사음을 유도할 수 있는 슈박스 형태의 공연장으로 개선한다. 또 일부 장르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되어 활용도가 낮았던 돌출 원형무대를 유선형 무대로 변경하며 2층 객석은 음향적인 장애를 없애고 객석을 확보할 수 있는 발코니 형태로 조정한다. 객석은 어느 위치에서라도 연주자가 쉽게 보이도록 의자 배열을 적절히 배치해 최적의 가시선을 확보하고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공연관람을 할 수 있도록 노후화된 객석을 전부 교체한다. 또 중극장을 찾는 관객들을 위한 편의시설도 대폭 확충된다. 극장 출입문은 자동문으로 교체되고 장애우를 위한 승강기가 새롭게 설치된다. 또한 화장실 개보수 공사를 통해 여성관객을 위한 여성전용 화장실이 새롭게 마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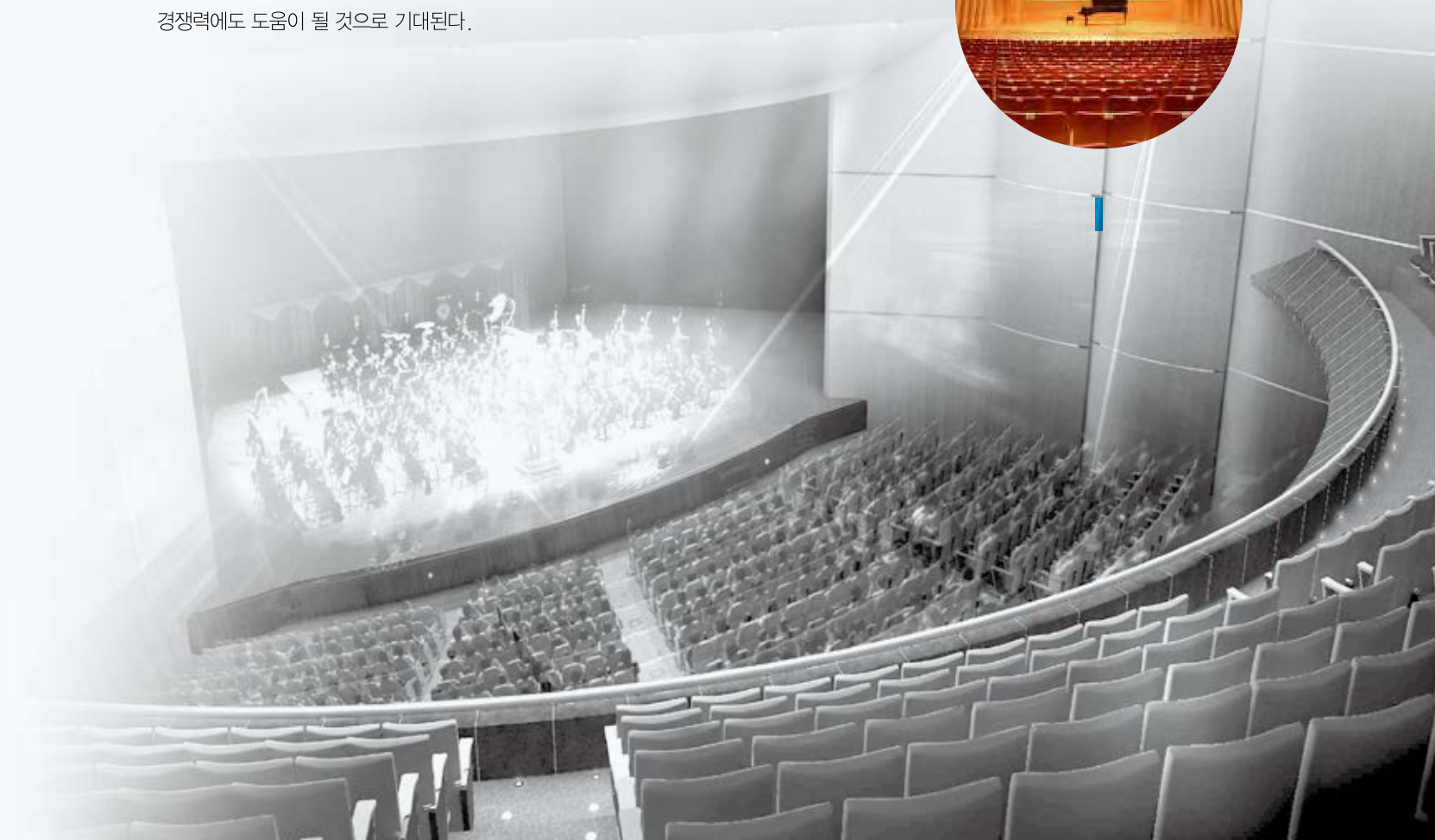
중극장 지하에 자리한 중전시설은 중극장 공연자를 위한 무대지원시설 및 부산시민의 문화활동 및 교육을 위한 시민교육시설로 활용된다. 무대지원시설로는 2개의 연습실과 부족했던 단체분장실, 개인분장실이, 시민교육시설로는 사무실과 2개의 강의실, 4개의 레슨실이 들어선다. 특히 시민교육시설은 그동안 아카데미 사업을 진행하면서 불편했던 강의실 부족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991년 건립된 소극장은 올해 어린이전용극장으로 새롭게 탈바꿈한다. 객석 수 212석으로 연극, 독주(독창)회, 판소리 공연 등에 적합한 소규모 공연장으로 사랑받아온 소극장은 지난 2009년 음향설비 교체와 더불어 관객 눈높이에 맞게 무대높이를 조정한 바 있다. 이번 공사를 통해서도 소극장 무대 일부공간을 객석공간으로 조성하고 주 관람층인 어린이들을 위한 전용화장실 설치, 그리고 활용도가 낮았던 소극장 로



비 벽면을 전시공간으로 조성한다. 오는 7월과 8월 두 달간 공사를 거쳐 9월에 개관하는 어린이전용극장은 미래의 관객이 될 어린이와 가족 단위의 관람객을 위한 특화된 전용극장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무대에 올릴 예정이다.

소극장 2층에 자리한 국제회의장은 리노베이션(시설개선)을 통해 클래식 전용음악홀인 '부산챔버홀(가칭)'로 새로운 변신을 꾀한다. 챔버홀은 최적화된 탁월한 음향으로 무대 위 아티스트에게 집중할 수 있는 전문 공연장으로, 서울 예술의전당과 세종문화회관에서도 600석 규모의 'IBK챔버홀'과 443석의 '체임버홀'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세종문화회관의 '체임버홀'은 지난 2006년 다목적 컨퍼런스홀을 리노베이션하면서 성공된 사례로 꼽히고 있다. 1월부터 공사에 들어가는 '부산챔버홀'은 총 예산 1,200만원을 들여 음향 시공 및 무대, 조명장치 개보수, 관람객석 경사면 바닥 및 의자 설치, 분장실 및 출연자대기실 개보수 공사에 들어가 오는 7월 개관한다. 이번 부산챔버홀 구축은 전문공연장이 필요하다는 지역문화계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할 뿐 아니라 새롭게 출발하는 (재)부산문화회관의 경쟁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365일 풍성한 무대로 관객과 만난다

# 관객의 문화적 욕구에 부응하는 다채로운 기획공연

2017년 첫 발을 내딛는 (재)부산문화회관은 올 한 해 보다 풍성한 무대로 관객들과 만난다. 일년 내내 관객들을 공연장으로 불러모을 특별한 시리즈 무대에서부터 클래식, 뮤지컬, 무용, 콘서트 등 관객의 문화적 욕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장르의 공연까지 특별한 무대로 관객과 만난다.

### 연중 시리즈로 만나다

올해는 (재)부산문화회관이 기획한 특별한 시리즈가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우선 저녁시간 공연장을 찾을 수 없는 관객들을 대상으로 오전에 열리는 클래식 입문 프로그램인 '마티네 웰빙 콘서트'가 3월부터 연간 8회 진행된다. 그동안 대표적인 브런치 콘서트로 사랑받아온 부산시립교향악단 '해설이 있는 웰빙콘서트'를 시리즈화한 무대로, 낮 시간이 자유롭거나 저녁시간을 내기 어려운 학생, 어린이, 주부 등을 클래식 음악의 세계로 이끈다.

올 한 해 상반기 마티네 콘서트를 이끌어갈 음악가는 '음악계의 괴물'이라는 별칭을 얻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조윤범. 파격적인 기획과 도전으로 수많은 매스컴의 찬사를 받은 현악4중주단 '콰르텟엑스'의 리더로 있는 조윤범은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극동아트TV의 '콰르텟엑스와 함께하는 조윤범의 파워클래식'을 통해 클래식 음악계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전혀 새로운 방식의 이 '강의 쇼'는 방영되자마자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며 클래식 애호가나 전공자들은 물론, 클래식 음악을 전혀 모르던 사람까지 사로잡고 있다. 상반기 '마티네 콘서트'에서는 이런 그의 뛰어난 말솜씨와 해박한 지식으로 다른 곳에서는 만날 수 없는 깊이있는 해설음악회를 만날 수 있다.

클래식 대중화의 길을 연 지휘자 금난새도 올 한 해 부산시민들과 만난다. 매년 여름 '금난새와 함께하는 클래식 내친구'로 친숙한 금난새는 그동안 탁월하고 신선한 아이디어와 기획력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무대와 청중을 찾으며 '클래식 음악의 전도사'로 왕성한 활동을 펼쳐왔다. 1990년대 서울 예술의전당 제안으로 시작한 해설이 있는 청소년 음악회는 6년간 전석매진을 기록하며 클래식 음악계의 새로운 기록을 세웠으며, 도서관 음악회, 로비 콘서트, 갤러리 음악회, 마라톤 음악회, 울릉도 음악회, 동대문 시장음악회 등 다양한 형태의 음악회로 대중과 클래식을 이어주며 클래식 음악 보급에 큰 역할을 해오고 있다.

금난새는 현재 뉴월드(구, 유라시안) 필하모닉 CEO겸 음악감독, 성남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및 예술 총감독, 한경필하모닉 상임지휘자 및 예술감독, 한국 대학생 연합 오케스트라(KUCO) 지휘자, 라움아트센터 예술감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금난새는 올 한 해 '베토벤 시리즈'로 금난새 특유의 친근감 있는 해설로 베토벤의 삶과 음악을 들려준다.

지난해 지역방송 최초로 창단된 KNN방송교향악단이 창단연주회로 선보여 클래식 연주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가받은 인문학 콘서트 '노자와 베토벤'도 올 한 해 4회 무대에 오른다. 현 시대의 답답함을 인문학으로 속 시원히 풀어주는 철학자 최진석 서강대학교 교수와 온화한 카리스마의 마에스트로 오충근 교수와의 만남으로 많은 화제가 되었던 '노자와 베토벤'은 노자와 베토벤의 만남을 통해 현대사회에서 요구되고 있는 철학적 사고를 클래식 음악으로 들려준다.



조윤범



금난새



오충근

### 골라보는 재미가 있다

(재)부산문화회관은 2017년 올 한 해 다양한 장르의 기획공연으로 관객들과 만난다. 3월에는 최고의 화제작 뮤지컬 '팬텀'이 부산을 찾는다. 뮤지컬 '팬텀'은 토니어워드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휩쓸었던 극작가 아서 코핏과 작곡가 모리 예스톤이 세계적인 추리 소설가 가스통 르루의 대표작 '오페라의 유령'을 무대화한 작품이다. 그 이름도 유명한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과는 원작이 같은 작품으로, '오페라의 유령'은 1986년, '팬텀'은 1992년에 제작되었다. 흉측한 얼굴을 가면으로 가린 채 파리의 오페라 극장 지하에 숨어사는 에릭과 '천사의 목소리'를 지닌 크리스틴 다예와의 비극적 사랑을 그린 원작에서 '팬텀'은 빛 대신 어둠을 택한 팬텀의 삶에 집중하면서 그와 얽힌 주변인과의 갈등과 고뇌를 담아낸다. 특히 에릭이 왜 팬텀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높이기 위해 그의 탄생 비화와 유년 시절, 내면의 이야기를 세밀하게 다룬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5년 초연무대를 통해 연간 티켓 판매 순위 1위, 골든티켓 어워즈 작품상 대상을 수상하며 흥행성과 작품성을 모두 인정받은 바 있다. 지난해 11월 서울 블루스퀘어 삼성전자를 무대에 다시 오른 '팬텀'은 최정상 아티스트들로 구성된 역대급 '황금 라인업'으로 개막 전부터 큰 화제를 모으며 개막 후 1차, 2차 티켓 오픈에서 압도적인 티켓 예매 점유율로 1위를 석권하며 최고 화제작으로 떠올랐다. '팬텀'은 2월 26일까지 서울에서 공연을 가진 후 3월 18일과 19일 이틀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무대에 오른다.

8월에는 '빙판 위의 살아있는 예술'로 불리는 세계 정상급 아이스발레단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 국립아이스발레단'이 한여름 무더위를 식혀준다.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 국립아이스발레단은 지난 1967년 고전 발레의 대가이자 '빙상 위의 연인'으로 추앙받던 콘스탄틴 보얀스키가 세계 최고 수준의 발레리나와 피겨 스케이터들을 모아 창단한 아이스발레단으로, '잠자는 숲 속의 공주', '백조의 호수', '호두까기 인형' 등 고전발레 레퍼토리에 토슈즈 대신 피겨 스케이팅을 신은 무용수들의 역동적이면서도 화려한 기량을 감상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1998년 첫 내한공연을 가진 후 17년 동안 30여만 명의 관객이 관람하면서 여름방학 시즌 가장 사랑 받는 가족공연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이밖에 12월에는 연말의 즐거움을 다양한 콘서트와 뮤지컬로 즐기는 '윈터페스티벌'이 펼쳐진다.



뮤지컬 '팬텀'



뮤지컬 '팬텀'



미도리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 세계 정상급 연주단체를 만나다

재단법인으로서의 출발과 함께 앞으로 세계와 교류하는 글로벌 아트센터로의 도약을 꿈꾸는 (재)부산문화회관은 2017년 올 한 해 각국을 대표하는 세계 정상급 연주단체를 초청, 보다 업그레이드된 무대를 선사한다.

4월에는 슬라브 특유의 정서와 감동이 있는 무대로 광활한 대지의 울림을 들려주는 세계 최고의 러시아 국립 볼쇼이 합창단이 부산시민들과 첫 만남을 갖는다. 80년 전통의 세계 최정상 합창단인 러시아 국립 볼쇼이 합창단은 지난 1928년 러시아 합창음악의 거장 알렉산드르 스페시니코프에 의해 창단된 후 1950년대 작곡가 프로코피에프의 오라토리오 세계 초연 무대와 칸타타 파리 초연무대의 대성공으로 세계무대에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동안 모스크바 차이코프스키홀, 뉴욕의 링컨센터, 파리의 콩피투센터, 런던의 바비칸센터, 도쿄의 카살스홀, 암스테르담의 콘서트헤보홀, 로마의 콜로세움극장, 워싱턴 케네디센터 등 60여 개국 130여 개 도시에서 연주활동을 가져온 러시아 국립 볼쇼이 합창단은 서구의 언론들로부터 '러시아 음악 전통을 가장 잘 간직하면서 현대적 감각을 지닌 합창단'이라는 극찬을 받은 바 있다. 러시아 국립 볼쇼이 합창단은 4월 21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만날 수 있다.

5월에는 프랑스를 대표하는 교향악단 중 하나인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부산을 찾는다. 특히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지휘자 정명훈이 지난 2000년부터 15년간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로 있으면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오케스트라로, 정명훈은 지난 2015년 임기를 마치면서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역사상 최초의 명예 음악감독으로 추대되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파리 오케스트라, 프랑스 국립 오케스트라와 함께 프랑스를 대표하는 3대 오케스트라로, 지휘자 정명훈으로부터 '프랑스에서 기능적으로 완벽한 오케스트라'라는 극찬을 받은 바 있다. 5월 20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정명훈 후임으로 지난 2015년 예술감독이 된 핀란드 출신의 지휘자 미코 프랑크가 함께한다.

이밖에 오스트리아 그라츠 챔버 오케스트라(6월 31일), 비엔나 빈 국립 폭스오퍼 챔버(10월), KBS교향악단&바이올리니스트 미도리(10월 14일), 동양 유일의 바로크음악 전문단체인 일본 텔레만 실내악단(10월), 체코 마르티누 체코 필하모닉(11월) 등 세계 각국을 대표하는 정상급 오케스트라가 차례로 무대에 선





상트 페테르부르크 아이스발레단



빈 소년 합창단 ©Lucas Beck / 크레디아

다. 특히 10월, KBS교향악단과 호흡을 맞추는 바이올리니스트 미도리는 4살 때 바이올린을 시작, 11살의 나이에 주빈 메타에게 발탁되면서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협연하는 등 대표적인 신동 연주자로 각광받았으며 지난 1994년 영국 레코드 전문지 클래식CD가 선정한 21세기를 이끌어갈 4명의 바이올리니스트, 미국타임지 선정 차세대를 이끌어 나갈 100명의 주역으로 선정된 바 있다. 데뷔 이후 클라우디오 아바도, 블라디미르 아슈케나지, 콜린 데이비스, 레너드 번스타인, 마리스 안손스, 쿠르트 마주어 등 세계적인 거장들과 한 무대에 서온 미도리는 현재는 신동에서 거장으로 완숙한 연주를 들려주며 재능있는 교육자이자 혁신적인 지역사회 참여 활동가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음악전용시설로 새롭게 문을 여는 '챔버홀' 개관 시기에 맞춰 7월에는 '챔버홀 개관 페스티벌'이 펼쳐진다.

### 특별한 날, 특별한 무대를 선사하다

희망찬 2017년을 맞는 특별한 즐거움을 누리고 싶다면 1월 14일 열리는 '빈 소년 합창단 신년음악회'를 주목하자. 빈 소년 합창단 신년음악회는 오로지 한국에서만 개최되는 특별한 무대로, 희망찬 새해를 맞는 기쁨과 행복의 노래로 관객과 만난다. 1498년 7월 7일 오스트리아 황제 막시밀리안 1세의 궁정교회 성가대로 시작한 빈 소년 합창단은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빈 국립 오페라단과 함께 빈 궁정악단의 명성을 그대로 이어오고 있는 세계 최고의 소년 합창단으로, 지난 1969년 첫 내한 이후, 국내에서 170회가 넘는 무대를 통해 오랜 시간 변함없이 순수하고 맑은 목소리로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스마일(smile)'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올해 무대에서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함께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이밖에 로맨틱한 연인들의 날 '발렌타인데이'를 맞은 연인들을 위한 '발렌타인데이 콘서트(2월 14일)',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뜻깊은 하루를 선물하고 싶은 가족들을 위한 '어린이날 기념음악회(5월 5일)', '어버이날 효 콘서트(5월 8일)', 2017년 제야의 종소리와 함께 희망찬 새해를 맞는 '제야음악회(12월 31일)' 등 특별한 날, 부산문화회관을 찾는 관객들에게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 부산문화회관만의 차별화된 강좌 개설 2017년 부산문화회관 아카데미

2014년 9월 장일범의 '명작 오페라 속으로'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된 부산문화회관 아카데미는 2017년 재단법인 출범과 함께 더욱 활성화될 예정이다.

2017년 1월 첫 프로그램인 청소년들을 위한 겨울방학 프로그램으로 본격적인 아카데미가 시작된다. 1월 9일 막이 오르는 청소년프로그램은 지난해 여름방학 첫 선을 보인 '별난 음악교실'과 '쿵더쿵 국악교실'이 뜨거운 반응에 힘입어 2017년 겨울방학에도 부산 지역 청소년들에게 교실 밖 문화예술체험의 장을 선사한다. 5일간 진행되는 '별난 음악교실'과 '쿵더쿵 국악교실'은 청소년들이 기본적인 작곡 이론을 배운 뒤 자신만의 곡을 만들어보는 특별한 시간으로 '별난 음악교실'에서는 동요를, '쿵더쿵 국악교실'에서는 우리가락 동요곡을 만들어볼 수 있다. 강사로는 지난해에 이어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이건륜 지휘자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백규진이 참여, 별난 음악시간을 갖는다. 이어지는 프로그램은 영산대학교 이연기 교수가 진행하는 '어린이 오페라 교실'(1월16일-20일)로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오페라 해설과 오페라 아리아 따라 부르기, 분장 체험 등을 통해 오페라에 대한 흥미를 높여줄 계획이다.

2015년부터 진행된 고품격 실기강좌는 2017년에도 계속 이어진다. 2015년 클라리넷, 가곡, 클래식 기타, 사물놀이, 가야금 강좌를 개설한 데 이어 2016년에는 해금강좌를 새롭게 신설, 클라리넷, 클래식 기타, 사물놀이, 가야금, 해금 등 5개 악기 10개반을 운영, 수강생들에게 만족도 높은 강습으로 꾸준한 인기를 모았다. 지난해 12월 15일 2016년 전체 수강생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예능 발표회를 통해 그동안의 실력을 점검해보며 훈훈한 연말 분위기를 연출, 주위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 2017년 1월 16일 막이 오르는 1분기 강좌는 지난해에 이어 10개반으로 출발하고, 향후 수강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점차적으로 희망 악기를 늘려나가는 한편 학생, 직장인, 주부, 은퇴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야간강좌 및 주말 프로그램 개설 등 실기강좌를 더욱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을 앞두고 오페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2015년 첫 선을 보인 '내가 사랑하는 오페라'는 지난해 오페라 연출가 이의주가 봄, 가을 강의를 맡으며 오페라에 대한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 많은 사랑을 받았다. '내가 사랑하는 오페라'는 2017년에도 독창적인 오페라 해석과 세계 오페라의 흐름, 오페라 속 유명 아리아를 직접 감상할 수 있는 특별 강좌로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이밖에 클래식 입문자들을 위한 클래식 이야기, 문화대학, 다양한 미술강좌 등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다.

그 외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부산문화회관이 주관하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 운영사업'과 '문예회관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은 2017년 1월~2월 중 2017년 공모 사업에 참가할 계획으로, 공모사업 결과는 2월 말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현재 토요일 오전 온 가족이 함께 참가하는 '토요오감놀이터 열씨구락'과 부산시립극단의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연극아 같이 놀자',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엄마랑 아빠랑 함께 하는 교과서 동요여행' 등 기존 프로그램 외에도 신규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부산문화회관의 재단법인 출범과 함께 새롭게 시작되는 부산문화회관 아카데미는 특히 2017년 하반기 조성될 아카데미 교육실과 함께 (재)부산문화회관만의 차별화된 강좌와 운영방법 개선으로 시민들의 문화 수준을 한껏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특히 아카데미와 전시기획업무를 진행할 전시교육팀이 신설, 그동안 대관 위주의 전시에 그쳐왔던 전시실의 기능을 보다 확대해 수준높은 기획전 개최와 체계적인 교육 진행으로 종합문화 예술공간으로서의 부산문화회관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해나갈 계획이다.



2017년 (재)부산문화회관 아카데미 겨울방학 특별 프로그램  
**교실 밖에서 만나는 신나는 문화예술체험**

▶ **콩더쿵 국악교실**

1월 9일(월)~13일(금) 오전 10:00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연습실

▶ **별난 음악교실**

1월 9일(월)~13일(금) 오후 2:00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연습실

▶ **어린이 오페라교실**

1월 16일(월)~20일(금) 오전 10:00 국제회의장

**2017년 1분기 문화예술프로그램**

1월 16일(월)~3월 31일(금) 국제회의장,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연습실 등

- ▶ 프로그램 클라리넷(초급), 클라리넷(중급), 클래식기타(초급), 클래식기타(중급), 가야금(초급), 가야금(중급), 가야금(고급), 해금(초급), 해금(중급), 사물놀이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전시교육팀(051-607-6281)



## 다양한 할인혜택으로 문화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잡다 새롭게 바뀌는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제도

2017년 1월, (재)부산문화회관 출범에 맞춰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제도가 새롭게 바뀐다.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제도는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기획공연, 정기연주회, 특별연주회를 보다 저렴하면서도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는 제도로, 그동안 다양한 할인혜택과 부대서비스로 문화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지난해는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들의 관람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골드회원 가입자에 한해 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초대권 2매를 증정하는가 하면 일년에 두 차례 '정기회원의 날'을 개최해 회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부산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 열리던 지난 7월 8일과 11월 25일 열린 '정기회원의 날'에서는 예약 선착순 500석에 한해 정기회원 본인은 무료, 동행인 1인에 한해서는 관람료 50%를 할인해주는 특별 이벤트를 펼치면서 두 공연 모두 예매 시작 수일 만에 객석 500석이 모두 예매되는 등 큰 반향을 일으켰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바뀌는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제도는 기존 회원제도 보다도 더 많은 할인매수와 높은 할인율, 초대권 증정, 회원을 위한 음악회 등 회원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보다 많은 공연관람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관람 공연의 할인 매수에 따라 분류되던 골드회원(4매), 블루회원(2매), 그린회원(1매)은 VIP회원, 스페셜회원, 예술단회원으로 변경된다. 예술단회원은 즐겨보는 공연에 따라 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등 예술단 5개 상임단체 중 한 단체를 선정할 수 있다. 우선 VIP회원은 관람 공연당 6매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회원기간 1년동안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초대권 각 4매씩을 사용할 수 있다.

스페셜회원과 예술단회원의 경우 관람 공연당 할인매수는 각각 4매와 2매, 초대권은 예술단공연





에 한해 각각 4매와 2매를 사용할 수 있다. VIP회원에게만 증정되는 기획공연(지정된 공연에 한하며 미리 공지)의 초대권인 경우 지정된 객석 수에 따라 관람료 최대 금액의 다음좌석(예를 들어 VIP좌석이 가장 높을 경우 그 아래 좌석인 R석)을 선착순으로 지정 예약할 수 있다. 모든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일년 내에 사용해야 하며 반드시 사전예약을 통한 선착순으로 좌석을 지정받아야 한다.

정기회원에 가입하는 모든 회원들은 기획(전시)공연 및 예술단 공연의 입장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VIP회원은 10~50%, 스페셜회원은 10~30%까지, 예술단 회원일 경우 기획(전시)공연 및 가입단체 공연은 10~30%, 비가입단체의 공연은 10~20%까지 할인 가능하다. 매년 정기회원들을 위해 마련하는 회원들을 위한 음악회는 지정공연에 한해 VIP회원은 초대, 스페셜회원과 예술단회원은 지정된 객석수에 따라 선착순에 의해 초대받을 수 있다. 또 내년부터 유료화되는 주차장의 주차권은 VIP회원, 스페셜회원, 예술단회원에 따라 각각 10매, 6매, 4매씩 무료 제공된다.

또한 (재)부산문화회관이 주관하는 아카데미 수강료를 10~20% 할인받을 수 있으며, 주최측과 협의된 대관공연 및 부산시내 외부공연의 입장료 역시 할인받을 수 있다. 이밖에 부산문화회관이 매월 둘째주, 정기회원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높여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부산시립예술단과 떠나는 정기회원 테마여행'에도 응모할 수 있다. 지난 2006년 3월부터 진행되어온 테마여행은 그동안 역사와 문화, 예술이 함께하는 고품격 여행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이 외에도 정기회원들은 (재)부산문화회관에서 발행하는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에의 초대'를 무료로 받아볼 수 있으며, 제휴업체 할인, 회원전용 라운지 무료이용, 무료주차 등 다양한 부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정기회원 가입은 (재)부산문화회관이 출범하는 1월 1일부터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http://www.bscc.or.kr)) 혹은 전화(607-3151)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대극장	기획	1/14(토) 2017 빈소년합창단 신년음악회	2/14(화) 발렌타인데이 콘서트	3/18(토)~3/19(일) 뮤지컬 '팬텀' 3/24(금) 마티네 웰빙콘서트	4/8(토) KNN방송교향악단 '노자와 베토벤' 4/21(금) 러시아 볼쇼이 합창단 초청공연 4/27(목) 마티네 웰빙콘서트	5/5(금) 어린이날 기념음악회 5/8(월) 어버이날 후 콘서트 5/20(토)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내한공연 5/31(수) 마티네 웰빙콘서트	6/10(토) KNN방송교향악단 '노자와 베토벤' 6/30(금) 마티네 웰빙콘서트 6/31(토) 오스트리아 그라츠 챔버오케스트라 초청공연
	예술단	1/20(금) 교향(526회 정기) 2017 신년음악회	2/23(목) 소년소녀(특별)	3/2(목) 국악(특별) 2017 신춘음악회 3/10(금) 교향(특별) 2017 신춘음악회 3/21(화) 합창(165회 정기) 3/23(목) 국악(189회 정기) 3/30(목) 청소년교향(55회 정기) 3/31(금) 교향(527회 정기)	4/13(목) 합창 특별 4/14(금) 교향(528회 정기) 4/15(토) 소년소녀(48회 정기) 4/20(목) 국악(190회 정기)	5/16(화) 소년소녀(특별) 5/18(목) 합창 특별 5/19(금) 교향(529회 정기) 5/25(목)~26(금) 무용(76회 정기) 5/29(월)~5/30(화) 국악 특별 5/31(수) 청소년교향(특별)	6/1(목)~6/2(금) 합창 특별 6/16(금) 교향(530회 정기) 6/24(토) 소년소녀(특별) 6/27(화) 합창(166회 정기)
중극장	예술단	*중극장 리모델링 공사 (1월~6월)					6/29(목) 청소년교향(특별)
소극장	예술단	1/19(목)~1/20(금) 무용(특별) 2017 우리춤산책	2/6(월)~2/10(금) 극단(특별) 향상 워크샵	3/20(월)~3/31(금) 무용(특별) 춤추는 동화	4/1(토)~4/16(일) 극단(58회 정기) 4/29(토)~5/7(일) 극단 어린이 연극 체험페스티벌(특별)	4/29(토)~5/7(일) 극단 어린이 연극 체험페스티벌(특별)	6/20(화) 무용(특별) 춤 아카데미 워크숍
챔버홀	(7월 개관 예정)						
지역(區) 문화회관 및 야외마당							6/16(금) 무용 순회 (동래문화회관) 6/21(수) 국악(191회 정기, 을숙도문화회관) 6/21(수) 무용 순회 (해운대문화회관) 6/23(금) 무용 순회 (금정문화회관)
순회·해외 공연		1/9(월)~1/12(목) 소년소녀 동계 합창캠프 (제주도)			4/4(화) 교향 2017 교향악축제 (서울 예술의전당)		



※이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p>8월중 마티네 엘빙군서트</p> <p>8월중 샹테페테르부르크 아이스발레단 공연</p>	<p>9월중 마티네 엘빙군서트</p>	<p>10/14(토) KBS교향악단 &amp; 바이올리니스트 미도리</p> <p>10월중 마티네 엘빙군서트</p> <p>10월중 오스트리아 비엔나 빈 국립 폭스오퍼 챔버 초청공연</p> <p>10월중 일본 텔레만 실내악단 초청공연</p>	<p>11월중 마티네 엘빙군서트</p> <p>11월중 마르티누 체코 필하모닉 초청공연</p>	<p>12/31(일) 2017 제야음악회</p> <p>12월중 2017 윈터페스티벌</p>
*KNN방송교향악단 '노자와 베토벤' (하반기 2회) 일정미정					
<p>7/7(금) 교향(531회 정기) 7/26(수)-7/27(목) 합창 7080 가요합창</p>	<p>8/11(금) 교향 클래식은 내친구</p>	<p>9/26(화) 청소년교향 (56회 정기)</p> <p>9/28(목) 합창(167회 정기)</p> <p>9/29(금) 교향(532회 정기)</p>	<p>10/16(월)-10/18(수) 2017 부산합창제</p> <p>10/20(금) 교향(533회 정기)</p> <p>10/25(수) 소년소녀(특별)</p> <p>10/26(목)-10/27(금) 국악(특별)</p>	<p>11/3(금) 교향 오페라 인 콘서트</p> <p>11/15(목)-11/16(금) 무용(77회 정기)</p> <p>11/17(금) 교향(534회 정기)</p> <p>11/18(토) 소년소녀(특별) 제31회 부산청소년합창제</p> <p>11/23(목) 합창(특별)</p>	<p>12/12(화) 무용 청소년을 위한 특별공연</p> <p>12/13(수) 무용 사랑 나눔 송년공연</p> <p>12/14(목)-12/15(금) 합창(168회 정기)</p> <p>12/15(금) 교향 2017 송년음 악회(535회 정기)</p> <p>12/16(토) 소년소녀(149회 정기)</p> <p>12/19(화) 청소년교향 2017 송년음악회(특별)</p> <p>12/22(금) 국악(194회 정기)</p>
<p>7/2(일)-7/9(일) 극단(69회 정기)</p> <p>7/19(수) 국악(192회 정기)</p>	<p>8/17(목) 국악 팔빙수같이 시원한 콘서트</p> <p>8/28(월)-8/29(화) 극단 교류공연</p>	<p>9/15(금) 교향 제73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p> <p>9/27(수) 국악 제43회 청소년 협연의 밤</p>	<p>10/31(화) 청소년교향(특별)</p>	<p>11/24(금) 국악(193회 정기)</p> <p>11/29(수)-11/30(목) 국악 청소년을 위 한 특별공연</p>	<p>12/3(일)-12/10(일) 극단(60회 정기)</p>
	<p>8/17(목)-8/19(토) 무용(특별) 안무가 프로젝트 작품전</p>	<p>9/2(토)-9/3(일) 소년소녀(특별) 향상음악회</p>			
<p>7월중 챔버홀 개관 페스티벌</p>					
<p>7/20(목)-7/21(금) 무용(기획, 야외마당) 여름마당축축제</p>			<p>10월중 합창 오페라 갈라 (특별, 區 문화회관)</p>		
<p>7/20(목)-7/21(금) 극단 국공립극단 페스티벌(경주)</p> <p>7월중 무용 부울경 3개도시 순회공연</p>		<p>9월-10월중 소년소녀 제25회 전국시립소년소녀 합창제(통영)</p>			<p>12월중 무용 춤으로 갈무리하다 (교류공연)</p>

# 2017 HAPPY NEW YEAR

32

---

지난 한해동안 부산시립예술단을 아껴주신  
시민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시립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청소년교향악단, 소년소녀합창단은  
새해에도 품격높은 문화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 부산시립교향악단

# 다양한 테마가 있는 수준높은 무대 선사

특히 올해는 재단법인으로서의 부산문화회관 출발과 발맞춰 지난 한 해 공식이었던 수석지휘자 선출을 마무리하고 2017년을 새롭게 다시 출발한다는 각오로 새해를 맞고 있다. 부산시립교향악단은 올해 10차례 정기연주회를 비롯해 특별연주회, 기획연주회, 순회연주회를 계획하고 있다.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올해 첫 무대는 1월 20일 열리는 제526회 정기 연주회인 '2017 신년음악회'. 정유년 새해를 맞아 부산음악애호가들에게 희망의 선율을 들려주는 이번 신년음악회는 그동안 광주시립교향악단과 인천시립교향악단, 대전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를 맡아 한국 교향악단 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지휘자 금노상이 지휘하고 소프라노 강혜정, 피아니스트 김용배의 협연으로, 희망찬 새해의 힘찬 출발을 알리는 주페 '경기병 서곡'을 시작으로 슈트라우스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 왈츠, '천둥과 번개' 폴카 등 신년음악회의 대표적인 레퍼토리를 들려준다. 이어서 2월 14일에는 로맨틱한 연인들의 날 '발렌타인데이'를 맞은 연인들을 위한 '발렌타인데이 콘서트', 3월 10일에는 새봄을 알리는 경쾌한 곡으로 가득한 '신춘음악회'가 열린다.

그동안 부산의 대표적인 브런치 콘서트로 많은 사랑을 받아온 '해설이 있는 웰빙콘서트'는 (재)부산문화회관 출범과 함께 올해부터 클래식 입문 프로그램 '마티네 웰빙콘서트'로 새롭게 시작한다. 올해 '마

티네 웰빙콘서트'는 3월부터 연간 8회 진행되며, 상반기에는 파격적인 기획과 도전으로 찬사를 받고 있는 현악4중주단 '콰르텟엑스'의 리더이자 '음악계의 괴물'이라는 별칭을 얻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조윤범이 진행과 해설을 맡아 다른 곳에서는 만날 수 없는 깊이 있는 해설음악회를 선보인다.

여름방학 기간인 8월 11일에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의 대표적인 간판 프로그램인 '금난새와 함께하는 클래식 내친구'가 올해도 펼쳐진다. 지난 1995년 청소년 해설음악회로 출발한 '클래식은 내친구'는 매년 청소년들이 부담없이 클래식음악을 즐길 수 있도록 지휘자 금난새의 재미있고 친근한 해설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또, 기존 오페라의 대형 무대세트를 배제하고 오페라 전곡을 오케스트라 콘서트 형식으로 구성해 많은 사랑을 받아온 '오페라 인 콘서트'는 올해는 11월 3일 열릴 예정이다.

이밖에 청소년 유망주 발굴을 위한 '제73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9월 15일)', 베토벤 교향곡 제9번 '합창'과 함께하는 '2017 송년음악회(12월 15일)', 12월 31일 한 해를 보내는 아쉬움과 새해를 맞이하는 설렘을 나누는 '2017 제야음악회' 역시 2017년에도 변함없이 이어진다. 또 4월 중 전국의 교향악단이 펼치는 '2017 교향악축제(서울 예술의전당)'에 참가,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위상을 널리 알리고 '찾아가는 음악회'를 통해 부산시민들에게도 가깝게 다가갈 예정이다.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 메세나 유치, 후원회원 확충으로 관객층 확대

34

“지난 한 해 관객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로 총 12회 정기, 특별연주회 등 전체 공연을 평균 객석 점유율이 80%가 넘었습니다. 그만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부산시민들의 곁으로 가깝게 다가가면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했다는 면에서 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그동안 예산 부족으로 시도할 수 없었던 다양한 공연들을 공동주최와 MOU 체결을 통해 관객들에게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연주, 새로운 형식의 무대를 선보였다. 지난해 (사)문화복지 공감, 부산여깨동무 나눔봉사단, 사회봉사단체 나누미인 등과 문화복지 실현을 위한 MOU를 체결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이들 단체와 함께 문화나눔소사이터티를 결성, 문화소외계층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연주회에 초대하면서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나눔 실천과 더불어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부산시민들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또 특별연주회 ‘아시아 민족음악의 밤’과 제187회 정기연주회 ‘한국의 美&美 페스티벌’을 국제신문사, 부산한복산업협동조합과 각각 공동으로 개최하면서 예산 절감효과를 톡톡히 보았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앞으로 지역사회 기업의 메세나활동을 적극적으로 유치해나갈 계획이다.

부산시를 알리는 문화사절단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가져온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지난 한 해 일본 후쿠오카 아크로스 런치타임 콘서트(1월), 대만 가오슝 등불축제(2월), 독일 함부르크 한인의 날(4

지난해 이정필 지휘자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신임 예술감독으로 새롭게 취임하면서 2016년 한 해, 침체되어 있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에도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월)에 참가해 우리 전통문화의 멋과 신명을 전하기도 했다. 또,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대외적으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을 알리고 시립예술단으로서의 공적인 역할을 다하기 위해 지난 한 해 국제행사 등 외부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부산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다. 특히 지난해 외부행사를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그동안 예산부족으로 힘들었던 단원들의 단체 연주복을 구입하는 등 위상강화와 수익창출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얻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2017년 올해도 지난 한 해 추진해왔던 사업들을 확장시켜 나갈 계획이다. 새봄의 시작을 알리는 신춘음악회(3월 2일)를 시작으로 미래 국악도들을 위한 청소년 협연의 밤(9월 27일), 환경을 테마로 한 ‘상생’(6월 21일), 무더운 여름의 열기를 식혀줄 기획공연 ‘팥빙수 같이 시원한 음악회’(8월 18일), 아시아의 관문 부산을 기점으로 아시아의 전통음악을 교류하는 ‘아시아 민족음악의 밤’(10월 26일-27일),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 음악회(12월 22일)까지 풍성한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올해 동서대학교 뮤지컬학과와의 협업을 통해 국악뮤지컬 제작을 추진하고 있는 이정필 수석지휘자는 올해도 관객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무대로 부산시민들과 만날 계획이다.

한편,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활동을 후원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29일 결성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정기후원회’는 현재 300여 명인 후원회 회원 수를 올해 500여 명으로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 부산시립합창단

# 합창의 즐거움 선사하는 다양한 기획무대

부산시립합창단은 올 한 해 4차례 정기연주회와 특별연주회, 순회연주회를 계획하고 있다. 우선 2017년 올해로 탄생 100주년을 맞는 시인 윤동주를 기념해 전국에서 다채로운 기념사업과 추모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립합창단에서도 두 가지 기획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우선 3월 21일 열리는 제165회 정기연주회에서는 시인 윤동주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윤동주 시에 의한 한국창작합창음악'이 열리며 5월 18일 특별연주회에서는 윤동주를 소재로 한 음악극 '윤동주'가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일제시대 저항시인이자 독립운동가로 조국과 민족을 위해 생을 마친 윤동주의 삶을 조명한 음악극 '윤동주'는 윤동주의 시(詩)에 작곡가 이용주가 곡을 붙여 만든 오페라 음악극으로, 특히 지난 2009년 부산시립합창단이 부산초연으로 무대에 올려 많은 호평을 받은 작품이다.

또 매년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기념해 유명 작곡가들의 레퀴엠을 연주했던 부산시립합창단은 올해 브람스의 '독일 레퀴엠'을 들려준다. 브람스가 장장 10년이 넘는 세월을 걸쳐 심혈을 기울여 탄생시킨 '독일 레퀴엠'은 라틴어로 된 다른 레퀴엠과 달리 독일어로 된 작품으로,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레퀴엠'은 '죽은 사람을 위한 미사', 즉 죽은 사람의 영혼을 위로하는 음악이나 브람스가 작곡한 '독일 레퀴엠'은 기존 레퀴엠과는 달리 사랑하는 이를 잃은, 남겨진 자들에 대한 동정과 따뜻한 위로가 담겨있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2016 해맞이 부산축제'로 2017년 정유년을 힘차게 출발하는 부산시립합창단은 올해도 정통적인 합창음악을 만날 수 있는 정기연주회와 합창의 즐거움을 선사하는 특별기획 연주회로 청중들과 만날 예정이다.

청중들과 함께 즐기는 '콘서트형 프로그램'으로, 매년 관객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온 '7080 가요합창'은 올해는 7월 27일 펼쳐진다. 지난 가요계를 대표했던 가수들을 중심으로 추억과 감동이 있는 무대를 선사했던 '7080 콘서트'에서는 올해 한국대중가요사 최고의 맞수로 꼽히는 가수 남진과 나훈아, 이미지와 패티김 등 동시대 라이벌 관계를 형성했던 가수들의 대표곡을 합창음악으로 들려준다.

이밖에 4월 13일 특별연주회 '세계합창음악'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합창곡 모음으로 꾸며진다. 부산시립합창단과 시민연합합창단 250명이 들려주는 오페라 합창음악의 밤 '부산시민대합창'은 6월 1일과 2일, 가을의 감성이 묻어나는 감미로운 합창 무대 '가을의 합창음악'은 9월 28일, 그리고 부산지역 아마추어 합창단들과 함께하는 '부산합창제'는 10월 16일부터 사흘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지며, 10월 중 區 문화회관에서는 단원들의 기량 향상을 위해 유명 오페라 아리아 모음곡으로 꾸며지는 '오페라 갈라' 무대가 열린다. 또한 매년 새로운 창작합창곡을 발굴하고 위촉을 통해 창작 합창음악의 발전에 힘써온 부산시립합창단은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작곡 전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창작합창곡 공모를 통한 '신진 창작합창편곡의 밤'을 11월 23일 마련하며, 12월 15일 제168회 정기연주회에서는 부산시립교향악단과 함께 대표적인 송년무대로 자리잡은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으로 2017년을 마무리한다.





## 부산시립무용단

### 시대의 흐름을 반응하고 적극적으로 수용

36

“창단 반세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부산시립무용단은 세월의 흐름 속에서 한국 전통춤과 창작춤의 역사를 다져왔습니다. 이제는 시대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제의 춤이 어느새 전통이 되고 오늘의 춤이 내일과 화답하고 있듯 부산시립무용단은 앞으로 이런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인 자세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겠습니다.”

2017년 올해 부산시립무용단은 2차례 정기공연을 비롯해 특별공연, 기획공연, 순회공연, 교류공연 등 다양한 무대를 계획하고 있다. 부산시립무용단의 2017년 첫 무대는 1월 19일과 20일 이틀간 열리는 ‘2017 우리춤 산책’ 무대로, 평소 끊임없이 우리춤을 연마해온 부산시립무용단 단원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전통 춤사위를 선보인다. 또 프로단원들의 창작 열정을 만날 수 있는 안무가 프로젝트 ‘몸으로 쓰는 시’는 올해 8월 26일과 27일 두차례 펼쳐진다.

3월에는 미취학 어린이들에게 우리춤의 매력을 전하는 ‘춤추는 동화’가 무대에 오른다. 극적인 이야기 구성과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쉬운 춤사위로 풀어낸 ‘춤추는 동화’는 매년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구성과 안무로 큰 인기를 모으면서 공연 때마다 매진사례를 낳고 있다. 또한 매년 여름밤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야외춤판인 ‘2017 여름마당 춤 축제’는 7월 20일과 21일 이틀간 관객들과 만난다. ‘여름마당 춤 축제’는 시민들 곁에 가깝게 다가가 시민과 함께 하는 시민 참여 춤 축제로, 해가 거듭될수록 시민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지난해 3월, 부산시립무용단의 새로운 수장으로 임명된 김용철 신임 예술감독과 함께 지난 일년 숨가쁘게 달려온 부산시립무용단은 2017년 새해에도 21세기 춤 미학이 요구하는 창조적, 실험적, 상징적인 무대를 선보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매년 전통을 토대로 한 수준높은 창작무대를 만날 수 있었던 정기공연은 올해 5월(5월 25일~26일)과 11월(11월 15일~16일) 두 차례 무대에 오른다. 지난해 제74회, 75회 정기공연인 ‘업경대’, ‘소설점이 다른 두 개의 표정’을 통해 기존 한국창작춤의 범위를 확장시켜 다양한 몸짓언어로 오늘날 살아 숨쉬는 인간본연의 모습을 재창출했다는 평가를 받은 김용철 신임감독은 올해 정기공연에서도 새로운 색깔의 창작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또 지난해 영화 OST와 대중가요, 민요 등 우리 귀에 친숙한 음악을 배경으로 우리춤의 미학을 선사하면서 대중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드라마음악과 함께하는 춤여행’ 역시 올해 순회, 교류공연 등을 통해 관객들을 계속 찾아간다.

특히 올해는 해외, 순회공연을 통해 부산을 알리는 문화사절단으로서의 역할도 다할 예정이다. 우선 6월에는 부산과 시카고와의 자매결연 10주년 기념행사를 위해 시카고를 방문, 우리 전통춤의 아름다운 멋과 신명을 알린다. 3월 28일에는 대구시립무용단이 기획하는 영호남무용단 교류공연에 대구시립무용단, 전북도립무용단과 함께 무대에 서며, 7월에는 울산시립무용단이 주최하는 부·울·경 3개도시 순회공연, 8월에는 서울에서 열리는 제4회 대한민국 전통무용제전 ‘한성준 춤의 혼과 맥, 몸짓의 향연’, 9월에는 국립부산국악원 주최 ‘춤이 보고 싶다(가제)’에 참가한다. 이밖에 문화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복지관 순회공연, 구 문화예술회관 순회공연, 청소년을 위한 특별공연, 장애우들과 함께하는 사랑나눔 송년공연 역시 2017년에도 변함없이 진행된다.





## 부산시립극단

# 혁신과 소통을 모토로 끊임없는 변화 추구

2017년 올해 세 차례 정기공연과 특별공연, 순회공연, 교류공연 등을 계획하고 있는 부산시립극단은 2월, 부산시립극단 비상임단원들이 준비하는 '배우 워크샵(2월 6일~10일)' 무대로 힘찬 첫 걸음을 내딛는다. 매년 2월이면 임기가 끝나는 비상임 단원들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올해 처음 마련된 '배우 워크샵'은 비상임 단원들이 그동안의 부산시립극단 활동을 통해 배운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로, 상임 단원이 연출을 맡아 '배우의, 배우에 의한, 배우를 위한' 무대로 마련된다.

지난해 '부산연극 역사의 힘'이라는 테마로, 세 차례 정기공연을 통해 부산연극계를 이끌어온 연출가 허영길, 전승환, 연기자 전성환과 호흡을 맞추었던 부산시립극단은 올해 정기공연에서는 '부산연극 현재의 힘'이라는 테마로 4월(4월 1일~16일)과 7월(7월 2일~9일), 12월(12월 3일~10일) 세 차례 부산연극애호가들과 만난다. 2017년 올해 첫 정기공연을 책임질 주인공은 부산시립극단 단원들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연출가 위성신. 현재 순천시립극단 수석연출가로 있는 위성신은 지난해 8월 부산, 순천시립극단간의 교류무대였던 '퍼펙트 맨'으로 부산시민들과 만난 바 있다.

지난해 4월, 부산시립극단이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사하기 위해 처음 마련해 큰 호응을 얻었던 '어린이 연극체험 페스티벌'은 올해도 계속된다. 어린이들을 위한 맞춤형 공연에서부터 다양한 문화예술체험까지 보다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들과 만난다.

지난 한 해 곽종필 신임 예술감독과 함께 '혁신과 소통'을 모토로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했던 부산시립극단은 올해도 부산시민들과 소통하고 혁신을 통해 부산시립극단의 위상을 강화시켜나가겠다는 각오로 2017년 새해 준비에 여념이 없다.

부산시립극단은 특히 올해 하반기 어린이전용극장으로 새롭게 탈바꿈하는 소극장 무대를 통해 미래의 잠재고객이 될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이다.

오는 7월 경주에서 열리는 국공립극단 페스티벌에 참가하는 부산시립극단은 8월에는 영호남 교류공연을 일환으로 지난해에 이어 순천시립극단과 교류무대를 갖는다. 특히 연말에는 중국의 국제도시인 심천과 해외 교류공연을 추진하는 등 올해 부산시립극단은 국내외 교류공연으로 시립극단이라는 지역성에서 벗어나 한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또 지난해 문화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찾아가는 공연'을 다시 시작하면서 2016년 한 해 시민들과 더욱 가까워졌다는 호평을 받은 부산시립극단의 '찾아가는 공연'은 올해도 계속된다.

지난해 12월, 2016년 마지막 정기공연으로 무대에 올려져 부산연극애호가들의 많은 박수를 받았던 음악극 '돌아와요, 부산항에'는 오는 10월경, 새롭게 단장된 중극장의 재개관 기념공연으로 다시 관객과 만날 예정이다. 앞으로는 역대 공연작품 중 우수한 작품들을 선정,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버전의 작품을 지속적으로 무대에 올리면서 고정레퍼토리 작업에도 힘써나가겠다는 곽종필 예술감독은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비상임단원, 객원출연진으로서 한계가 있다며 앞으로 부족한 단원 확충에도 힘을 기울여나갈 계획이다.



##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 신임 지휘자와 함께 새롭게 출발하는 2017년

38

현재 70여 명의 중고·대학생들로 구성된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은 매년 6~8회의 정기, 특별, 순회연주회를 개최하며 청소년들의 정서 함양을 위한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단원들의 예술적인 기초, 감성, 표현력 그리고 기교적인 면을 향상시키기 위해 솔로리스트들의 축제, 동·하계 캠프 등 참여프로그램, 앙상블팀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미래를 대비한 다양한 경험과 비전을 제시하며 미래 음악도들에게 다양한 예술교육 기회를 제공해왔다.

지난해 12월 20일 '무대를 아우르는 부드러운 카리스마'의 소유자 지휘자 김봉미와 자체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들과의 '2016년 송년음악회'로 다사다난했던 2016년을 마무리한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에게 지난 2016년은 다양한 장르와 테마로 관객과 함께한 한 해였다.

우선 1월 28일 겨울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을 위한 특별한 음악선물로, 청소년들을 위한 대표적인 클래식 입문곡 '동물의 사육제'를 통해 청소년들과 함께 한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은 3월 29일 제52회 정기연주회에서는 러시아 작곡가 린스키 코르사코프 '세헤라자데', 멘델스존 '헤브리디스 서곡' 등을 통해 순수한 기악음악을 회화적, 문학적, 철학적 내용으로 표현한 '표제음악'을 들려준데 이어 5월 31일 특별연주회에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온 가족이 부담없이 즐길 수 있도록 클래식 명곡으로 채운 '푸르른 날의 오페라, 발레, 뮤지컬'을, 7월 6일 특별연주회에서는 단원들을 위한 학구적인 레퍼토리로

지난해 3월 김범수 수석지휘자의 임기가 끝나면서 지난 한 해 객원지휘자 체제에서 활동을 마무리했던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은 2017년 1월 새롭게 선출되는 신임지휘자와 함께 새로운 출발을 계획하고 있다.

프로그램을 꾸민 '고전음악의 재발견' 등 고전과 현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무대를 선사했다.

학업과 연주활동을 병행해야 하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꾸준히 예술적 소양을 키워온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은 올해도 최고의 무대를 선사하기 위해 전 단원들이 최상의 호흡을 맞추고 있다.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은 올 한 해 두차례 정기연주회와 특별연주회를 계획하고 있다. 특히 2017년은 1월에 새롭게 위촉될 신임 지휘자와 함께 새로운 분위기, 새로운 감성이 넘치는 수준높은 무대로 부산음악애호가들과 만날 계획이다.

3월 30일 첫 정기연주회를 계획하고 있는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은 9월 26일 제56회 정기연주회와 5월 31일, 6월 29일, 10월 31일, 12월 19일 특별연주회를 통해 미래의 촉망받는 젊은 음악인들에게 감성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레퍼토리와 우수한 협연자들과의 만남으로 한국의 대표적인 청소년교향악단으로 자리매김해나갈 계획이다. 관객들과 가깝게 소통하는 찾아가는 공연을 통해서도 보다 대중적이면서도 친숙한 클래식 명곡으로 앙상블의 매력을 선사하며 순회공연, 해외공연 등을 통해 문화사절단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할 예정이다.





##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 이원체제 구축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해

특히 올해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원년의 해가 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그 어느 때보다 2017년 새해를 맞는 각오가 남다르다.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우선 올해 일원체제였던 합창단을 연주반과 교육반 등 이원체제로 나누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 전문성을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뮤지컬과 댄스, 작곡, 성악, 실용반주법 등 장르별 심화교육을 통해 지금까지의 단순한 합창무대의 틀에서 벗어나 단원들에게 다양하면서도 참신한 교육으로 새로운 공연의 틀을 갖춰나갈 것이다. 또, 주 관객층인 어린이,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더 많은 무대를 통해 시립소년소녀합창단으로서 사랑받는 합창단이 될 수 있도록 가깝게 다가갈 예정이다.

1월 14일 빈 소년소녀 합창단 신년연주회에 특별출연하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1월 19일부터는 사흘간 통영에서 '동계 합창캠프'를 갖는다. 2월 24일 순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의 교류 무대에 이어 4월 15일 제148회 정기연주회에서는 '아름다운 동요의 세계로'라는 타이틀로 부산시내 초등학교 교사들로 구성된 동요사랑연구회를 초청, '창작동요의 밤'으로 꾸민다.

6월 24일 특별연주회에서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우리의 겨레'라는 주제로 합창곡을 제작,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저항 시를 가사로, 곡을 작곡하고 노래함으로써 애국선열의 숭고한 호국정신을 합창음악으로 기린다. 10월 25일에는 '독도의 날'을 맞아 독도를 주제로 한 다양한 음악을 통해 독도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우리 역사의 소중

지난 한 해 제4대 수석 지휘자로 취임한 이건륜 지휘자와 함께 그 어느 해 보다 분주한 한 해를 보냈던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2017년에는 3차례 정기공연을 비롯해 특별공연, 순회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함을 배울 수 있는 '독도이야기' 네 번째 이야기가 펼쳐진다. '독도의 날'은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천명하기 위해 제정한 날로, 고종황제가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칙령 제41호에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명시한 것을 기념한 것으로,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지난 2014년부터 매년 '독도의 날'인 10월 25일 '독도이야기'라는 타이틀로 연주회를 지속적으로 가져오고 있다.

9월에는 전국의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참가한 가운데 통영에서 열리는 '제25회 전국시립소년소녀합창페스티벌'에 참가한다. 지난해 과천에서 열린 '전국시립소년소녀합창페스티벌'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소년소녀합창단임을 확인시켜주었던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올해 역시 수준 높은 곡으로 좋은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11월에는 청소년 합창문화의 발전과 합창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매년 개최해 온 '제31회 청소년합창제'가 11월 18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특히 이번에는 합창경연대회를 함께 개최해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꾸민다.

12월 16일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크리스마스콘서트 '해피크리스마스'로 2017년을 마무리하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이밖에도 단원들간의 결속을 다지는 하계합창캠프(8월), 단원들 개개인의 기량을 확인하는 향상음악회(9월 2일~3일)도 가질 예정이다.



가깝지만 먼 나라 러시아



## 모스크바의 공연장 이야기

40

글·사진 이상훈 드림원정대 대표

크레믈린과 붉은 광장, 두꺼운 털모자와 두터운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시베리아 횡단열차..., 굳이 영화 '닥터 지바고'의 한 장면을 가지고 오지 않더라도 러시아는 자연스레 겨울과 오버랩이 되는 나라이다.

공연 여행을 하는 필자에게 러시아는 언제나 매력적인 곳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모스크바가 있다. 새해 벽두에 소개하는 도시로 몇몇 도시를 염두에 두고 있었지만 한 겨울의 모스크바야말로 어쩌면 제격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음악과 문학분야에서 차이코프스키, 립스키-코르사코프, 쇼스타코비치, 글린카와 같은 러시아의 음악가들 그리고 푸슈킨, 톨스토이, 도스토예프스키까지..., 서구문화 속에서 또 다른 색깔을 내는 다른 개성이 있다. 러시아(구, 소련시절 포함)와 우리나라와의 관계는 꽤 오래 전부터 거슬러 올라간다. 오랫동안 국경이 맞닿아 있었기에 그러하다.



1884년 조선과 제정 러시아 간의 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었지만 지난 백여 년 간은 냉전과 분단 등 긴 단절의 세월을 보내야 했다. 사실상 국교가 다시 재개된 건 불과 25년전인 1990년에 이르러서이다.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13년부터는 무비자 협정이 체결되면서 조금 더 가까운 나라가 되었으며 덕분에 한동안 TV에서 러시아를 소개하는 항공사의 선전을 접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서방의 다른 나라와는 무언가 빗장이 쳐진 느낌은 사라지지 않는 곳이기도 하다.

### 볼쇼이 발레, 볼쇼이 극장

우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단연 볼쇼이 발레단의 볼쇼이 극장이다. 1780년 페트로프스키 극장 발레단으로 시작했으나 1825년 새로 지은 모스크바의 볼쇼이 극장이 이 발레단을 인수하면서 지금





볼쇼이 극장 전경

의 명칭으로 바뀌었다. 국내에 처음으로 소개가 된 건, 동서 냉전의 화합을 열었던 1988년 서울올림픽이 끝난 직후, 그해 9월 처음으로 볼쇼이 발레단이 내한했을 때다.

이후 여러 차례 한국을 찾았기에 '발레 = 볼쇼이' 라는 수식어가 입에 붙을만큼 익숙해져 있다. 하지만 실제 모스크바 볼쇼이 극장에서 볼쇼이 발레를 보는 것은 녹록지가 않다. 오피셜 사이트는 시준과 무관하게 상시 매진이며 실제 러시아의 몇몇 티켓 예약 사이트에서 '백조의 호수'와 같은 발레공연을 예매하려고 접속하면 그 티켓 가격에 다시 한번 더 놀라게 된다. 좌석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보통 US \$600에서 \$1000은 지불해야 괜찮은 좌석에서 공연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빈 국립극장이나 밀라노 라스칼라와 같은 서유럽의 명문 오페라 극장의 최상석도 \$200이면 구입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하면 과한 금액이다. 무언가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지만 실제 볼쇼이 극장

주변의 티켓 판매소에서 판매하는 가격은 2~3만 루블을 호가한다. 공연장 앞 암표상들은 최대 6만 루블까지 부르기도 한다. 최근 루블화가 하락이 되었지만 역시나 한화 백만 원이 넘는 금액이다. 이렇게 값비싼 가격이 형성되는 이유는 사실 볼쇼이가 가지는 브랜드 로열티 때문이다.

지금은 러시아 경제가 하락세에 있지만 얼마전까지만 해도 모스크바는 한동안 세계에서 가장 물가가 비싼 도시 중 한 곳이었다. 게다가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CIS(구 소련 독립국가연합)를 상대로 비즈니스를 하는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들의 본부는 대부분 모스크바에 있다 보니 늘 외국인 손님을 상대로 하는 티켓 세일즈는 볼쇼이의 가격을 치솟게 하였다. 심지어 러시아 전역에 사는 촌노들조차도 죽기 전에 볼쇼이에서 발레를 보는 것이 소원일 만큼 전 러시아 국민의 사랑을 받기에 그 공급은 늘 태부족이다.

필자가 붉은 광장 맞은 편에 위치한 볼쇼이 극장을 처음 대면했을





01

때가 생각이 난다. 그 어떤 극장도 볼쇼이 극장 만큼 압도적인 위용  
으로 다가온 적이 없었다. 파사드만 놓고 보면 뮌헨의 국립극장,  
뉴욕의 메트로도 비교가 되지 않는다. 당시 볼쇼이 극장의 엄청난 티  
켓가격 때문에 예매는 일찌감치 포기하고, 그저 극장 구경이나 하  
려고 찾았지만 화려한 조명에 빛나는 극장을 보는 순간 금세 마음  
이 달라졌다. 어떻게든 직접 들어가서 봐야 하는 공연장이었다. 결  
국 압표상과 실랑이 끝에 제법 큰 비용을 지불하고 입장했지만 극  
장 내부를 보고는 또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 화려한 내부와 규모는 이 극장이 세계 최고의 오페라 극장이라  
는데 주저함이 없게 만들었다. '백조의 호수(Swan Lake)', 사실 어  
디에서도 볼 수 있을 만큼 전 세계적으로 꾸준히 무대에 올려지는  
스테디셀러 작품이다. 심지어 약간은 식상한 레퍼토리일 수도 있다.  
하지만 볼쇼이 발레단이 보여준 '백조의 호수'는 분명 달랐다. 볼쇼  
이 극장의 값비싼 티켓가격이 아깝지 않은 순간이다.

이 극장의 정식 명칭은 '러시아 국립 아카데미 극장'이다. 1776년에  
예카테리나 2세의 명으로 건립되었다. 하지만 1805년 화재와 1812  
년 나폴레옹 군의 진공에 의해 다시 한번 소실되는 비운을 맞고 말  
았다. 그리고 1825년 현재의 스페르도르프 광장에 새로이 건립, '크  
다' 라는 뜻의 볼쇼이(Bolshoi) 명칭이 붙여졌다. 객석 수 2,150석,

일반적인 오페라 하우스와 마찬가지로 말굽 형태의 평면을 가지고  
있지만 그 내부는 온통 황금빛깔로 치장되어 있어 이만한 규모를  
가지고서 화려하기까지 한 극장으로는 단연 볼쇼이 극장이 세계 최  
고이다. 볼쇼이 발레단은 두말할 것 없이 세계 최고의 무용수들을  
보유하고 있는 No.1 프로덕션이며 오페라는 자국 작곡가의 오페라  
작품들을 중심으로 공연되는데 이 역시 서방의 다른 극장과는 다  
른 특별함이 있다. 이를테면 오페라 '예프게니 오네긴'과 '스페이드  
의 여왕' 같은 경우는 러시아의 대 문호 푸쉬킨이 글을 쓰고 차이  
코프스키가 작곡을 했으니 단순히 'Made in Russia'를 떠나 독보  
적인 무언가가 있다.

### 차이코프스키 음악원 그리고 콘서트홀

차이코프스키 음악원(구, 모스크바 음악원)은 1866년 설립된 상트  
페테르부르크 음악원에 이어 러시아에서 두 번째 오래된 역사를 가  
지고 있다. 설립자인 루빈스타인과 친분이 있었던 차이코프스키가  
강사로 초빙되어 이곳에서 음악을 가르친 인연으로 1940년 국립음  
악원으로 승격되면서 현재의 이름을 얻었다. 음악원 내에는 오케스  
트라 전용 연주공간인 콘서트홀이 있으며 주요 클래식 연주회



02



04



03

- 01 볼쇼이 극장 내부
- 02 • 03 차이코프스키 콘서트홀
- 04 모스크바 거리의 극장

가 이곳에서 공연된다. 또한 4년마다 개최되는 차이코프스키 콩쿠르가 개최되는 곳이기도 하다. 또 비슷한 이름으로 혼동되는 주요 연주장소로는 트베르스카야 거리에 위치한 차이코프스키 콘서트홀이 있다. 러시아 최대 규모의 콘서트 홀이다. 현재는 마에스트로 유리 시모노프가 지휘하는 모스크바 필하모닉의 메인 콘서트홀로 사용되고 있으며 연중 300회 이상의 음악회가 열리는 단연 모스크바 클래식 중심이다.

### 모스크바의 연극과 뮤지컬

모스크바의 거리를 걷다 또 하나 놀라는 일은 일일이 언급할 수 없을만큼 수많은 극장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다. 마치 우리가 도시 곳곳에서 영화관을 만나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스타니 슬랍스키, 안톤 체호프 등의 이름을 생각하면 이내 수궁이 간다. 실제 모스크바는 세계 최고의 연극도시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기도 한다. 하지만 여전히 읽기에도 낯선 키릴어와 한정된 정보로 담아내지 못함이 아쉬울 뿐이다.

끝으로 재미있었던 건 극장 기업 스테이지 엔터테인먼트가 러시아

에 진출해 있다는 것이다. 이 네덜란드의 다국적 기업은 이미 2005년 ‘캣츠’를 시작으로 ‘맘미미아’, ‘미녀와 야수’, ‘시카고’ 등을 러시아어로 소개해왔으며 2013년부터는 시내 중심의 MDM 극장에서 ‘오페라의 유령(Open Run)’ 그리고 ‘싱잉 인 더 레인’까지 공연하고 있다.

실제로 주말에 오페라의 유령을 보러 찾았을 때에는 빈 좌석이 없을만큼 관객들의 호응도 대단했다. 몇 해 전 프랑스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의 초연 배우, 가루(Garou), 패트릭 피요리(Patrick Fiori), 다니엘 라보아(Daniel Lavoie) 등이 완전체가 되어 콘서트 버전으로 공연한 적이 있었는데 그 장소가 오로지 모스크바 한 곳이었다. 당시에는 상당히 의아하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지금 와 생각해 보니 이렇게 공연을 사랑하는 인구 1,200만 명이 모여사는 메가시티 모스크바는 어느 도시도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있는 저력이 있는 도시라는 생각이 든다.





국내 최대 아동청소년공연예술축제

# 제13회 서울 아시테지 겨울축제

THE 13TH ASSITEJ KOREA WINTER FESTIVAL, SEOUL 2017



1월 4일(수)~14일(토)

대학로 일대  
전석 2만원

(사)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한국본부  
02-745-5862~3  
www.assitejkorea.org

국내 최대 아동청소년연극축제인 '서울 아시테지 겨울축제'가 1월 4일부터 14일까지 서울 대학로 일대에서 펼쳐진다.

'아시테지(Assitej)'는 프랑스어인 'Association Internationale du Thea tre pour l'Enfance et la jeunesse'의 이니셜에서 따온 말로, 영어로 옮기면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Theatre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한국어로 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를 뜻한다. 아동청소년 연극이 유럽을 중심으로 발달해 왔으며, 협회 창립 단계에서도 유럽이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이 같은 불어 이니셜이 채택됐다. 지난 1965년 프랑스 파리에서 창립된 '아시테지'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 83여 개 회원국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비정부 국제기구로, 3,000명이 넘는 전 세계 어린이, 청소년 공연 단체 및 예술인들이 각국의 아시테지 본부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각국의 회원들은 어린이, 청소년 연극의 가치를 존중하고 이의 발전을 위해 국경을 초월한 긴밀한 관계 속에 정보교환 및 공연교류를 펼쳐오고 있다.

오는 1월 4일부터 대학로 일대에서 열리는 '제13회 서울 아시테지 겨울축제'는 매년 여름 해외 우수 아동극을 초청, 소개하는 '아시테지 국제여름축제'와 달리 지난 한 해 국내에서 두각을 나타낸 수준 높은 아동극을 선보인다. 올해로 13회를 맞는 이번 무대에서는 아시테지 한국본부가 지난 1992년부터 국내의 우수한 아동극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한 '제25회 서울어린이연극상' 본선진출작 6편과 클래식 음악에서부터 서커스, 복화술, 오브제 등 다양한 시도로 어린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공식 초청작 6편 등 총 12편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축제가 진행되는 기간에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엄마와 함께하는 연극놀이', '아빠와 함께하는 연극놀이'를 비롯해 국내 및 해외 아동청소년공연 전문가들을 초청, 포럼과 아트마켓으로 진행되는 '2017 아동청소년공연 국제네트워킹', 제25회 서울어린이연극상 시상식 등 다양한 부대 행사가 펼쳐진다.





## 제25회 서울어린이연극상 본선진출작

### 극단 성시어터라인 '무지개섬 이야기'

1월 4일(수) 오후 2:30, 7:30, 1월 5일(목) 오전 11:00, 오후 2:30 아이들극장  
 아시테지 한국본부와 한국회극작가협회가 선정한 제1회 아동 창작회극상 수상작인 '무지개섬 이야기'는 지자체 최초 어린이전용극장인 종로구 아이들극장의 개관작으로, 뛰어난 문학적성을 갖춘 희곡을 바탕으로 무대가 바다가 되는 상상의 세계를 구현해냈다.

### 극단 문(門) '망태할아버지가 온다'

1월 4일(수)~5일(목) 오전 11:00, 오후 2:30 아트원씨어터 3관  
 지난 2007년 볼로냐 국제어린이도서전 일러스트레이터로 선정된 박연철 작가의 스테디셀러 그림책을 새로운 형식의 종이컵인형극으로 선보이는 '망태할아버지가 온다'는 배우와 한 몸처럼 운영되는 환상적인 무대와 다채로운 오브제의 활용, 빠른 무대전환으로 독특하고 새로운 상상의 세계가 펼쳐진다.

### 창작놀이극단 아 '보석 같은 이야기'

1월 4일(수)~5일(목) 오후 1:00, 4:00 드림아트센터 3관  
 싱가포르 극단 아이 씨어터의 브라이언 슈워드 극작과 연출을 맡아 한국-싱가포르 합작 공연으로 탄생한 '보석 같은 이야기'는 일본, 중국, 인도, 싱가포르 등 아시아의 전통설화를 엮은 옴니버스극으로 가지각색의 가면과 재가발랄한 인형들이 장면마다 등장하여 각 나라의 옛 이야기를 그려낸다.

### 이야기꾼의 책공연 '별별왕'

1월 6일(금) 오후 7:30, 7일(토) 오후 1:00, 4:00, 8일(일) 오후 1:00 아이들극장  
 우리의 전통신화인 '대별왕 소별왕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별별왕'은 세상이 태어나던 풍경과 사건들을 커다란 천과 배우의 움직임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 극단 로.기.나래 '오늘, 오늘이의 노래'

1월 9일(월) 오후 7:30, 10일(화) 오전 11:00, 오후 2:30, 11일(수) 오후 2:30 아이들극장  
 춘천인형극제, 김천국제가족연극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오늘, 오늘이의 노래'는 제주의 '원천강 분풀이 신화'를 놀라운 상상력으로 풀어난 인형극으로 산으로, 바다로, 학의 날개로 변하는 무대와 살아 있는 듯 움직이는 인형들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 극단 하땅세 '오버코트'

1월 9일(월)~10일(화) 오후 1:00, 4:00 드림아트센터 3관  
 배우의 몸짓과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생생한 라이브 음악과 마법 같은 스크린 아트로 호기심 많은 어린이 관객들을 상상의 세계로 초대하는 '오버코트'는 2015년 영국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서 관객과 언론의 극찬을 받은 작품으로, 2016년 이탈리아, 중국, 대만의 공연 축제에 공식 초청된 바 있다.

## 공식 초청작

### 극단 나무 '로켓트를 만든다'

1월 7일(토)~8일(일) 오후 1:00, 4:00 아트원씨어터 3관  
 주변의 사물들이 로켓으로 변하는 깜직한 상상력의 오브제극으로, 어린이 관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더불어 자연과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작품이다.

### 아시아 문화원 '작은 악사'

1월 7일(토)~8일(일) 오전 11시, 오후 2:30 드림아트센터 3관  
 우즈베키스탄 최고의 동화작가 파르하지 라임 하끼모비치의 동명의 그림책을 시(詩)음악극으로 제작한 '작은 악사'는 중앙아시아의 자연환경을 감각적으로 풀어낸 무대로, 라이브로 연주되는 가야금 선율, 매력적인 우즈베키스탄의 이야기가 절묘하게 어울리며 관객들을 상상의 세계로 초대한다.

### 극단 영 '동물의 사육제, 모차르트의 마술피리'

1월 13일(금)~14일(토) 오전 11:00, 오후 2:30 아이들극장  
 생상의 '동물의 사육제'와 모차르트의 대표 오페라 '마술피리'를 어린이 눈높이에 딱 맞는 이야기로 엮은 그림자음악극으로, 유려하게 움직이는 손그림자, 시선을 사로잡는 색색의 그림자 인형은 어린이 관객을 클래식 음악의 세계로 이끈다.

### 극단 친구 '아빠, 힘내세요!-인재우 복화술쇼'

2017년 1월 13일(금)~14일(토) 오후 1:00, 4:00 아트원씨어터 3관  
 세계가 인정한 국내 최고의 복화술사 인재우의 무대로, 말괄량이 사물들과 장난꾸러기 메롱이의 우리가족 이야기가 마법 같은 복화술로 펼쳐진다.

### 김찬수 마임컴퍼니 '서커스 광대학교-블랙클라운'

1월 10일(화)~11일(수) 오전 11:00, 오후 3:00 아트원씨어터 3관  
 초등학교 학생 관객을 위한 맞춤 프로그램으로, 체험워크숍 '서커스 광대학교'와 서커스공연 '블랙클라운'을 통해 서커스를 직접 배우고 함께 즐길 수 있다.

### 이동형 공연 '벨로시립터의 탄생'

1월 6일(금) 오후 6:30, 8일(일) 오후 2:00 아이들극장 로비 공연  
 그림책 속 공룡이 살아 움직이는 놀라운 광경을 재현한 '벨로시립터의 탄생'은 신문지로 만들어진 벨로시립터의 정교하고 익살스런 움직임으로 환경에 대한 메시지와 함께 재미와 즐거움을 선사한다.

## 삼성현<sup>三聖賢</sup>의 고향 경산으로 떠나는 겨울여행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무작정 훌쩍 떠나고 싶은 날, 갈 곳 없어 집에서 하염없이 뒹굴거리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만큼 우울한 일이 또 있을까. 매서운 칼바람이 몰아치는 날에도 테마여행을 떠나기 위해 설레는 표정으로 부산문화회관을 찾는 정기회원 가족들을 보노라면 여행을 통한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이 느껴진다.





지난 12월 9일,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2016년 마지막 테마여행이 펼쳐졌다. 193번째로 떠난 12월의 테마여행지는 삼성현(三聖賢)의 고장 경산. 대구광역시와 청도군, 영천시, 군위군과 접해있는 경산은 특히 대구 도시철도 2호선이 운행되는 등 대구의 위성도시로 흔히 알려져 있다.

두시간 남짓 달려 경산여행의 첫 번째 목적지인 조영동 고분군에 도착하자 이 승희 문화유산해설사가 회원가족들을 반갑게 맞는다. 조영동 고분군은 임당동 고분군과 함께 신라시대 지방 소국이었던 '압도국(押督國)'의 유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어 사적 제516호로 지정되어 있다.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은 1918년 압량면 대동·조영동 고분군으로 알려졌지만 해방 후까지도 학계의 관심을 얻지 못하다가 1982년 1월 15일 임당동에서 도굴된 유물이 해외 밀반출 과정에서 적발되어 수습차원에서 발굴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고분의 내부는 대체로 청석인 기반암(基盤巖)을 파고 그 안에 목곽(木槨)을 안치한 목곽묘로, 적석목곽묘, 횡혈석실묘, 석곽묘, 옹관묘 등도 다수 확인되었는데 특이한 것은 각 무덤에 피장자의 인골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 순장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임당·조영동 고분군은 출토된 유물과 묘제로 보아 4~6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삼국사기', '삼국유사' 등에 등장하는 '압독국' 지배자들의 무덤으로 추정된다.

조영동 고분군에 이어 두 번째로 찾아간 곳은 사적 제218호로 지정된 경산 병영유적. 신라시대 김유신 장군이 압량주 군주로 있을 당시 이 지역의 방어와 삼국통일의 염원을 모아 주군의 군사훈련을 시켰던 장소라 전해진다. 지금은 그저 잡초와 풀들로 무성한 한낱 공터이지만 누구보다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의 안위를 걱정했던 장수의 뜨거운 호국정신이 가슴으로 전해진다.

추운 날씨에 옷깃을 단단히 여미며 다음 장소인 경산시립박물관으로 가기 위해 버스에 올랐다. 경산의 뿌리를 찾을 수 있는 경산시립박물관은 선사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경산의 역사와 문화를 알려주는 다양한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다. 특히 제3전시실에서는 회원들이 첫 번째로 방문했던 임당·조영동 고분군의 발굴 당시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놓고 있어 기원 전 2세기부터 기원 후 7세기까지 약 천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고대 경산 사람들의 생활문화를 고스란히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경산의 맛집으로 입소문이 난 한정식집에서 배부르게 점심식사를 마친 회원가족들은 오후 첫 일정으로 '삼성현역사문화공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경산은 우리나라의 민족문화를 꽃피운 원효, 설총, 일연, 즉 '삼성현(三聖賢)'의 고



장으로, 삼성현역사문화공원은 이들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해 4월 문을 연 경산의 명소이다.

“동아시아 불교의 새벽을 밝혔던 원효, 그리고 그의 아들 설총은 동방 18천 이자 신라 10현 중 한 사람으로 추앙받던 대유학자로 이두문자를 집대성한 분입니다. 또 그로부터 600여 년 뒤, 고려 충렬왕 때의 국존(國尊)이었던 일연선사는 그의 저서 삼국유사를 통해 현대의 우리에게 원효와 설총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삼성현역사문화공원에는 ‘삼성현, 민족문화를 꽃 피우다’를 전시 콘셉트로 국내외 30여 개 기관에 흩어져 있던 삼성현 관련 유물(자료)을 한 자리에 전시하고 있다. 전시관을 돌아보며 세 성현의 발자취를 따라다니다 보니 ‘세상사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원효대사의 경언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가 가슴 깊이 와닿는다.

경산여행의 마지막을 장식한 곳은 ‘제2의 주산지’로 불리며 사진작가들의 명소로 떠오른 반곡지. 최근 인기드라마 ‘구르미 그린 달빛’ 촬영지로 더욱 유명해진 반곡지는 작은 저수지에 독을 가득 메운 수백년 된 아름드리 왕버들



로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한다. 꽃 피는 봄부터 눈 내리는 겨울까지 어느 한 철 아름답지 않은 계절이 없다며 경산지역 사진작가들이 인터넷에 사진을 올리면서 세상에 알려진 후 지금은 사진애호가뿐만 아니라 연인, 가족 나들이객 등 많은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관광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정기회원 가족들은 마치 여행의 아쉬움이라도 달래듯 서로를 향해 카메라 셔터를 분주히 누른다.

겨울 한나절 햇살만큼이나 짧았던 여정을 뒤로 하고 부산으로 돌아오는 길, 매서웠던 날씨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던 회원들의 환한 미소처럼 경산 테마여행도 2016년 마지막을 정리하는 좋은 기억으로 서로의 가슴 속에 남을 것이다.

※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은 잠시 휴식기를 가진 후 2017년 3월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여러분의 걸을 찾아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 CULTURE

# LIFE

January 2017  
vol. 301

INVITATION TO THE ARTS

50 프리뷰

53 리뷰

57 프로그램 가이드

64 새로 나온 음반

65 새로 나온 책

## 〈부산 주요 공연장 안내〉

가온아트홀 | 1600-1602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 663-5363  
공간소극장 | 611-8518  
국립부산국악원 | 811-0040  
글로벌아트홀 | 505-5995  
금정문화회관 | 519-5651  
동래문화회관 | 550-6611  
디코소극장 | 464-1996  
레몬트리소극장 | 626-0116  
무대공감 | 623-0678  
무지크바움 | 070-7692-0747

미리내소극장 | 504-2544  
부산광역시 학생예술문화회관 | 366-8114  
부산문화회관 | 607-6051~5  
부산북구문화방송센터 | 309-4087  
부산시민회관 | 630-5200  
부산예술회관 | 612-1372  
부산햇살가득한날에 | 1899-3253  
센텀시티 소향씨어터 | 1544-1555  
소극장 6번출구 | 625-2117  
소민아트센터 | 991-1100  
숨사탕아트홀 | 922-4545  
수아트홀 | 744-1415

신명천지소극장 | 515-7314  
아트카페 움 | 557-3369  
액터스소극장 | 611-6616  
에저또소극장 | 852-9161  
열린아트홀 | 527-012W3  
영도문화예술회관 | 419-5571~3  
영화의전당 | 780-6000  
용천지랄소극장 | 612-4312  
을숙도문화회관 | 220-5812~3  
일터소극장 | 635-5370  
자유바다소극장 | 441-2733  
차성아트홀 | 723-7203

청춘나비소극장 | 070-8241-2560  
초콜릿팩토리 | 621-4005  
축제 소극장 | 661-6981  
한결아트홀(구.가마골소극장) | 1588-9155  
해운대문화회관 | 749-7651  
AN아트홀 광안 | 1600-0316  
AN아트홀 서면 | 070-4175-9035  
BEXCO 오디토리움 | 740-7300  
BNK부산은행조은극장 | 1588-2757  
KBS부산홀 | 620-7181  
MBC롯데아트홀 | 1688-8998  
SM아트홀 | 1600-1602

## Preview

##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26회 정기연주회 2017 신년음악회



2016 제야음악회로 2016년 한 해를 마무리한 부산시립교향악단이 1월 20일 2017년 신년음악회로 부산음악애호가들에게 희망의 선율을 들려준다.

1월 20일 금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 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3106, 3145

‘유연하면서도 정교한 바톤 테크닉으로 근, 현대의 난곡들을 마려처럼 풀어내는 마에스트로’ 금노상이 지휘하고 계명대학교 음악공예예술대학 성악과 교수로 있는 소프라노 강혜정, 추계예술대학교 교수로 있는 피아니스트 김용배가 협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희망찬 새해를 맞아 힘찬 출발을 내딛는 기상이 잘 담긴 주페 ‘경기병 서곡’을 시작으로 신년음악회의 대표적인 레퍼토리인 슈트라우스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 왈츠, ‘천둥과 번개’ 폴카, 임금수 곡 ‘강 건너 봄이 오듯’, 아르디티 ‘입맞춤’, 거슈윈 ‘랩소디 인 블루’, 스트라빈스키 ‘불새’ 모음곡 등이 연주된다.

2017년을 여는 신년음악회로 부산 관객과 만나는 지휘자 금노상은 클라우드오 아바도, 주빈 메타 등 명 지휘자를 배출한 비엔나 국립음악학교에서 당시 동베를린 국립 오페라와 음악감독 겸 지휘자였던 오토마 슈트너를 사사, 지휘 디플롬을 받았으며, 동시에 오페라 전문지휘과정인 Korrepetition Praxis를 지휘과와 복수 전공하며 지휘자로서의 기반을 닦았다. 한국 지휘자로서는 처음으로 마케도니아 국립오페라단과 중국 상하이교향악단, 일본 삿포로교향악단을 지휘한 바 있는 금노상은 매년 국립오페라단과 한국오페라단, 광주오페라단 등과 함께 오페라 작품을 선보이는 등 오페라 지휘자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금노상은 지난 1989년부터 광주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로 있으며 광주시립교향악단을 국내 정상급 교향악단으로 도약, 발전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1994년부터는 인천시립교향악단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로 활동하며 인천시립교향악단을 4관 편성의 관현악단으로 확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구스타프 말러, 이고르 스트라빈스키 등 대편성의 새로운 작품들을 소개하는가 하면 브루크너 교향곡 등을 한국 초연하면서 화제에 오르기도 했다. 2006년에는 광주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를 다시

맡아 다시 한번 광주시립교향악단을 재도약시키는 역할을 담당했으며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대전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로 있으며 한국 오케스트라 최초로 음악의 도시 비엔나 무지크페라인 골든홀을 비롯해 체코 프라하 스메타나홀, 헝가리 부다페스트, 독일 뮌헨 헤라클레스홀로 이어지는 유럽투어에서 유럽인들의 뜨거운 기립박수를 이끌어내며 유럽 문화예술의 중심지에서 한국 교향악단의 수준이 높게 평가받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2017 신년음악회의 첫 무대는 주페의 ‘경기병 서곡’으로 연다. 지난 1866년에 작곡된 주페의 오페레타 ‘경기병’은 오페레타로서는 오늘날 거의 연주되지 않으나 이 서곡만큼은 남아 오늘날에도 널리 연주되고 있다. 오페레타 중 5개의 주요 테마를 엮어 만든 ‘경기병 서곡’은 헝가리 시골을 무대로 경기병의 씩씩한 모습을 담고 있다. 시원스런 트럼펫과 호른의 울림으로 곡이



시작되고 씩씩한 경기병의 행진을 방불케하는 유명한 선율이 계속되면서 신년음악회 레퍼토리로 자주 연주되곤 한다.

이어지는 곡은 이수인의 곡 우리가곡 '강 건너 봄이 오듯'과 입맞춤의 설렘을 표현한 이탈리아 작곡가 아르디티의 대표가곡 '입맞춤(Il Bacio)'으로, 소프라노 강혜정의 협연으로 들려준다. 연세대학교 성악과를 졸업하고 도미, 뉴욕 매네스 음대에서 석사와 최고연주자 과정을 전학년 장학생으로 졸업한 강혜정은 지난 2005년 미국 뉴욕 The Michael Sisco Opera Award를 수상하고 그 해 뉴욕 카예 플레이하우스(Kaye Playhouse)에서 오페라 '마술피리' 파미나 역으로 데뷔, 뉴욕타임스로부터 '다채롭지만 유연한, 너무나 달콤한 소프라노'라는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유학 중인 지난 2006년 서울시오페라단의 신인 공개 오디션에 합격해 바리톤 고성현과 함께 오페라 '리골레토' 질다 역으로 국내 데뷔무대를 가진 후 그동안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마술피리', '돈 조반니', '돈 파스칼레', '라 보엠',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호프만의 이야기', '사랑의 묘약', '유쾌한 미망인', '로미오와 줄리엣', '카르멘'의 수녀들의 대화' 등 다수 오페라의 주역으로 무대에 섰다. 지난 2010년 제3회 대한민국 오페라 대상 신인상을 수상한 바 있는 강혜정은 2009년 일본 도요타현 콘서트 홀 초청 리사이틀, 교토 챔버 필하모닉, 이탈리아 피렌체 오케스트라와의 협연, 2010 테너 호세 카레라스 내한공연, 2011 프랑스 르망 국제음악축제 초청 리사이틀을 가진 바 있다.

1부 마지막 곡으로는 매년 새해 첫날 빈 필하모닉 신년음악회에서 자주 연주되면서 신년음악회의 대표적인 레퍼토리로 사랑받고 있는 슈트라우스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 왈츠와 '천둥과 번개' 폴카를 들려준다. 슈트라우스의 많은 왈츠곡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다는 호평을 받는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은 1867년 그 당시 궁정무도회 지휘자로 있던 슈트라우스가 이웃 프로이센과의 전쟁에서 패해 나라 전체가 온통 어두운 분위기에 휩싸여 있던 때, 오스트리아 국민들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불어 넣어주기 위해 작곡한 곡이다. 그 이듬해인 1868년 작곡된 '천둥과 번개'는 제목처럼 천둥과 번개를 표현한 음악으로 폴카 리듬에 빠른 템포로 여러 번 반복되는 심벌즈의 소리로 소나기와 번개를 묘사하고 있다.

신년음악회 2부는 피아니스트 김용배가 연주하는 거슈윈의 '랩소디 인 블루'로 시작한다. 1924년 당시 재즈의 왕으로 불리던 폴 화이트만의 의뢰로 탄생된 '랩소디 인 블루'는 그 해 2월 12일 뉴욕의 에들리언 홀에서 '현대음악의 실험(An Experiment in Modern Music)'이라는 제목으로 초연무대를 가졌으며 클래식 음악의 요소와 재즈로부터 받은 영향을 결합한 새로운 시도로 주목 받았다. 협연자 김용배는 서울고등학교 재학 중 문교부 주최 전국학생음악콩쿠르 입상, 서울대학교 재학 시 국립교향악단과의 협연 및 두 차례의 독주회 등으로 일찍부터 주목받

아온 피아니스트로, 대학 졸업 후 서울대학교 음대 대학원 피아노과로 진학, 정진우 교수를 사사했으며, 이어서 미국 Virginia 주립대학과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에서 London Bilyeu, Thomas Mastroianni 교수를 사사했다. 지난 1986년 귀국 후 가진 첫 독주회로 당시 원로 평론가들과 작곡가들의 모임인 한국음악팬클럽에서 수여하는 '이 달의 음악가상'을 받은 바 있는 김용배는 그동안 독주회를 비롯 서울시립교향악단, KBS교향악단, 코리아심포니, 뉴서울필하모닉, 서울심포니, 서울아카데미오케스트라, 바로크합주단, 서울심포니에타, 서울그랜드심포니, 서울내셔널심포니, 부산시립교향악단 등과 협연무대를 가졌으며 실내악 단체인 '예음클럽'의 창단 멤버로 지금까지 꾸준히 실내악 연주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지난 1988년 12월 한국예술평론가협회가 제정한 '1988 최우수 예술가상'을 받은 바 있는 김용배는 지난 2004년부터 3년간 예술의전당 사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올해 신년음악회의 마지막 곡은 스트라빈스키의 '불새' 모음곡이 장식한다. 그의 나이 28세 때인 1910년 근대 무용예술의 거목인 디아길레프가 새로 창단한 러시아 발레단에 의해 파리에서 공연되어 큰 성공을 거둔 이 작품은 '불새'를 소재로 한 러시아의 동화와 민담을 바탕으로 작곡되어 러시아 특유의 민속 선율들을 풍부하게 들을 수 있으며, 스트라빈스키 특유의 색채적 관현악법과 리듬의 다양성으로 이후 20세기의 음악에도 많은 영향을 끼친 작품이다.



## Preview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공연  
2017 우리춤 산책

평소 실제 강습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 춤을 연마해 온 부산시립무용단 단원들의 빼어난 춤 솜씨를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부산시립무용단 '2017 우리춤 산책'이 1월 19일과 20일 이틀간 부산문화회관 소극장에서 펼쳐진다.

1.19(목) - 20(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입장료 균일 5천원

문의 부산시립무용단  
607-3101, 3107

올해 무대에서는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를 비롯해 중요무형문화재 제97호 살풀이, 태평무, 훈령무, 춘앵무, 소고춤, 산조춤, 교방굿거리춤과 창작춤 '사풍정감(土風情感)', 사랑가 등 다채로운 우리춤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예년에 비해 두 배가 넘는 17명의 단원들이 출연, 각기 다른 춤사위로 풀어낸 동일한 작품을 한 무대에서 비교, 감상할 수 있다.

매년 '우리춤 산책'에서 빠지지 않고 무대에 올려지는 '승무'는 한국무용의 '정중동(靜中動), 동중정(動中靜)'의 정수가 잘 표현된, 민속무용 중에서도 가장 예술성이 높은 춤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시립무용단 단원 장래훈, 서정연, 김동숙이 춤사위가 자유분방하면서 다양한 발디딤새가 특징인 이매방류 승무를, 전현무는 춤사위가 우아하면서도 섬세한 한영숙류 승무를 선보인다. 무당이 나쁜 기운을 풀기 위해 추는 즉흥적인 춤으로, 춤꾼 한성준이 1903년 극장공연에서 살풀이라는 말을 쓰면서 이름 붙여진 '살풀이'는 이번 무대에서 단원 전해린이 깊은 한을 안고 흐느끼며 호소하듯 연인의 심성을 명주 수건에 실어 풀어낸다.

단원 강모세와 권봉정, 오수연은 군대를 지휘하는 훈련대장의 모습을 형상화한 '훈령무'를 선보인다. 한성준 선생이 구한말 군대의 훈련장면을 보고 창작한 '훈령무'는 절도있는 동작을 통해 절제된 형식미를 강조하면서도 역동적인 춤사위를 통해 남성다운 힘과 기상을 표현한 춤이다. 단원 이현정과 이상민은 조선 순조 때 창작된 궁중정제의 하나로, 순조의 아들 효명세자가 순정왕후 탄신 40주년을 기념해 만든 '춘앵무'를 선보인다. 버드나무 가지에서 지저귀는 피꼬리의 모습을 보고 만들었다 해서 '춘앵무(春鶯舞)'라 이름 붙여진 이 춤은 '무산향'과 더불어 궁중무용의 유일한 독무로, 지극히 절제된 춤으로 그 움직임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는 게 특징이다. 단원 김시현과 김경미는 농악 중 소고놀이에서 나타난 동작들을 재구성, 경쾌하면서도 절도있게 휘

몰아치는 장단이 역동적인 '소고춤'을 선보이며, 단원 김진영은 '검기무'라고도 불리며, 검을 다루는 기예와 검기(劍氣)를 품은 협(俠)의 미(美)까지 복합적이면서도 독특한 매력을 품어내는 '검무'를 선보인다.

나라의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춤으로, 화려하기 보다는 정갈하면서도 절제된 정·중·동의미를 강조하는 한영숙류 '태명무'는 단원 윤은하, 느린 장단에서 빠른 장단으로 몰아가는 음률의 흐름 속에서 한과 흥, 신명을 섬세한 몸짓으로 표현한 '산조춤'은 단원 정진희, 자유분방하면서도 현란한 손목사위가 일품으로 활달한 풍류의 멋과 흥이 깃들여 있는 김수악류 교방굿거리춤은 단원 김주원의 춤사위로 풀어낸다. 이밖에 배움과 덕목을 두루 갖춘 선비의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기풍(氣風)과 기개(氣概)를 엿볼 수 있는 '사풍정감(土風情感)'은 단원 황동하, 판소리 '춘향가' 중 '사랑가'를 전통 춤사위에 담은 '사랑가'는 단원 장영진, 박미나의 춤사위로 감상할 수 있다.

## Review

## 서로를 향하고, 서로를 품으며, 서로를 위한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 도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 핀커스 주커만



정두환 음악평론가

‘프로페셔널(professional)’의 뜻은 ‘어떤 일을 전문적으로 하거나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아마추어(amateur)’의 상대개념으로 이야기를 한다. 이에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물질적 대가’를 이야기하면서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과 ‘돈을 받지 않고 일하는 사람’으로 구별하기도 한다. 하지만, ‘amator’라는 라틴어에서 유래된 ‘amateur’에서는 이 ‘amator’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사랑하는 사람(lover)’이라는 뜻의 ‘amator’에서는 정말 사랑을 하지 않고서는 이야기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아마추어’라고 이야기 하는 것의 전제는 돈의 개념보다는 사랑하는 마음의 개념이 훨씬 먼저여야 하는 까닭이기도 하다. 19세기 후반부터 자주 사용된 ‘프로페셔널’의 어원 역시 ‘Profess’ ‘고백하다’, ‘공포하다’ 등의 의미인 프랑스어에서 비롯된다. 이 또한 ‘사랑’을 내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반적으로 전문가라는 용어로 사용되는 ‘프로페셔널’을 필자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떠한 상황에 문제가 발생했을 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는 상황이 일어나기 전 시작부터 결과까지를

통찰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이 있어야 됨을 이야기 한다. 둘째, 자신의 영역에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외부 상황 변화와 관계없이 자신의 기량을 항상 최고로 유지해야 한다. 셋째, 상대를 배려하고 품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 전문 영역과 인간적인 영역이 겸비됨을 이야기한다. 이러한 최소한의 세 가지를 두루 갖추고 있을 때 이를 우리는 전문가라 칭할 수 있는 것이다.

이날 연주한 도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이러한 세 가지를 두루 갖춘 연주자라 함에 손색이 없었다. 먼저 그들이 들려준 첫 곡 베르디의 ‘나부코’ 서곡은 오케스트라의 음향을 고르게 갖춘 단체임을 인식시키기에 충분한 오프닝이었다. 특히 현의 우아함은 젊은 지휘자 안드레아 바티스토니의 음악성을 표현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오케스트라 전체 음향을 감싸고 있었다. 이어진 바이올린의 전설인 핀커스 주커만과 함께한 브루흐 ‘바이올린 협주곡’은 자신의 음악을 빛내기보다는 합주협주곡 같은 느낌의 대가를 발견한 무대였다. 영원한 비루투오조 주커만은 자신의 연주 역량을

오케스트라 사운드에 녹여내기 위한 전제로 쏟아부었다. 진정한 프로페셔널은 아마추어의 ‘사랑함’을 내포하고 있음을 증명해주는 무대였다. 오케스트라는 협연자를 위하고 협연자는 오케스트라를 위한, 음악 속에 하나된 감동을 관객들에게 들려주는 모습 속에서 대가의 면면을 발견할 수 있었다. 끊임없는 앵콜 속에서 협연자는 오케스트라를 향한 감사와 사랑의 인사로 같음했다.

마지막 무대인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제5번’의 연주는 관객들을 환호의 도가니로 불어 넣었다. 열정적으로 지휘하는 20대의 젊은 지휘자 안드레아 바티스토니의 음악 속에 녹여진 그의 화려한 지휘에 오케스트라는 하나된 사운드로 절정을 표현했다. 지휘자의 지휘법이 화려하든, 절제되든 음악 속에 녹아있는 음악의 진정성을 발견해 함께 더불어가는 힘을 나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는 바티스토니의 음악 사랑과 열정이 도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더불어 서로를 향한 배려와 사랑으로 나타난 것이었다. 음악의 진정한 전문가 모습은 음악 속에 서로가 하나 될 때 가능한 것이다.

## Review

## 부산항의 멜로드라마, 또는 버라이어티 뮤직 쇼 부산시립극단 제57회 정기공연 '돌아와요, 부산항에'



정봉석 연극평론가  
동아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교수

54

부산시립극단의 제57회 정기공연인 '돌아와요, 부산항에'(오은희 작, 곽종필 연출)가 지난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을숙도문화회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올렸다.

장엄한 서곡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무대의 배경막 위로 부산항의 영상이 투사되면서 갈매기 한 마리가 날아오른다. 창공을 유연하게 나는 갈매기의 나래를 따라 남향에서 북향으로 펼쳐지는 부산항의 전경을 내려다보노라면, 어느 곁에 그 스크린 위로 격동하였던 한국의 근대사가 아로새겨진다.

사실 부산이야말로 역사의 상징적 공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멀리 임진왜란의 비극까지야 막론하더라도, 일제 강점기에는 징병과 징용을 떠나는 이별의 현장이었다. 광복의 기쁨도 잠시, 한국전쟁 때에는 임시수도로서 피난살이의 애환을 겪어야 했고, 베트남전쟁 때에는 월남 파병이 이루어지던 뜨거운 현장이었다. 부산은 서구의 문물을 수용한 근대화의 관문이며, 정의와 활기가 넘쳐흐르는 민주화의 성지이기도 하다. 이승만과 박정희의 독재에는 부마항쟁으로 저항하였고, 전두환의 독재에는 6월항쟁의 불씨를 지펴 올렸다. 이러한 토대 위에 '부산 갈매기'는 1982년 프로야구의 출범

과 함께 부산인의 열정을 표현하는 영원한 상징이 되었다. 그렇게 갈매기의 나래짓을 따라 부산의 근대사를 스크린 위에 압축적으로 제시한 서막의 장면이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어서 '돌아와요 부산항에'가 배경음악으로 깔리면서 무대는 자연스럽게 자갈치시장으로 바뀌었다.

해양대학교 항해과 생도인 '동규'는 자갈치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채경'에게 구애를 하지만 거절당한다. 학교로 돌아온 동규는 홈커밍데이로 40년 만에 모교를 방문한 '헤르만 강' 선배님을 영접한다. 헤르만 강은 해양대학교에 거액의 장학금을 기부한 귀하신 몸이다. 그러나 그는 심장병을 앓고 있다. 병원에 있어야 할 신세이지만 동규에게 부산 구경을 시켜주길 요청한다. 지금은 부산시민공원으로 변해버린 하리아야부대의 자리에서 헤르만 강은 40년 전에 헤어진 한 여인에 대한 사연을 들려준다.

고아원 출신으로 미군클럽에서 일하는 '강진영'은 클럽 전속가수인 '로라'의 동생 '오정화'를 사랑하게 된다. 진영은 마도로스의 꿈을 이루기 위해 일하는 틈틈이 해양대학교 편입을 준비하여 합격한다. 그러던 중 로라가 동료들의 돈을 떼먹고는 미국으로 야반도주한다.

졸지에 정화가 언니 대신 무대에 서게 된다. 진영은 외교관의 꿈을 접게 된 정화를 위해 자신이 모은 등록금으로 대신 빛을 갚고는 월남 전에 참전한다.

사랑하는 여인과 헤어지게 된 헤르만 강의 사연을 들은 동규는 친구들과 함께 정화를 찾는 캠페인을 벌인다. 그때 자갈치시장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는 동규에게 시장 상인들이 채경이 암에 걸린 할머니를 간병하느라 구애를 받아 들이지 못한 것이라는 말을 전해준다. 급히 채경을 찾아간 동규는 채경의 할머니가 헤르만 강의 옛 연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마침내 강진영과 오정화의 재회가 이루어지고, 동규와 정화의 사랑도 맺어지는 결말 속에서 축제의 커튼콜로 대단원을 맞는다.

이상의 줄거리를 통해서 보듯이 이 작품에는 심각한 반동원들도 갈등도 없다. 그럼에도 관객들은 어느덧 스토리의 전개에 빠져든다. 왜냐하면 근대화의 시대 자체가 역경의 연속이었기 때문이다. 그 시절에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어려웠다.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야반도주를 하였고, 시대의 부름 때문에 이별해야 했다. 사랑도 이름도 남김없이 요동치는 시대의 흐름에 휩쓸리며 살았다. 그런즉, 부산





의 시대 상황이 드라마를 이끄는 힘인 것이다.

이 공연은 감상적이고 걱정적인 애정 드라마를 표방한다. 한마디로 멜로드라마이다. 그런데 흔히 '멜로'라 하면 남녀 간의 사랑으로 이해하겠지만, 그것은 에로스(eros)와 착종된 결과이다. 멜로는 그리스어로 노래(melos)를 뜻한다. 그런즉 멜로드라마는 애정극이기 이전에 노래극이어야 한다. 이것이 오은희 극작가가 '돌아와요, 부산항에'에 '사랑 공감 음악극'이라는 장르 명칭을 부여한 의도이고, 이 작품에 30개가 넘는 대중가요가 불리어지는 이유이다. 그러므로 이 연극을 살리는 또 하나의 힘은 노래와 춤에 있다. 그런데 부산시립극단은 뮤지컬 전문극단이 아니다. 때로는 배우의 가창력이 어설프기도 하였고, 때로는 극의 내용과 가사가 잘 안 맞는 장면도 있었다. 그러나 출연자들 모두는 극의 흐름을 주도하는 음악의 힘을 믿었고, 스스로 그 리듬에 몰입하여 앙상블을 만들어냈다.

뮤지컬 영화 '물랑루즈'처럼 대중가요를 창의적으로 활용한 수준이 아니라, 대놓고 대중가요와 드라마를 짜깁기한 키치(kitsch)적 패스티시(pastiche)임에도 묘하게 객석을 파고드는 힘이 있었다. 혼연일체가 되어 노래하고 춤

을 추는 배우들의 신명이 조금씩 관객들의 경계심을 무너뜨리고, 어느새 객석을 뒤흔들어 놓더니, 종내는 들썩거리게 만든 것이다. 거기에는 서정적으로 러브라인을 이끌어간 'Try to Remember'와 흥겨운 장면으로 분위기를 고조시킨 '미인'의 대비처럼 노래의 리듬들을 절묘하게 배치시켜 극의 앙상블을 이끌어간 구성의 힘이 작용하고 있었다.

그렇게 보자면 '돌아와요, 부산항에'의 성공의 비결은 극작가 오은희에 힘입은 것이다. 오은희는 부산대학교 극예술연구회 출신으로 1991년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희곡 '아바돈의 조곡'으로 당선된 뒤, 서울에서 뮤지컬 극작가로 명성을 날리고 있다. '동송동 연가' '사랑은 비를 타고' '오 해피데이' '번데기' '달고나' '대장금' 등 수많은 히트작들이 있다. 이러한 재원의 작품을 이제야 고향 부산에서 초청한 셈이다.

그렇다면 객중필 연출가에게도 공을 돌릴 일이다. '돌아와요, 부산항에'는 예술감독으로 부임한 뒤 첫 연출작으로 선보이는 것인데, 이는 그가 부산의 창작극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공약을 실천하고 있는 증거이기도 하다. 앞으로 도 부산 출신의 역량 있는 극작가들과 신진 극

작가들의 우수작들을 지원하는 노력을 꾸준히 밀고나가길 바란다.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라는 황홀한 고백으로 커튼콜을 장식한 부산의 원로배우 전성환은 존재 그 자체로 공연을 빛내주었다. "뮤지컬 전문 배우가 아니면서도 몇 달 동안 열심히 노력하여 관객 여러분에게 흥겨운 무대를 선보인다"는 그의 진정어린 멘트에 관객들은 부산시립극단의 노고에 한 발 더 다가가는 마음으로 찬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낼 수 있었다.

관객들이 모두 일어나 출연자들과 함께 부산 갈매기를 합창하는 뒤풀이 장면은 인위적인 연출로는 결코 불가능한 것이다. 그 마지막 장면까지 이끌어낸 부산시립극단团员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

## Review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 출범을 축하하다  
부산문화회관 2016 송년음악회

박진홍 음악평론가

56

지난 12월 16일 저녁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의 출범을 기념하는 송년음악회가 탤런트 강석우의 사회로 열렸다. 이날 무대에는 부산시립교향악단, 합창단, 국악관현악단, 무용단, 극단, 소년소녀합창단 등 부산문화회관 산하 6개의 예술단이 출연하였다.

첫 순서로 부산시립극단이 뮤지컬 '희망의 도시, 부산!'을 무대에 올렸다. 자갈치시장 장사꾼들과 손님의 대화를 통해 부산시의 문화도시 건설, (재)부산문화회관의 출범 소식 등을 알리고 다양한 문화 공연에 관심을 가지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춤과 노래가 어우러진 쾌활하고 에너지 넘치는 공연이었지만 홍보성 메시지가 등장인물들 간의 사건이나 대화 속에서 풀어진 것이 아니라 공문서를 그대로 대사로 옮겨 놓은 모양새여서 자연스럽지 못한 아쉬움을 주었다.

두 번째 순서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박범훈의 '신모듬'을 연주하여 흥겹고 신나는 무대를 이어갔다. 관객들은 경쾌한 장단과 흥겨운 가락에 많은 박수를 보내주었다. 이어서 소리꾼 김용우와 오정해가 '아리랑 연곡', '홀로 아리랑', '너영나영'을 노래했다. 편안한 김용우의

노래에 비해 오정해의 목 상태가 좋지 않아서 힘들게 노래하는 안타까운 모습에 관객들은 따뜻한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었다.

다음은 부산시립무용단의 '안녕하세요'가 공연되었다. 영화 '타이타닉'의 OST 'My heart will go on'에 맞추어 남녀 무용수들이 섬세하고 아름다운 몸짓을 선보였다. 이어서 장터에서 장사꾼들이 물건을 팔기 위해 분위기를 띄우며 부르던 '장타령'에 맞추어 신나는 한판 놀이를 보여주었다. 특히 무용수들이 관객들을 무대 위로 초청하여 코믹한 의상을 입히고 함께 춤을 추며 놀았는데, 이로 인해 무대도 객석도 유쾌한 웃음으로 가득했다.

후반부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이 간결하면서도 섬세한 연주로 보로딘의 '이그르공' 중 '폴로베츠인의 춤'을 연주했다. 이 곡은 독특한 색채를 가진 선율이 인상적인 곡으로 변화가 많은 작품이지만 부산시립교향악단은 각 부분의 변화를 명확하게 구분하면서 리드미컬한 움직임으로 선율의 흐름을 만들었다.

이어서 바리톤 고성현이 '청산에 살리라', '그라나다'를 노래했다. 맑고 명쾌하면서도 유려한 그의 음색과 표현력이 관객들의 마음을 사

로잡아서 관객들의 큰 박수갈채를 이끌어 내었다. 다음 순서로 부산의 대표적인 소프라노 김유섬과 테너 전병호가 레하르의 '유쾌한 미망인' 중 '입술은 침묵하고'를 노래했고, 마지막 곡으로 부산시립교향악단과 부산시립합창단,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그리고 성악가 김유섬, 양송미, 전병호, 고성현의 노래로 베토벤의 9번 교향곡 '합창' 중 4악장을 연주하였다. 해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환희의 송가'를 많이 연주하고 감상하는 것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새로운 시작의 요건은 소통과 배려, 우애와 하나됨이 아닐까 짐작해 보았다.

연주가 모두 끝난 후 로비에서는 단원 평가와 관련된 부산시립예술단 노조의 피켓 시위가 있었다. 합창 교향곡을 들고 난 후 시위라니, 아이러니한 장면이 아닐 수 없었다. 새롭게 출범하는 법인과 예술단원 노조 간의 조율이 시작될 듯하다. 조율은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다. 전문가들다운 조율 과정을 통해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이 전하는 더 아름다운 예술의 향기를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한다.

### 2017 빈 소년 합창단 신년음악회

일 시 | 1월 14일 토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95



520년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빈 소년 합창단 2017 신년음악회.

지난 1969년 첫 내한 이후, 국내에서 170회가 넘는 무대를 통해 오랜 시간 변함없이 순수하고 맑은 목소리로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빈 소년 합창단의 신년음악회는 오로지 한국에서만 개최되는 특별한 무대로, 희망찬 새해를 맞는 기쁨과 행복의 노래로 관객과 만나다.

1498년 7월 7일 오스트리아 황제 막시밀리안 1세의 궁정교회 성가대로 시작한 빈 소년 합창단은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빈 국립 오페라단과 함께 빈 궁정악단의 명성을 그대로 이어오고 있는 세계 최고의 소년 합창단이다.

'스마일(smile)'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신년음악회에서는 보이 소프라노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헨리 퍼셀의 송가부터 마음을 울리는 모테트, 재치와 감성이 풍부한 세계 각국의 민요, 우리를 웃음 짓게 만들

었던 영화의 명곡들과 신년음악회에 빠질 수 없는 알츠와 플라 음악까지 전 연령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곡들을 들려준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특별출연, 양국의 우정을 나누는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 [프로그램]

퍼셀/메리 여왕 생일 송가' 중 '그대, 예술의 아들이여 오라', '트림펫을 울려라', '축복하는 자연을 보라'

H. L. 하슬러/주님께 노래하라  
비발디/글로리아 라장조, RV 589 중 '하느님의 독생자 예수그리스도'

모차르트/우리 그대의 보호 아래 K.198  
멘델스존/한 여름 밤의 꿈' 작품 61 중 '얼룩무늬 뱀, 두 대의 허로'

마크 사이먼(편곡/로저 에머슨)/영화 '시스터 액트' 중 '하늘의 여왕'

불가리아 민요/피리 연주

멕시코 민요/아름답고 푸른 하늘

테리 길카슨/영화 '정글북' 중 '필수적인 것들'

남아프리카 민요/축복

나시오 허브 브라운/영화 '사랑은 비를 타고' 중 '사랑은 비를 타고'

요한 슈트라우스 2세/관광열차 플라 작품 281

요한 슈트라우스 2세/황제 왈츠 작품 437

•특별출연/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지휘/이건륜)

### 부산닥터스클라리넷앙상블 제11회 정기연주회

일 시 | 1월 15일 일요일 오후 5:00 소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김태훈 010-7543-0883

지난 2007년 부산, 경남에 거주하고 있는 의사와 치료의사들로 구성된 부산닥터스클라리넷앙상블의 정기연주회.

매주 1회의 합주모임을 통해 자기개발과 단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있는 부산닥터스클라리넷앙상블은 그동안 정기연주회와 찾아가는 음악회로 시민들과 만나고 있으며 환우, 사회악자,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자선음악회를 통해 이웃과 사랑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음악과 클라리넷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숨쉬고 있는 부산닥터스클라리넷앙상블은 이번 무대에서 클래식에서부터 영화 OST, 가요 등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 음악감독/김태훈
- 출연/고민선, 김경환, 우선예, 이현택, 남소현, 박종일



### 이민아의 춤 '脈'

일 시 | 1월 16일 월요일 오후 7:30 소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이민아 010-5051-0242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이수자, 중요무형문화재 제97호 살풀이춤 이수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강사, 우봉 이매방춤 보존회 이사, 이민아 무용단 대표로로 우리춤의 전승, 보급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 온 이민아의 춤 '脈'.

전국전통예술경연대회 우수상, 전국신인무용콩쿠르 수석상, 부산KBS무용콩쿠르 금상, 동아국악콩쿠르 전통무용부문 동상을 수상한 바 있는 이민아는 그동안 개인출판을 비롯해 국립부산국악원 초청 중견 명인명무전, 국립부산국악원 화요공감무대, 민속극장 풍류 '대를 잇는 예술혼',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 수요춤전, 우봉 이매방선생 1주기 추모공연, 남산국악당 검무전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우봉 이매방 선생의 춤맥을 이어가겠다는 각오로 이매방류 승무, 살풀이춤 원판무대를 선보인다.

### 제1187회 MBC 목요일음악회 부산 유망 신예와 해군군악대가 함께하는 시노두스윈드오케스트라 2017 신년음악회

일 시 | 1월 19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시노두스윈드오케스트라 010-8733-7438  
(사)문화도시네트워크 760-1494



부산시립교향악단 클라리넷 수석을 역임한 클라리네티스트 정우영을 중심으로 부산, 경남의 우수한 관악연주자들로 구성된 시노두스윈드오케스트라 2017 신년음악회.

지난 1995년 동아대학교 재학생, 졸업생들로 결성된 후 '동아윈드오케스트라'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다 2007년부터 지금의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시노두스윈드오케스트라는 그동안 다양한 무대를 통해 부산, 경남권을 아우르는 관악연주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시노두스'는 라틴어로 '다함께'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 지휘/정우영
- 특별출연/대신동교회 할렐루야 성가대, 해군군악대

###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공연 2017 우리춤 산책

일 시 | 1월 19일(목)-20일(금) 오후 7:30 소극장  
입장료 | 균일 5천원  
문 의 | 부산시립무용단 607-3101, 3154

신명이 살아있는 흥겨운 춤사위로 부산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부산시립무용단 '2017 우리춤 산책'. 평소 실제 강습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 춤을 연마해 온 부산시립무용단 단원들의 빼어난 춤 솜씨를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우리춤 산책'은 정가공연 무대에서는 만날 수 없던 단원들의 우리춤에 대한 진지함과 열정이 묻어나는 무대로, 올해 무대에서는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를 비롯해 중요무형문화재 제97호 살풀이, 태평무, 훈령무, 춘앵무, 소고춤, 산조춤, 교방굿거리춤과 창작춤 '시풍정감(士風情感)', 사랑가 등 다채로운 우리춤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예년에 비해 두 배가 넘는 수의 단원들이 출연, 각기 다른 춤사위로 풀어낸 동일한 작품을 한 무대에서 비교, 감상할 수 있다.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26회 정기연주회  
**2017 신년음악회**

일 시 | 1월 20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2만원, S석 1만 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3106, 3145



2017년 정유년을 맞아 부산음악애호가들에게 희망의 선율을 들려주는 부산시립교향악단 2017 신년음악회.

'유연하면서도 정교한 바톤 테크닉으로 근, 현대의 난곡들을 마려처럼 풀어내는 마에스트로' 금노상이 지휘하고 계명대학교 음악공연예술대학 성악과 교수로 있는 소프라노 강혜정, 추계예술대학교 교수로 있는 피아니스트 김웅배가 협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희망찬 새해를 맞아 힘찬 출발을 내딛는 기상이 잘 담긴 주페 '경기병 서곡'을 시작으로 신년음악회의 대표적인 레퍼토리인 슈트라우스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 왈츠, '천둥과 번개' 폴카, 임금수 곡 '강 건너 봄이 오듯', 아르디티 '입맞춤', 거슈윈 '랩소디 인 블루', 스트라빈스키 '불새' 모음곡 등을 들려준다.

2017년을 여는 신년음악회로 부산관객과 만나는 지휘자 금노상은 마케도니아 국립오페라단, 중국 상하

이교향악단, 일본 삿포로교향악단, 로마 심포니 오케스트라, 오스트리아 톤 퀸스틀러 오케스트라, 비엔나 프로 아르테 오케스트라, 대만성교향악단, KBS교향악단, 코리안심포니, 서울시립교향악단, 부산시립교향악단, 대구시립교향악단, 수원시립교향악단, 부천시립교향악단 등 국내외 다수 오케스트라를 지휘했으며, 매년 국립오페라단과 한국오페라단, 광주오페라단 등과 함께 오페라 작품을 선보이는 등 오페라 지휘자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금노상은 그동안 광주시립교향악단과 인천시립교향악단, 대전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를 맡아 한국 교향악단 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프로그램]**

- 주페/경기병' 서곡
- 임금수/강 건너 봄이 오듯
- 아르디티/입맞춤
- 슈트라우스/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 왈츠 작품 314
- 슈트라우스/천둥과 번개' 폴카 작품 324
- 거슈윈/랩소디 인 블루
- 스트라빈스키/불새' 모음곡



이승환 발라드 콘서트  
**'Only Ballad' in 부산**

일 시 | 2월 4일 토요일 오후 6:00, 5일 일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 VIP석 13만 2천원, R석 12만 1천원  
S석 11만원, A석 9만 9천원  
문의 | (주)하늘이엔티 1688-6675



지난해 봄 '가장 완성도 높은 발라드 공연'으로 극찬을 받았던 가수 이승환의 'Only Ballad' 부산 콘서트.

'기다린 날도 지워질 날도'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천일동인' '완벽한 추억' '어떻게 사랑이 그 래요' '화양연화' 등 이승환의 데뷔 초부터 현재까지 우리가 사랑하는 이승환의 발라드 명곡들을 모두 만날 수 있는 이번 무대는 이승환 밴드와 14인조 오케스트라, 3명의 코러스가 선보이는 풍성한 사운드와 국내 최고의 조명팀이 만드는 드라마틱한 연출로 환상적인 무대를 선사한다. 데뷔 후 지난 27년 간 1,000회 이상의 공연을 펼치며 '공연의 신'으로 불려왔던 이승환은 특히 지난 10월 8일 서울에서 개최된 '빠데이7'을 통해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8시간 27분 동안 공연을 가짐으로써 대중음악 공연계에 새로운 역사를 쓰기도 했다.

**토요상설무대**

일 시 | 매주 토요일 오후 4:00  
(1월 7일, 28일 공연없음) 소극장  
입장료 | 선착순 무료(7세 이하 어린이는 입장할 수 없습니다)  
문의 | 부산문화회관 607-6055

1월 14일 부산시립합창단 '합창으로 여는 희망의 2017'



**[프로그램]**

합창으로 여는 무대/울게하소서(Lascia ch'io pianga), 주를 찬양하라(Laudate dominum),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O mio babbino caro) 우리의 소리, 합창으로 만나다/복소리 타령, 행복을 주는 사람, 한국민요연곡 등 수곡

- 지휘/전진(부산시립합창단 부지휘자)
- 피아노/이승윤, 이경미
- 소프라노/염남이, 남순천, 김나영, 양은제, 권순유, 이혜진, 박성희, 손사론
- 앨토/정은영, 박성혜, 신소운, 장은경, 주유진
- 테너/최춘식, 김진영, 김추리, 김용태, 강은태
- 바리톤/문동환, 최성규, 김창돈, 김태우, 장용균

1월 21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연주회



**[프로그램]**

수제천(집박/채수만, 대금/강은주, 엄익준, 황두호, 소금/조은경, 피리/김용우, 박춘석, 박영은, 해금/김민정, 정수경, 이은주, 아쟁/최희정, 장구/송강수, 좌고/박재현)  
대금독주 '청성곡(대금/강영진)  
천년만세(대금/최재호, 피리/정주아, 해금/정수경,

- 양금/장미진, 단소/김수일, 가야금/정미자, 거문고/엄애리, 장구/최오성)
- 해금독주 '적남'(해금/최윤정, 신디사이저/강태라)
- 남도민요 '홍타령, 성주풀이, 진도아리랑'(민요/박성희, 정선희, 대금/한영길, 피리/김경수, 해금/김민정, 아쟁/권혜정, 가야금/송영남, 거문고/강상호, 장구/송강수)
- 성주굿을 위한 비나리(소리, 팽과리/이주현, 장구/최오성, 북/전학수, 징/박재현)
- 예술감독/이정필
- 해설/백규진
- 악기/강성일

2월 4일 부산시립교향악단  
**'현악4중주 · 금관 5중주'**



## Music 음악

### 무지크바움 살롱음악회 ACE 클라리넷 앙상블 연주회

일 시 | 11월 12일 목요일 오후 7:30 무지크바움  
 입장료 | 균일 1만 5천원  
 문 의 | 무지크바움 070-7692-0747,  
 cafe.daum.net/musikbaum\_busan

부산클라리넷과이어 산하 단체로 리더 이원기, 악장 유지훈을 중심으로 부산의 젊은 클라리네티스트들로 창단된 ACE(A Clarinet Ensemble) 클라리넷 앙상블은 지난 2010년 창단 후 6차례 정기연주회와 부산국제클라리넷페스티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프리지콘서트, 통영국제음악제 프리지콘서트, 금정수요음악회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피아졸라 '탱고', 히케틱 '라틴댄스' 등 무곡과 아름답고 화려한 클라리넷 앙상블 곡으로 관객들에게 클라리넷 앙상블의 매력을 들려준다.



### 금정수요음악회

일 시 |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4일, 11일 공연 없음)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학생, 예술인패스 소지자 5천원)  
 문 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1  
 ...  
 18일 플로레스 듀오 콘서트



이탈리아 로마 신타 체칠리아 국립음악원 동문인 소프라노 구민영과 메조 소프라노 백민아가 함께 하는 듀오 무대. 구민영은 Premio Enrico Segattini 국제콩쿠르 특별상, Musica Sacra 국제중교성악콩쿠르 로마지역 청상, Lauri Volpi 국제콩쿠르, Ritorna Vincitore 국제콩쿠르 등 다수 콩쿠르에서 입상하고 그동안 오페라 주역을 비롯 IBK기업사랑 음악회, 부산시립교향악단 웰빙콘서트, 국제신문 한낮의 유콘서트, 극동방송 주최 미주순회연주 등 다수 무대에 서왔다. 백민아는 이탈리아 바를레타시 국제음악콩쿠르 1위, 스페인 미라벤 이 마그란 국제성악콩쿠르 3위, 스페인 비냐스 국제성악콩쿠르 등 다수 콩쿠르에서 입상했으며, 스페인 바르셀로나 리세우 오페라 극장 상임 단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 프로그램

브람스/사랑의 행로  
 리스트/현정  
 구노/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 중 '꿈속에서 살고 싶어'  
 베르디/오페라 '일 트로바토레' 중 '불꽃은 타오르고'  
 등 수곡  
 • 피아노/남자(대구시립합창단 상임 반주자)

### 25일 배광수 Guitar Recital



한국예술종합학교 기악과와 독일 뮌스터 국립음대 전문연주자과정, Master 과정을 졸업하고 재학 당시 촉망받는 젊은 아티스트(Junges Podium)로 선정된 바 있는 기타리스트 배광수 독주회. 배광식은 지난 2001년 한국기타협회 콩쿠르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 프로그램

빌라 로보스/Cinq Preludes pour Guitare  
 바흐/바이올린 파르티타 제2번 리단조 BWV 1004 '사냥노'  
 망고레/왈츠 작품 8 제4번  
 아구아도/화려한 론도와 서주 작품 2 제2번  
 피아졸라/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사계 등

### 제60회 클라비어 하우스 콘서트 유니세프 기금조성 음악회

일 시 | 11월 21일 토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객민정 010-3069-9777



부산예술고등학교 2학년 박상현이 그의 친구들과 함께 마련해온 제60회 클라비어 하우스 콘서트.

차세대 음악가를 꿈꾸며 실력을 쌓아가고 있는 음악도들의 작은 무대로, 2015년 9월부터 매주 토요일 지역주민들을 위해 마련해온 클라비어 하우스 콘서트는 지난 8월에 이어 장소를 금정문화회관으로 옮겨 유니세프 기금조성을 위한 특별한 무대로 마련된다. 특히 이번 무대는 음악을 통한 나눔과 봉사에 의미를 두고 있는 학생들이 기아에 허덕이는 지구촌 어린이를 생각하며 스스로 마련하는 뜻깊은 무대이다.

- 피아노/허예나, 이준호, 이재원, 박상현
- 성악/한채연, 임영서, 박해원, 김태현, 이호서
- 클래식기타/고재윤
- 플루트/실경화
- 트럼펫/박새길
- 바이올린/김현우

## Play 연극

### 연극 '셜록 홈즈'

일 시 | 9월 22일(목)~OPEN RUN 오후 5:00, 8:00(월요일 공연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2관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영국의 소설가 아서 코난 도일이 쓴 추리소설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탐정 '셜록 홈즈'의 모험담을 그린 연극. 셜록홈즈에게 수수께끼의 암호의뢰서가 도착하면서 사건 종료 50시간 남은 게임이 시작된다. 시간을 추리할수록 점점 꼬여만 가는 단서들과 용의자들의 관계 속에서 셜록 홈즈의 고민은 깊어가고... 12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시대를 뛰어넘어 영화, 도서, 드라마, 뮤지컬, 가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창조되고 있는 '셜록홈즈'는 원작 본연의 추리와 스릴, 서스펜스 속에서도 위트있는 연출로 글과 영상매체에서 느낄 수 없는 재미를 선사한다.

### 연극 '오백에삼십'

일 시 | 9월 29일(목)~2017년 1월 30일(월)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스타홀

입장료 | 균일 3만원(만 13세이상 관람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지방에 올라와 처음 서울 생활을 시작하는 사회인들에게, 부푼 꿈을 안고 첫 발을 내딛는 사회인들에게 어딘가 익숙하고 설레는 단어 '보증금 오백에 월세 삼십', 돈도 없고 빵도 없지만 열심히 살아 가고자 하는 우리들 이야기를 그린 코미디극. 경상도에서 올라와 포징마치를 하는 허덕이는 인생 '허덕', 베트남에서 왔다가 불같은 사랑에 빠진 '호영미', 뺨질이 고시생 '배변' 등은 보증금 오백에 월세 삼십만원인 원룸텔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슈퍼 갑질을 일삼는 빌라 주인아줌마의 느닷없는 사망 소식은 서로를 의심하게 만들고 범인은 누구인지, 왜 그녀를 죽였는지에 대한 의문이 갈수록 커지는데...





## 연극 '작업의 정석'

일 시 | 1월 5일(목)-3월 5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6:00, 8:30, 일·공휴일 오후 4:00, 7:00(월요일 공연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관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2012년 6월 첫 공연 이후 관객들의 입소문을 타고 대학로를 대표하는 로맨틱 코미디 연극으로 자리잡은 연극 '작업의 정석'. '작업의 고수'인 두 주인공 공 서민준과 한지원은 서로 만나자마자 바로 '밀당'을 시작한다. 둘 다 연애 고수인 만큼 금세 상대방이 자신에게 '작업'을 걸고 있음을 눈치챈 주인공들은 누가 이기나 연애의 추를 걸고 승부를 시작하는데... 소위 연애의 '고수'를 자처하는 두 남자가 우연히 마주치면서 벌이는 밀고 당기는 연애 명승부를 통해 관객들에게 작업의 비법을 전수하는 '작업의 정석'은 고수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성의 심리를 코믹하면서도 현실감 있게 그려낸 로맨틱 코미디극이다

## 연극 '쌈이 필요해'

일 시 | 1월 6일(금)-2017년 2월 19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6:00, 일·공휴일 오후 4:00(1/27 오후 4:00, 1/28 오후 7:00, 월요일 공연없음)  
부산메트로홀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의 | (주)플레이 더 부산 1600-0316



연애, 결혼, 출산 다 포기한 2030 삼포세대들이 꿈꾸는 현실 로맨틱 코미디극 '쌈이 필요해', 능력을 인정받아 회사에서도 잘 나가고 모든게 부족한 것이 없는 프리한 생활을 즐기고 사는 35세 언론사 연예부 취재팀장 이선균과 그 앞에 나타난 새미랄게 어린 4차원 언턴 이나영, 잘나고 똑똑해서 안티도 많지만 알고 보면 허술한 그녀, 35세 편집장 김정화, 그리고 연애가 설레지 않은 연애고자 그녀에게 적극적으로 들이대는 신입기자 김석원 등 같은 직장 네 남녀의 좌충우돌 연애기가 현실적으로 펼쳐진다.

## 창작뮤지컬 '나에게만 들리는 목소리'

일 시 | 1월 6일(금)-22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6:00, 일요일 오후 3:00(월요일 공연없음, 12/25 오후 3:00, 6:00)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입장료 | 균일 4만원  
문의 |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말 잘 듣고 이쁜 큰딸'에서 노처녀 구박당어리로 전락한 강희 앞에 운명적으로 나타난 텔레파시 초능력자인 힘찬. 솔직하면서도 순수한 힘찬의 모습에 빠진 강희는 힘찬을 사랑하게 되고 둘은 연인관계가 된다. 시간이 흘러 결혼을 생각하는 강희는 프로젝트를 기다리지만 변변찮은 직업과 집안 때문에 고객을 망설이는 힘찬, 과연 두 주인공은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결혼에 골인할 수 있을까? 사랑 앞에 놓인 현실 속에서 연애와 다른 결혼을 앞두고 고민하는 두 주인공을 통해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그려낸다.

## 뮤지컬 '산복도로'

일 시 | 1월 6일 금요일 오후 7:00, 7일-8일 토-일요일 오후 4:00, 7:00  
동서대학교 셉템소향실극장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의 | 리앤컬처(주) 740-5112



지난 1997년 IMF로 모두가 곤궁했던 그 시절 부산의 '산동네' 산복도로를 배경으로 9살 동찬이의 성장 이야기와 산동네를 살아가는 우리네 이웃들의 이야기를 맛깔스럽게 담아낸 뮤지컬 '산복도로'. 서울에서 나고 자란 9살 동찬이는 1997년 IMF 경제위기로 사업에 실패한 아버지를 따라 부산 산복도로로 이사를 온다. 산복도로의 터줏대감 악동3인방은 서울내기 동찬이를 경계하지만 혹독한 테스트를 거쳐 악동3인방의 멤버가 되고 동찬은 동네 아이들과 어울리고 망태할아버지와 우정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알아가는데... 동서대학교 뮤지컬학과 오세준 교수가 희곡, 연출을 맡은 뮤지컬 '산복도로'는 산복도로, 감천문화마을, 지갈치시장, 수영비행장 등 부산에서만 이야기 될 수 있는 소재로 제작된 '월 메이드 인 부산' 뮤지컬로, 누구나 공감하는 이야기로 감동을 전해준다.

## Event 행사

### 정두환의 음악강좌 '좋은음악 & 좋은만남' 음악으로 여는 세상

일 시 |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보수동채방골목문화관

입장료 | 무료  
문의 | 정두환 011-574-0423



현재 보수동 책방골목문화관에서 매주 진행하고 있는 '좋은음악 & 좋은만남' 은 음악이 사람들 속 사회에 어떻게 녹아들고 만나는지를 함께 이야기하는 만남의 장이다.  
[프로그램] 1월 3일(590회) '새로운'이란 단어의 살레임  
1월 10일(591회) '사랑'이라는 음악 이야기  
1월 17일(592회) '희망'이라는 음악 이야기  
1월 24일(593회) '열정'이라는 음악 이야기  
1월 31일(594회) 이달의 한권 책읽기 '인생의 발견' (시어도어 젤던 저 / 문희경 역 / 어크로스)

## 부산시네마아카데미·시네바움 아트홀 1월 아카데미

일 시 | 1월 2일(월), 5일(목), 9일(월), 12일(목), 16일(월), 19일(목), 23일(월)  
부산시네마아카데미 시네바움  
입장료 | 균일 1만원(16일 강좌 1만 5천원)  
문의 | 부산시네마아카데미·시네바움 010-3827-2995, 010-2774-3455

- 2일(월) 오후 7:00  
하생의 섬, 연암의 아나키즘(두 번째 시간)  
•강사/강명관(부산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5일(목) 오후 7:30 사실과 진실 그 사이의 논픽션(영화)  
•강사/오민욱(영화감독)
- 9일(월) 오후 7:30 몸으로 영화보기  
•강사/이왕주(부산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 12일(목) 오후 7:30 패션, 영화를 디자인하다  
•강사/진경옥(동명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교수)
- 16일(월) 오후 7:30 음악평론가 박근수의 클래식투어 '베토벤의 음악과 사랑 그리고 영화 불멸의 연인'
- 19일(목) 오후 7:30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와 카르페디엠  
•강사/홍옥숙(한국해양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 23일(월) 오후 7:30 오늘날의 미술관 생태계  
•강사/이성훈(예술철학자, 해운대 달맞이길 북갤러리 내서재 대표)

무지크바움 클래식 인문학 강좌  
곽근수의 맛있는 클래식 제14강  
**‘베토벤의 삶과 예술’**

일 시 | 1월 10일 화요일 오후 8:00 무지크바움  
입장료 | 균일 1만 5천원  
문 의 | 무지크바움 070-7692-0747  
cafe.daum.net/musikbaum.busan



클래식음악 해설가로 활동하고 있는 음악평론가 곽근수가 진행하는 무지크바움 클래식 인문학 강좌 ‘곽근수의 맛있는 클래식’  
‘고전주의에서 낭만주의 시대로 넘어가는 위대한 교량’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그 이름 앞에 악성樂聖이라는 최상급 존칭이 붙어진 베토벤의 삶과 음악에 관한 두 번째 강의로, 귀족 중심의 후원자들, 여인들, 괴테와 실러, 베토벤의 경쟁자들, 작품 세계 등 베토벤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와 그의 고매한 예술혼이 담겨진 대표작들이 소개된다.

무지크바움 인문학 강좌  
김성민의 예술기행 제9강  
**15~16세기 플랑드르 미술**

일 시 | 1월 20일 금요일 오후 8:00 무지크바움  
입장료 | 균일 1만 5천원  
문 의 | 무지크바움 070-7692-0747  
cafe.daum.net/musikbaum.busan

아트 커뮤니케이터 강사 김성민과 함께하는 무지크바움 인문학 강좌 ‘김성민의 예술기행’.  
이번 강차에서는 ‘15~16세기 플랑드르 미술’이라는 주제로 플랑드르 화풍을 연 로베르트 캉팽과 그의 제자 안 반 에이크, 종교개혁 이후 독특한 화풍을 선보인 히에로니무스 보스, 그리고 보스의 그림을 모작하다가 나중에 독특한 영역을 구축했던 피에테르 브뤼겔 등 다양한 해석과 이야기를 담고 있는 플랑드르 화가들의 작품들을 통해 그 시대, 그 지역의 특징적인 화풍을 알아본다.

시를짓고듣는사람들의모임  
시마당 제169회 시낭송회  
**신춘 詩 낭송회**

일 시 | 1월 24일 화요일 오후 6:30  
새홍재병원 대강당  
문 의 | 화장 안태봉 010-8374-0626

Display 전시

**이중섭, 백년의 신화**

일 시 | 10월 20일(금)-2017년 2월 26일(일)  
부산시립미술관 2층 전시실  
입장료 | 일반 7천원, 초·중·고 4천원(만 7세 미만 유아 및 65세 이상 무료, 문화가 있는 날 일반 4천원, 초·중·고교생 2천원)  
문 의 | 부산시립미술관 731-7128  
www.jungseob.com

갤러리 아인

**박경선, 신흥우, 이수동 3인전**

일 시 | 12월 2일(금)-2017년 1월 5일(목)  
갤러리 아인  
문 의 | 갤러리 아인 747-2612

소울아트스페이스 개관 11주년 기념전

**예술가의 눈-An Eye for Aet**

일 시 | 2016년 12월 22일(금)-2017년 2월 22일(금)  
소울아트스페이스  
문 의 | 소울아트스페이스 731-5878  
www.soulartspace.com

BNK아트갤러리  
**‘다시, 빛을 말하다’展**

일 시 | 2016년 12월 7일(수)-2017년 3월 3일(금)  
BNK아트갤러리  
문 의 | BNK아트갤러리 246-8975

크리스마스 특별기획

**‘LUCKYBOYSUNDAY 럭키 보이선데이’展**

일 시 | 2016년 12월 8일(목)-2017년 1월 8일(일)  
롯데갤러리 광복점  
문 의 | 롯데갤러리 광복점 678-2611

2016 회동담화(回東談話)

**My dear Country\_국민을 위한 나라**

일 시 | 2016년 12월 16일(금)-2017년 1월 24일(화)  
예술지구\_P ADP1관  
문 의 | 예술지구\_P 070-4322-3113

금정구에 위치한 사진미디어공간 예술지구\_포톤(PhoTone)이 현대 사진의 다양한 변주와 사진을 매개로 한 다양한 예술실천들을 조명하고 사진 담론을 생산하기 위해 마련한 기획전 ‘2016 회동담화(回東談話)’.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공식인  
증사업 **KOREA ON/OFF展**

일 시 | 2016년 12월 17일(토)-2017년 2월 22일(수)  
고은사진미술관  
문 의 | 고은사진미술관 746-0055  
www.goeunmuseum.kr

프랑스의 국제적인 사진창작집단 당팡스 플루(Tendance Floue) 소속 작가 12인이 지난 16개월 동안 한국의 모습을 각자의 독창적인 시선으로 담아낸 ‘Korea On/Off’展.



**활짝 열린 방**

일 시 | 12월 20일(화)-2017년 4월 2일(일)  
부산시립미술관 3층 소전시실  
문 의 | 부산시립미술관 744-2602

부산시립미술관의 소장품 중 미술의 흐름을 살필 수 있는 회화 작품에서부터 복합장르의 시운드·미디어 작품까지 총 17점 전시.

**시간의 산책자들**  
-임응식, 정인성

일 시 | 12월 22일(목)-2017년 2월 26일(일)  
부산시립미술관 2층 전시실  
문 의 | 부산시립미술관 744-2602

한국의 1세대 사진작가이자, 서울과 부산의 후배 사진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 교육자로서도 공로점이 너무나도 많은 임응식, 정인성 작품전.

**욕망의 메트로폴리스**

일 시 | 12월 22일(목)-2017년 4월 2일(일)  
부산시립미술관 3층 대전시실  
문 의 | 부산시립미술관 744-2602

**타워아트갤러리 서양화 소장품전**

일 시 | 1월 3일(화)-1월 16일(월) 타워아트갤러리  
문 의 | 타워아트갤러리 464-3939

타워아트갤러리 특별기획

**제17회 타워현대여성작가전**

일 시 | 1월 17일(화)-1월 25일(수)  
타워아트갤러리  
문 의 | 타워아트갤러리 464-39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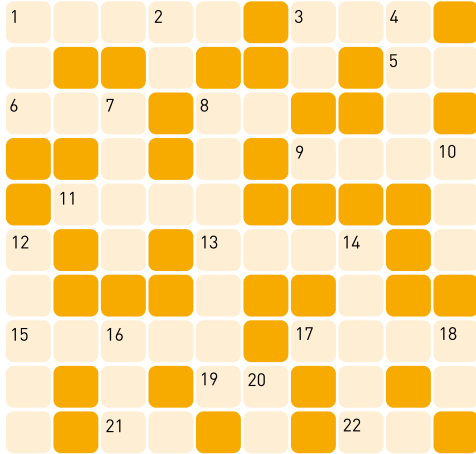
#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 가로열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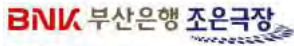
- ① 부산문화관이 매년 12월 31일 가는 해의 아쉬움을 달래고 오는 해를 뜻깊게 맞이하기 위해 마련하는 특별한 무대.
- ③ 국내 최초 '원전사고'를 다룬 김명인, 김남길 주연의 재능발굴버스터 영화.
- ⑤ 길고 평평한 것을 신발 밑에 부착해 눈 위에서 미끄러지며 지체나갈 수 있도록 만든 도구 혹은 이를 이용한 스포츠의 명칭.
- ⑥ 전라북도 진안군과 장수군의 경계인 팔공산에서 발원하여 순창군 적성면을 지나 남해의 광안만으로 흘러드는 강. 1385년(고려 우왕 11년) 왜구가 강 하구에 침입할 때 광양 땅 섬거(蟾居)에 살던 수십만 마리의 두꺼비가 떼지어 몰려와 울부짖자 이에 놀란 왜구가 피해갔다는 전설에서 고려시대부터 두꺼비 섬(蟾居)지를 불어 〇〇이라 불려졌다 한다.
- ⑧ 15세기부터 16세기 초까지 남아메리카의 중앙 안데스 지방(페루·볼리비아)을 지배한 고대제국이었으나 1532년 황금을 쫓아 찾아온 스페인 탐험대에 의해 멸망되었다.
- ⑨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맥으로 해발 7,300m 이상의 고봉이 30여 개나 분포되어 있어 '세계의 지붕'이라 일컬어진다.
- ⑪ 모차르트가 당시 외국어(이탈리아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서민들을 위해 만든 소박한 정수필(Singspiel, 연극처럼 중간에 대사가 들어있는 독일어 노래극)이자 그의 마지막 오페라.
- ⑬ 전 세계에 흩어진 7개를 모두 모으면 어떤 소원이라도 하나 이루어준다는 〇〇〇과 주인공 손오공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내용의 일본 만화. 연재 종료 후에도 관련 상품이나 게임 등이 꾸준히 제작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다.
- ⑮ 미국 프로야구의 아메리칸리그(American League)와 내셔널리그(National League)를 아우르는 말로, 빅리그(Big League)라고도 한다. 현재 한국 선수로는 타자 김현수, 추신수, 박병호, 이대호, 최지민, 강정호, 투수 오승환, 류현진 등이 활동하고 있다.
- ⑰ 한 나라를 이용해 다른 나라를 제압한다는 의미로, 옛날 중국 본토 국가들이 주변 국가들을 다스릴 때 사용하던 전략에서 유래된 사자성어이다.
- ⑲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의 시사적인 문제나 인물을 풍자하여 하나의 컷으로 그린 만화. 컷문의 주제가 인간의 희로애락이라면 〇〇은 정치, 경제, 사회에서의 인간의 행위를 비평하고 풍자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㉑ 조선 중기의 명장. 임진왜란 7년간 군대를 총지휘한 장군으로 특히 진주대첩, 한산도대첩과 더불어 임진왜란 3대 대첩인 행주대첩을 승리를 이끌었다.
- ㉒ 국악기 중 타악기. 허리가 가늘고 잘록한 통의 양쪽에 가죽을 붙인 악기로, 허리 부분이 가늘다 하여 일명 '세요고라' 부르기도 했다.

## 세로열쇠

- ① 어떤 시스템이나 사회 전체의 이익이 일정하여 한쪽이 득을 보면 반드시 다른 한쪽이 손해를 보는 상태.
- ② 주로 관현악단의 제1바이올린 수석 연주자, 또는 현악 4중주단의 제1바이올린 연주자를 가리키는 말로, 지휘자의 보조적 역할을 함과 동시에 지휘자와 악단 사이의 중개역할도 한다. 콘서트마스터(concertmaster).
- ③ 중국 북서부와 티베트 등부 일대의 높은 산속 대나무 숲에서 살며 주식은 대나무 잎이며, 작은 동물이나 새를 잡아먹기도 한다. 매우 희귀한 동물로, 중국 정부로부터 특별히 보호를 받고 있다.
- ④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세계의 오페라극장 가운데서도 가장 유명한 오페라극장 중 하나로, 1778년 당시 밀라노를 지배하던 오스트리아의 여제(女帝) 마리아 테레지아의 명에 따라 교회 자리에 세운 것으로 그 후 두 차례에 걸쳐 개조되었다.
- ⑦ 중요무형문화재 제8호. 주로 해삼, 완도, 무안, 진도 등 전라남도 해안 일대에서 성행하였다. 노래와 무용과 놀이가 혼합된 부녀자들의 놀이로 주로 추석날 밤에 행하여지며 정월대보름날 밤에 하기도 한다.
- ⑧ 스웨덴 출신의 여배우. 스웨덴과 독일 영화계에서 활동하다 미국으로 건너가 1944년 '가스등'으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하여 1940년대 미국영화를 대표하는 스타가 되었다. 1956년 '추상'으로 두 번째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으며, 이밖에 대표작으로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카사블랑카' 등이 있다.
- ⑩ 낭만파 시대에 주로 피아노를 위하여 작곡된 소곡으로, 녹턴(nocturne)이라고도 한다.
- ⑫ 멕시코의 여성 싱어송라이터 콘수엘로 벨라쿠에즈가 1940년 리라꽃(리알락)에 얽힌 아픈 사랑 이야기를 담아 부른 노래 제목. 〇〇〇〇는 스페인어로 '많이 키스해주세요'라는 뜻.
- ⑭ 러시아어로 '큰 극장', '대극장(大劇場)'을 뜻하는, 러시아 모스크바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오페라 극장 중 하나. 정식 명칭은 '러시아 국립 아카데미 대극장'으로, 특히 이곳의 발레단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 ⑯ 저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를 남에게 허락할 수 있는 인격적, 재산적 권리.
- ⑰ 일제 강점기 한국의 대표적인 근대 작가. 단편소설 '날개'를 발표해 큰 화제를 일으켰으며 오늘날 그의 업적을 기려 출판사 문학상사에서 지난 1977년 '〇문학상을 제정해 매년 시상해오고 있다.
- ⑱ 개구리가 헤엄치는 것과 유사한 수영법. 가장 오래된 수영법으로, 특히 물살이 센 곳에서 효과적이다.



공간소극장 | 051-611-8518      큰집 | 051-245-3320  
 조은극장 | 1588-2757      옐로인 플라워 | 080-337-3370



지난호 정답

핀 커 스 주 커 만      밀 레  
 란      산      화 룡 점 정  
 디 바      지 방      묘 이  
 아      쿡 스      법 계 사  
 피 아 노      닭      도  
 해 이      품      아 수 라  
 바 그 다 드 카 페      베      던  
 라      론      이 루 마      컨  
 기 면 증      발      리  
 벽      마 리 앙 투 아 네 트

옐로인플라워      정옥희(부산진구 동평로)  
 노경희(남구 유인평화로)

조은극장      김종희(금정구 금샘로)  
 남성미(사상구 냉정로)  
 박정숙(북구 금곡대로)  
 최민호(금정구 부곡로)  
 황용주(북구 화명신도시로)

공간소극장      김미경(연제구 과정로)  
 박지혜(해운대구 마린시티2로)  
 이수정(남구 석포로)  
 이진수(해운대구 송정1로)  
 주미라(동구 초량로)

큰집식사권      권숙희(해운대구 재반로)  
 김세진(금정구 금강로)  
 이해경(동래구 사직로)  
 오정희(동래구 안남로)  
 한민경(연제구 거제천로)

12월호 퍼즐 당첨자



# RECORD



## ❖ 아마데우스 콰르텟의 낭만파 작품집 '로맨티시즘'

브람스 현악4중주, 피아노5중주, 클라리넷5중주, 현악5중주 / 브루크너 현악5중주 / 슈만 피아노5중주, 현악4중주 / 멘델스존 현악4중주 / 베르디 현악4중주 / 드보르 작 피아노5중주 / 그리그 현악4중주

최초로 공개되는 아마데우스 콰르텟의 녹음! 브람스, 슈만, 멘델스존 등 낭만파 작곡가의 실내악 작품을 모은 6CD 앨범 '로맨티시즘'. 특히 아마데우스 콰르텟의 연주로는 처음 만나는 슈만과 그리그 현악4중주가 수록되어 있다. 1950년에서 69년 사이의 RIAS 녹음으로, 현악4중주를 중심으로 현악5중주, 클라리넷5중주, 피아노5중주 등 협연을 즐겼던 아마데우스 콰르텟의 모습을 보여준다. 편집없이 원테이크로 녹음된 방송녹음으로, 라이브와 같은 활기가 느껴진다. 아마데우스 콰르텟의 우아하고, 매력적인 연주가 아우디오테 레이블의 최상의 마스터링 작업을 통해 선명한 음질로 재현되었다.



## ❖ 루체른 페스티벌\_파울 클레츠키

브람스 교향곡 4번 / 슈베르트 교향곡 7번 '미완성' / 베토벤 레오노레 서곡 제3번

최초로 공개되는 거장 파울 클레츠키의 브람스, 슈베르트 교향곡 녹음. 폴란드 태생의 유대인 클레츠키는 젊은 시절 베를린에서 푸르트벵글러에게 큰 영향을 받았다. 하지만 나치와 파시즘, 그리고 스탈리즘에 쫓겨 독일, 이탈리아, 소련을 전전하는 격동의 시간을 보내고 마침내 스위스에서 안정을 찾았다. 그리고 2차 대전이 종료된 1946년 9월, 루체른 페스티벌 공연에서 그간의 고생을 승화시키는 감동적 연주를 선보인다. 브람스 '교향곡 4번'과, 슈베르트 '미완성 교향곡', 그리고 베토벤 '레오노레 서곡 3번'에서 정통적 해석의 화려한 울림을 지닌 정점의 연주를 들려준다.



## ❖ 루체른 페스티벌\_볼프강 슈나이더한

모차르트 바이올린 협주곡 제5번 K.219 '터키' / 한스 제르너 헨체 바이올린 협주곡 1번 / 프랭크 마르탱 마니피카트

최초로 공개되는 20세기 명바이올리니스트 슈나이더한의 루체른 페스티벌 52년, 64년, 68년 녹음. 1951년 빈 태생으로, 빈필의 악장 출신인 슈나이더한은 비범한 기교의 소유자였지만, 비르투오시를 과시하는 연주보다는 항상 완벽히 조율된 음색으로 세련된 호흡의 절제된 연주를 추구했다. 슈나이더한은 바흐, 모차르트, 베토벤 전문가인 동시에 현대음악 연주에도 적극적이었다. 이 음반에 수록된 마르탱 '마니피카트'는 그에게 헌정된 작품으로 아내 제프리드와 함께한 세계 초연의 기록이다. 모차르트 협주곡 5번 '터키'와 헨체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 마르탱의 '마니피카트'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힌데미트, 라이트너, 하이팅크 등 거장 지휘자가 등장한다.

# BOOK

## ❖ 아름다운 영화에는 비밀이 있다



이주는 지음 / 이봄 / 264p / 1만 7천 500원

19세기 영국 빅토리아 시대 라파엘전파의 그림을 통해 우리가 결혼과 가족에 대해 갖고 있는 고정관념과 여성에 관한 편견의 역사적 맥락을 살펴볼 것을 권하는 책. 라파엘전파는 영국왕립미술원에서 최고의 존경의 대상이었던 라파엘로와 미켈란젤로의 이상화된 미술을 비판하며, 영국 아카데미 미술에 반기를 든 진보적인 예술가 단체이다. 영화 <텔미섬딩>에는 인상적인 그림 한 점이 등장한다. 라파엘전파의 화가인 존 에버렛 밀레이의 '오페리아'이다. 영화의 분위기에 걸맞은 신비로운 느낌과 화려한 묘사의 그림이다. 이 그림은 햄릿의 연인이었던 오페리아의 비극적인 죽음을 포착했는데, 단지 아름답기만 한 그림이 아니다. 갖가지 풀꽃들에 둘러싸여 물 위에 누운 채 실성하여 노래 부르고 있는 오페리아는 남성 세계의 폭력성에 희생당한 대표적 인물이다. 아름다운 여자들을 그린 라파엘전파의 작품을 그냥 아름다운 그림으로 알고 있던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그림에 담겨있는 비밀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고정관념의 역사, 특히 여자에 대한 편견의 역사적 맥락을 '그림'이라는 단서를 통해 흥미롭게 풀어냄으로써, 지금 우리의 모습을 넓은 시각에서 바라보게 한다.

## ❖ 디자인의 예술



도미니크 포레스트 외 지음, 문경자 외 옮김 / 미메시스 / 928p / 5만 8천 원

디자인의 역사는 산업의 발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디자인은 기계화와 신소재의 자유로운 사용으로 인해 엄청나게 빨라진 가공 상품의 제조 속도와 함께 해 온 것이다. 디자인은 20세기에 공산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조정하는 거대한 계획을 규정하고 전체를 포괄해 온 큰 역사인 것이다. 디자인 전문가들이 말하는 산업디자인의 연대기와 예술성을 설명하는 책이 나왔다. 이 책은 디자인 최고의 전문가들이 저자로 참여했다. 대표저자인 도미니크 포레스트는 파리 장식 미술 박물관의 학예 책임자로 책임 편집을 맡아 디자인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글을 부탁했다. 각 전문가들이 650여 장의 작업 사진과 함께 디자인의 황금기라 할 수 있는 제2차 세계 대전 후부터 현재까지 각 나라별로 디자인에 대해 다루었다. 또한 주요 산업 국가의 디자인을 소개하고 전시회, 실내 장식, 광고 등 디자인에서 영향 받은 다양한 분야를 시대적 맥락에 비추어 다루었다. 미디어의 시대인 지금의 제품은 기능과 용도가 아니라 개념의 독창성과 참신성으로 평가받는다.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요구하는 전 세계 소비자들의 욕망은 더 새로운 디자인을 탄생시킨다. 디자인의 큰 세상을 펼쳐 보이는 책이다.

## ❖ 흥, 손철주의 음악이 있는 옛 그림 강의



손철주 지음 / 김영사 / 284p / 1만 4천 800원

빠어난 해석과 문체, 해박한 식견과 다정한 입담으로 그림, 그중에서도 특히 우리 옛 그림을 소개하는 데 탁월한 맛을 보여주는 손철주 씨가 우리 옛 그림과 소리의 만남을 시도한 책. 옛 그림을 해석해오던 저자는 국악을 접하면서 조선시대 그림의 음악적 성향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2015년에는 국악방송에서 한 해가 넘도록 옛 그림을 해석하면서 청취자들과 옛 가락을 더불어 즐겼고, 재계 CEO들과 함께 옛 그림과 옛 음악을 공부하는 자리도 가졌다. 이런 과정들이 이 책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 이 책에는 <월하탄금>, <허유와 소부>, <생황 부는 소년> 등 60여 점의 옛 그림과 <백설양춘>, <영산회상>, 거문고, 생황, 비파 등 음악이 서로 스며들어 조화를 이루는 이야기가 가득하다. 저자만의 맛깔스런 해설이 옛 그림을 보는 눈을 밝혀주고, 우리 음악을 듣는 귀를 열어준다. 저자는 "그림과 음악은 정이 깊다. 음악은 '소리가 그리는 그림', 그림은 '붓이 툴기는 음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림 속에 박자와 가락이 있고, 음악 속에 모법과 추상이 있다. 우리 옛 그림과 옛 소리는 대대로 내려오는 우리다운 정서의 산물이다. 서로 통해서 어울리고, 어울려서 신명을 빚어낸다"고 말한다.



# NEWS

## 부산남구UN평화문화특구 상호 협력체계 구축 (재)부산문화회관 외 5개 기관 업무협약 체결



(재)부산문화회관이 부산남구UN평화문화특구에 자리한 5개 기관과 상호협력체계를 마련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12월 20일 부산남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체결식에서는 (재)부산문화회관 이영준 경영기획본부장을 비롯해 부산남구청, 유엔평화기념관, 일제강제동원역사관, 부산박물관, 부산예술회관 등 6개 기관장이 참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각 기관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 및 활동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각 기관간 연계사업을 벌이는 등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지난 2010년 5월 지정된 부산남구UN평화문화특구는 유엔총회가 지정한 세계 유일의 유엔군 묘지인 유엔기념공원을 중심으로 그 일대에 문화관광 기반시설을 조성, 세계평화와 자유수호 성지로서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그동안 다양한 특화사업을 펼쳐왔다. 그동안 진행된 주요 특화사업으로는 2011년 부산예술회관과 젊음의 광장이 조성되고 2013년 경성대학교에서 부경대학교에 이르는 구간에 대학로 문화거리가 조성됐다. 2014년 11월 유엔평화기념관 개관에 이어 2015년 12월에는 일제강제동원역사기념관이 개관됐으며, 올해 9월에는 지난 2015년부터 조성되고 있는 유엔참전 기념거리가 완공된다. 유엔참전 기념거리는 유엔기념공원을 거쳐 평화공원에 이르는 '참전용사의 거리', 유엔교차로에서 부산예술회관에 이르는 '유엔의 거리', 그리고 유엔교차로에서 대연사거리에 이르는 '평화의 거리' 등 3개의 거리로 조성된다.

이렇듯 부산남구UN평화문화특구는 그동안 특화사업을 통해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했지만 현재까지 각 기관들이 개별적으로 행사를 진행해오면서 특별한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했다. 따라서 이번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재)부산문화회관과 5개 기관은 앞으로 '평화'와 '문화'라는 지역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활용,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다양한 연계사업을 발굴하면서 지역 관광과 연계한 평화 및 문화시설 투어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 2017년도 상반기 부산문화회관 대관 안내

## 문의

### · 공연기획팀

☎ 607-6095 F. 607-6288

### · 극장(대극장, 소극장)

☎ 607-6095 E. hssi12@naver.com

### · 전시실(대전시실)

☎ 607-6281 E. yyjj555@hanmail.net

## · 대 상

· 극장(대극장, 소극장), 전시실(대전시실)

## · 대관내용

- 대관기간 : 2017. 1. 1(일) ~ 6. 30(금)
- 대관가능일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 공지사항 참조
- 접수기간 : 2017. 1. 3(화) ~ 1. 17(화) ※ 2017년 하반기 정기대관 4월초 접수
- 접수방법 : 온라인대관, 메일, 팩스, 우편
- 결과통보 : 접수기간 마지막일로부터 30일 이내  
※ 대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허가 여부 회신

## · 기본방향

- 순수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우선 대관
- 국내외 저명 예술단체 또는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공연 및 전시
- 오페라, 뮤지컬, 연극 등 종합예술공연 진흥
- 특정단체의 집회성(정치, 종교 등) 공연 및 행사는 대관 제외

## · 대관신청 및 허가 절차

· 상담(구두, 전화) ▶ 신청 및 접수(적정여부) ▶ 대관심의(일정조정) ▶ 통보

## · 대관신청 시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공연계획서(프로그램, 프로필 등 첨부) 1부  
※ 공연계획서 없는 신청서는 접수할 수 없으며, 공연계획서 내용 미비 등은 대관심의과정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 · 사용료 납부

- 계약금 : 사용 허가 후 30일 이내 납부 및 계약 체결
- 잔 금 : 공연예정일 30일 전까지 납부  
※ 기한 내 사용료 미납 시 사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용허가가 취소됩니다.



# 2017 (재)부산문화회관 아카데미 겨울방학 특별 프로그램

## 교실밖에서 만나는 신나는 문화예술체험



### 쿵덕쿵 국악교실

운영기간 2017. 1. 9(월)~13(금) 오전 10:00  
장 소 소년소녀합창단 연습실  
모집대상 초등학교 3학년 이상 20명(선착순)  
수강료 30,000원(정기회원 10% 할인)  
강 사 백규진(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박경진(효원국악관현악단 수석 단원)



### 벚나무 음악교실

운영기간 2017. 1. 9(월)~13(금) 오후 2:00  
장 소 소년소녀합창단 연습실  
모집대상 초등학교 3학년 이상 20명(선착순)  
수강료 30,000원(정기회원 10% 할인)  
강 사 이건륜(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수석지휘자)  
강미순(작곡가, 교사)



### 어린이 오페라교실

운영기간 2017. 1. 16(월)~20(금) 오전 10:00  
장 소 국제회의장  
모집대상 초등학교 3학년 이상 20명(선착순)  
수강료 30,000원(정기회원 10% 할인)  
강 사 이연기(영산대학교 교수)

접수기간 2016. 12. 20(화) ~ 선착순 마감

모집대상 초등학교 3학년 이상(20~30명 선착순)

접수방법 온라인 : <http://www.bscc.or.kr> (홈페이지→아카데미→강좌조회→수강신청)

전화 : 전시교육팀 051-607-6281

방문접수 : 부산시 남구 유엔평화로 76번길 1 (재)부산문화회관

수강료 납부 온라인 : 카드결제/ 계좌입금 : 부산은행 101-2042-6790-01 (예금주 : (재)부산문화회관)

※ 반드시 수강생 성명으로 입금 바람





# 문화예술프로그램 수강신청 안내

**수강신청** 2016. 12. 20. ~ 선착순 마감

| 방법 | 온라인 · 전화 · 방문신청

▷ 온라인 : <http://www.bscc.or.kr>

(홈페이지 - 아카데미 - 강좌조회 - 수강신청)

▷ 전 화 : 전시교육팀(051-607-6281)

▷ 방문처 : 남구 유엔평화로 76번길 1 (재)부산문화회관

| 수강료 |

▷ 온 라 인 : 카드결제

▷ 계좌입금 : 부산은행 101-2042-6790-01 (예금주 : (재)부산문화회관)

※ 반드시 수강생 성명으로 입금 바람

| 10% 할인 | 정기회원, 가족수강, 2강좌 이상 수강시

※ 단, 1개월 이상 강좌에 한함

※ 가족수강 및 2강좌 이상 수강 할인은 전화 및 방문시에만 가능

| 기타 |

▷ 최소 수강인원 미달 시 강좌 취소될 수 있음

▷ 강사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중도수강을 원할 경우 해당기간 수강료 전액을 납부해야 함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강의내용** 2017. 1. 16. ~ 3. 31.

강좌명	사 간	장 소	회수	정원	수강료
클라리넷 (초급)	월요일 19:30~21:00	국제회의장	10	12	120,000원
클라리넷 (중급)	수요일 19:30~21:00	"	10	12	120,000원
클래식기타 (초급)	금요일 16:00~17:30	"	10	15	120,000원
클래식기타 (중급)	금요일 14:00~15:30	"	10	15	120,000원
가야금 (초급)	화요일 18:00~19:30	"	10	12	140,000원
가야금 (중급)	화요일 19:30~21:00	"	10	12	140,000원
가야금 (고급)	화요일 16:30~18:00	"	10	12	170,000원
해금(초급)	목요일 16:00~17:30	"	10	12	120,000원
해금(중급)	목요일 19:30~21:00	"	10	12	120,000원
사물놀이	목요일 19:00~20:30	국립관현악단 연습실	10	12	120,000원

※ 상기 수강료는 3개월 과정 수강료임





#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가입안내

(재)부산문화회관은 부산시민의 소중한 문화예술 공간입니다.  
좋은 공연, 좋은 만남으로 여러분의 품격을 높여 드리겠습니다.

## 회원종류 및 혜택사항

### VIP회원



**연회비** 10만원  
**초대권** 8매 | 기획공연 4매, 예술단공연 4매  
**할인매수** 6매(공연당)  
**특별혜택** 지정된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5개 단체) 초대권 각 4매 증정  
 - 기획공연에 한해 최대 관람료의 다음 착석부터 지정 예매 가능  
 - 기획공연은 공연별 지정된 객석수에 따라 선착순 예약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사전 예약)  
 기획(전시)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할인(10~50%)  
 회원을 위한 음악회 초대  
 무료주차권 10매(유료시행시 제공)

### 스페셜회원



**연회비** 5만원  
**초대권** 4매 | 예술단공연 4매  
**할인매수** 4매(공연당)  
**특별혜택** 예술단공연(5개 단체) 초대권 4매 증정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사전 예약)  
 기획(전시)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할인(10~30%)  
 회원을 위한 음악회 초대 기회제공  
 무료주차권 6매(유료시행시 제공)

### 예술단회원

- 교향악단
- 국악관현악단
- 합창단
- 무용단
- 극단



**연회비** 3만원  
**초대권** 2매 | 예술단공연 2매  
**할인매수** 2매(공연당)  
**특별혜택** 예술단공연(5개 단체) 초대권 2매 증정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사전 예약)  
 기획(전시)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할인(10~30%)  
 - 비가입단체 회원 예술단공연 입장료 10~20% 할인  
 회원을 위한 음악회 초대 기회제공  
 무료주차권 4매(유료시행시 제공)

※ 단체회원 20명 이상(10%), 30명 이상(20%), 50명 이상(30%)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 모든회원 공통혜택

- 가입기간(1년)
- 회원카드 발급
- 회원전용 라운지 무료이용(회원카드 제시시 음료 제공)
- 월간예술정보지(예술에의 초대) 무료우송, 공연정보 제공
- 아카데미 수강료 할인(10~20%)
- 부산시내 외부공연 및 대관공연 입장료 할인(주최측 협의에 한함)
- 시립예술단원과 함께 떠나는 테마여행(매월 1회 추천, 여행일정 변경 될 수 있음)
- 무료주차(해당공연당일\_유료시행 시 제공), 제휴업체할인 등(제휴업체 사정상 변경 될 수 있음)

가입신청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www.bscc.or.kr](http://www.bscc.or.kr) 전화 051) 607-3151



20  
17



해피 뉴이어! 해피 보이스!



VIENNA BOYS CHOIR  
NEW YEAR'S CONCERT  
부산문화회관 신년음악회

특별출연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2017. 1. 14 SAT 5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부산문화회관

CREZIA

R석 5만원 | S석 3만원 | A석 1만원

주안티티켓 & 전화 1544-1500

부산문화회관 051)607-6096



# 화승에 다닙니다

장애가 있는 친구와 함께 가구공방을 다니며  
가구를 만드는 꿈을 이루게 해주는 곳.  
요리도, 커피도, '꿈틀 프로젝트'를 통해  
나를 나눔으로 성장하게 해주는 곳.  
텃밭을 일구어 수확한 푸른 채소를 나눠 먹고,  
그 채소를 회사 식당에 팔아 어려운 이웃을 돕는  
'화승이랑'으로 나눔과 도움의 보람을 주는 곳.  
장애 비장애 형제들과 함께 놀며 그 안에서  
더 큰 나를 발견하게 하는 곳.  
교육도, 문화도 함께라는 가치를  
더 크고, 더 멀리 나누는 곳.  
희망 가득한 이곳에  
내 꿈의 미래가 있습니다.

나는  
화승에 다닙니다.



## 화승그룹

(국내) 화승R&A 화승소재 화승T&C 화승공조 화승인더스트리 화승엑스월 화승네트웍스

(해외) 중국 - 화승기차배건(태창)유한공사(HST), 북경화승R&A기차배건유한공사(HSB), 화승특중고무(태창)유한공사(HSR), 장천제화대련유한공사(HSD), 청도장천제화유한공사(HSQ), 화승태양능소재(태창)유한공사(HSP), 화승상해국제무역유한공사(HSS), 화승호천(태창)국제무역유한공사(HSTN), 미국 - 화승아메리카홀딩스(HSAH), 화승앨라배마(HSAA), 화승USA(HSAU), 화승네트웍스아메리카(HSNA) 멕시코 - 화승멕시코(HSAM), 인도 - 화승인도(HSI AUTO), 화승인도네트웍스(HSNI), 화승소재인도(HSM) 터키 - 화승터키(HSTR), 베트남 - 화승비나(HS VINA), 화승붕따우(HVT), 화승베트남케미컬(HVC), 장천비나(CCVN), 화승베트남네트웍스(HSVN)